

JeonBuk Cheolligil Guidebook

# 전북천리길 가이드북

전라도 정도 1,000년,  
전라북도의 생태·문화·역사가 담긴  
1,000리를 걷다

# 전북천리길 가이드북



JeonBuk Cheolligil Guidebook

# 전북천리길 가이드북

전라도 정도 1,000년,  
전라북도의 생태·문화·역사가 담긴  
1,000리를 걷다

# CONTENTS

JeonBuk Cheolligil Guidebook

전라도 정도 천년에 이르러	04
전북천리길의 탄생	05
전북천리길 브랜드 소개	06
도보여행 유의사항	08
전북천리길 일러두기	10
전북천리길의 구분	12
전북천리길 노선 정보 정리	16

## 전북천리길의 각 시 / 군별 코스

<b>전주시</b>	30
1 한옥마을 둘레길	32
2 천년 전주 마실길	36
3 견지산길	40

<b>군산시</b>	44
1 구불8길(고군산)	46
2 구불4길(구슬외)	50
3 구불5길(물빛길)	54
4 구불6-1길(탁류길)	58

<b>익산시</b>	62
1 함라산 둘레길	64
2 미륵산 둘레길	68
3 웅포 꿈개나루길	72

<b>정읍시</b>	76
1 정읍사오솔길 1코스	78
2 정읍사오솔길 2코스	82
3 대장금 마실길	86

<b>남원시</b>	90
1 지리산둘레길 1코스(구룡폭포순환길)	92
2 지리산둘레길 2코스	96
3 교룡산 둘레길	100

<b>김제시</b>	104
1 새만금 바람길	106
2 금구 명품길	110
3 금산사길	114

<b>완주군</b>	118
1 고종시 마실길	120
2 운문골 마실길	124
3 완주 편백숲길	128

<b>진안군</b>	132
1 용담호 감동버섯길	134
2 운일암반일암 숲길	138
3 마이산길	142

<b>무주군</b>	146
1 예향천리 금강변마실길 2코스	148
2 예향천리 금강변마실길 1코스	152
3 구천동 아사길	156

<b>장수군</b>	160
1 방화동 생태길	162
2 뜰봉샘 생태길	166
3 장수(장안산) 마실길	170

<b>임실군</b>	174
1 옥정호 마실길	176
2 옥정호 물안개길	180
3 섬진강길	184

<b>순창군</b>	188
1 장군목길	190
2 강천산길	194
3 선비의 길	198

<b>고창군</b>	202
1 운곡습지생태길 1코스	204
2 운곡습지생태길 2코스	208
3 고창읍성길	212

<b>부안군</b>	216
1 적벽강 노을길(부안 마실길 3코스)	218
2 해남이 술섬길(부안 마실길 4코스)	222
3 모항 갯벌 체험길(부안 마실길 5코스)	226
4 쌍계재 아홉구비길(부안 마실길 6코스)	230

홈페이지 안내	234
---------	-----





## 전라도 정도 천년에 이르러



한반도 최초의 인공저수지인 벽골제의 남쪽이라 하여, 혹은 금강의 옛 이름인 호강(湖江)의 남쪽이라 하여 호남(湖南)이라 부르기도 했다는 전라도.

전주(全州)와 나주(羅州), 두 큰 고을의 이름을 딴 그 명칭은 고려시대 현종의 '5도양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남도(江南道, 지금의 전북)와 해양도(海陽道, 지금의 전남)가 전라도로 새로이 탄생한 이래, 전라도는 무려 1천년의 세월 동안 당시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오면서 지나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와 문화를 담아내었으며 '한국인의 마음의 고향'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대한제국때 노령산맥을 경계로 전라도가 남도와 북도로 나뉘어 진 후, 특유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와 맛을 가진 곳으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동남쪽으로는 경남 하동군과 함양군, 거창군, 김천시와 경계를 이루고 남쪽으로는 전남의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구

례군과 접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충남의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충북의 영동군과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서해를 건너 중국과 접하고 있는, 세계로 나아갈 창구 역할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지리산, 모악산, 덕유산, 운장산 등 영험한 산들과 영양 가득한 해산물의 보고이자 무궁한 생태학적 가치를 지닌 서해안의 갯벌,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이 보이는 평야 등 천혜의 환경과 넉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에 이르러 새로이 피어나는 전라북도를 주목하십시오. 유구한 과거를 바탕으로 역동적인 현재를 거쳐 빛나는 미래의 가치를 가진 지역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 전북 천리길의 탄생



걷기여행의 열풍 속에 전국의 다양한 길들이 저마다의 이야기와 풍경을 담고 유혹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단지 건강을 위해서, 좋은 풍경을 보기 위해서 걷는 것을 넘어 그 지역의 유구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체험하고 지역민들 속에 녹아있는 삶을 들여다보며 함께 호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길들을 우리는 흔히 '명품 길', 혹은 '명품 걷기 코스'라고 부릅니다. 전라북도도 전국의 어느 길 여행 코스에도 뒤지지 않는 다양한 명품 길들이 있습니다. 서해안을 따라 자연이 빚어낸 그윽한 풍경과 낙조를 감상할 수 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명산으로 꼽히는 지리산의 둘레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 단풍이 환상적인 내장산에서는 정읍사의 애절한 가사 속, 여인이 남편을 기다리며 바라보았을 산길을 뽐아볼 수도 있지요.

명창이 득음을 하기 위해 자연과 싸웠던 폭포를 따라 산을 오를 수 있으며 끝이 보이지 않는 드넓은 평야와 간척지 사이를 걸으며 바람의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섬진강과 금강 등을 따라

걷는 강변의 아름다움과 피어나는 물안개 속 호수의 풍경을 느끼고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은 습지의 생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전북의 명품 길 중에서도 특히 아름다운 풍경과 역사적 가치, 이야기가 있는 길을 엄선하여 14개 시·군마다 3~4개의 명품 걷기여행길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정된 길들을 <전북천리길>로 명명하였습니다.

각 길들은 해안길, 강변길, 산들길, 호수길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짧게는 두, 세 시간에서 길게는 대여섯 시간을 걸으며 전라북도가 가진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전라북도의 속을 걸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넘어선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길이라도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쉽게 보지 못했던 풍경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했던 쉼과 힐링의 시간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천리길>에 첫 발을 내딛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전북천리길 브랜드에 대하여



### Brand Concept

전북천리길은 역사와 문화 1번지로 양반의 고장이라 불리던 전라북도의 한옥을 형상화하였습니다.

고즈넉한 품이 인상적인 한옥 지붕 아래, 전북천리길의 네 가지의 테마인 산들길, 해안길, 강변길, 호수길이 부드러운 필치로 그려져 있습니다. 녹색 산과 들, 푸른 서해의 바다, 황금빛 갈대가 흔들리는 강변과 노을로 붉게 물든 호수는 전라북도의 자연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 Color System



천리길 Navy

RGB R1, G69, B140



천리길 Green

RGB R152, G197, B55



천리길 Blue

RGB R3, G140, B208



천리길 Yellow

RGB R248, G195, B0



천리길 Red

RGB R217, G7, B44

# 올바른 걷기여행을 위한 안내



옷

## 장비

트레킹화



땀을 잘 흡수하고 배출할 수 있는 소재의 의류를 입도록 합니다. 특히 혹서기에 반바지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가시당굴 및 해충 등의 피해를 막지 못할 뿐 아니라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인성이 좋은 밝은색의 의류는 조난 등의 상황에서 조난자를 빠르게 찾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등산스틱

폴(pole)이라고도 하는 등산스틱은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켜 주면서 다양한 도움을 주는 매우 중요한 장비입니다. 2조 1세트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신의 팔꿈치 각도가 90도를 이루도록, 혹은 자신의 키에서 40~50cm를 뺀 길이로 조절합니다. 손잡이에 달려있는 고리에 손을 넣고 올바르게 파지하도록 하며 하산(내리막길)시에는 길이를 약간 더 길게 조절합니다.



배낭

당일 하이킹의 경우 가벼운 배낭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배낭은 먼저 몸과 이격이 없도록 해야 하며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끈을 조절하여 바짝 매도록 합니다. 아주 가벼운 것을 아래에, 무거운 것을 등과 닿는 부분에,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위에 놓도록 합니다.



물

## 음식

간식



혹서기에는 갈증이 쉬이 찾아오므로 평상시 마시는 물보다 1.5~2배의 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분말로 된 비타민이나 이온음료는 물과 함께 쉽게 섭취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산행 중 약수터 및 휴게시설 등 물을 보충할 수 있는 곳을 만난다면 미리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과일이나 채소 등의 간식도 좋으며 열량을 쉽게 낼 수 있는 견과류나 초코바 등 활동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락 등 쉬이 변질되거나 불을 이용해 조리해야 하는 음식 등은 휴대도 불편할뿐더러 걷기여행 도중 자칫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 ! 전북천리길 걷기여행 유의사항



체력과 날씨(기온, 강수량 등)를 감안해 안전한 걷기계획을 수립 하세요.



대중교통 이용 시, 농어촌 및 산간의 경우 반드시 교통편을 사전 확인하세요.



농산물 및 산나물 등을 임의로 채취하거나 가져가지 마세요.



계곡 및 산악지역에서 입수 및 무리한 등반을 하지 마세요.



정해진 길로 다닐 수 있도록 합니다.



비상시 연락 가능하도록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여행 일정을 주변에 알려주세요.



야생동물에 접근하지 마세요.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오세요.



## 올바른 걷기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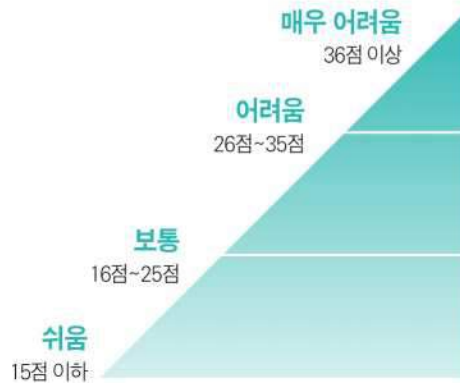
- 허리를 꼿꼿이 세운 자세로 약 4~50분을 걸은 후 10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물론 길의 난이도 및 기상상황에 따라 휴식시간과 보행 시간은 탄력 있게 조절되 휴식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일반적으로 평지에서는 시선은 전방 15~20m를 향하며 내리막길이나 숲, 암반지대 등에서는 발밑에 각별한 주의를 쏟도록 합니다.
- 자신에 맞는 보폭과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빠르게 걷는 타인의 속도에 휩쓸려 필요 이상의 체력을 소진하지 않도록 합니다.



# 전북천리길 일러두기

## 난이도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의 '걷기여행길 이용 난이도 분류 체계 연구' 기준에 따라 쉬움~매우 어려움의 4가지 난이도를 지정하였습니다.



$$\text{거리} + (\text{누적고도}/100) \times 1.5 + (\text{최대경사}/5)$$

한국관광개발연구원 '걷기여행길 이용 난이도 분류체계 연구'

**고도표** 구글 어스를 이용한 정확한 고도 안내로 편의에 따라 이용 가능한 노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위험지점

위험한 벼랑, 흔들리는 돌계단, 도로 이용 여부 등 도보 여행을 하며 자칫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전북 천리길의 구분

## 핵심 노선

핵심노선

한옥마을 둘레길 전주시 제1길

전북 천리길 중 각 시군별 자연경관·접근성·자원(역사·문화·관광)의 연계성이 우수한 대표 1개 노선을 선정하였습니다. 모든 시군을 걸어보며 전북의 다양한 경관을 한 번에 만끽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 드립니다.

## 전북천리길의 컨셉

전북천리길은 총 네가지 테마(산들길, 해안길, 강변길, 호수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풍경마다 저마다의 특색을 자랑하며 다양한 길이와 소요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 일정과 동선에 따라 다양하게 즐겨보세요.



산들길



해안길



강변길



호수길

## 1. 산들길

금강, 섬진강 등 전라북도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강과 다양한 천변은 그 자체로 자연생태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풍경을 빚어내는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시/군 구분	길 명칭	코스 길이	예상소요시간	난이도
전주시	한옥마을 둘레길	8km	2시간 30분	쉬움
전주시	천년 전주 마실길	12km	5시간 30분	보통
전주시	건지산길	9km	4시간	쉬움
군산시	구불6-1길(탁류길)	3km	1시간	쉬움
익산시	미륵산 둘레길	8km	2시간 30분	쉬움
정읍시	정읍사오솔길 1코스	8km	2시간 30분	보통
정읍시	대장금 마실길	5km	2시간	쉬움
남원시	지리산둘레길 1코스 (구룡폭포순환길)	14km	5시간 30분	어려움
남원시	지리산둘레길 2코스	11km	4시간	보통
남원시	교룡산 둘레길	8km	3시간	쉬움
김제시	금구 명품길	11km	4시간	보통
김제시	금산사길	13km	5시간	어려움
완주군	고종시 마실길	11km	4시간	어려움
완주군	운문골 마실길	6km	2시간	쉬움
완주군	완주 편백숲길	6km	2시간 30분	쉬움
진안군	마이산길	8km	3시간 30분	보통
무주군	구천동 어사길	13km	4시간	보통
정수군	방화동 생태길	10km	4시간	보통
정수군	뜯봉샘 생태길	4km	2시간	쉬움
정수군	정수(장안산) 마실길	11km	4시간 30분	보통
순창군	강천산길	7km	2시간 30분	쉬움
순창군	선비의 길	6km	2시간 30분	쉬움
고창군	운곡습지생태길 1코스	5km	1시간 30분	쉬움
고창군	운곡습지생태길 2코스	10km	3시간 30분	보통
고창군	고창읍성길	13km	4시간	보통



## 2. 해안길

해안길은 전라북도가 접한 서해 해안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드넓은 갯벌과 침식작용이 빚어낸 절경, 그리고 장엄한 노을은 잊지 못 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시/군 구분	길 명칭	코스 길이	예상소요시간	난이도
군산시	구불8길(고군산)	10km	3시간 30분	쉬움
김제시	새만금 바람길	12km	4시간	보통
부안군	적벽강 노을길(부안마실길 3코스)	10km	4시간	보통
부안군	해남이 술성길(부안마실길 4코스)	6km	2시간 30분	쉬움
부안군	모항 갯벌 체험길(부안마실길 5코스)	5km	2시간	쉬움
부안군	쌍계재 아홉구비길(부안마실길 6코스)	7km	2시간 30분	쉬움

## 3. 강변길

금강, 섬진강 등 전라북도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강과 다양한 천변은 그 자체로 자연생태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풍경을 빚어내는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시/군 구분	길 명칭	코스 길이	예상소요시간	난이도
익산시	함라산 둘레길	12km	4시간 30분	보통
익산시	웅포 곰개나루길	21km	8시간	어려움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숲길	10km	3시간 30분	보통
무주군	예향천리 금강변마실길 2코스	10km	3시간	쉬움
무주군	예향천리 금강변마실길 1코스	7km	3시간	쉬움
임실군	섬진강길	11km	4시간	보통
순창군	장군목길	9km	3시간 30분	쉬움

## 4. 호수길

옥정호, 내장저수지 등 크고 작은 전국의 호수와 저수지. 이른 아침이면 수면위로 피어오르는 물안개는 신비함을 자아냅니다. 그 사이로 나타나는 오솔길을 걸어보세요.

시/군 구분	길 명칭	코스 길이	예상소요시간	난이도
군산시	구불4길(구슬뒹)	9km	3시간 30분	쉬움
군산시	구불5길(물빛길)	9km	3시간 30분	쉬움
정읍시	정읍사오솔길 2코스	6km	1시간	쉬움
진안군	용담호 감동버들길	12km	4시간	보통
임실군	옥정호 마실길	7km	2시간 30분	쉬움
임실군	옥정호 물안개길	12km	4시간 30분	어려움

※ 각 길은 구간의 상태 및 걷는 이의 지름길 및 우회길의 사용, 체력과 속도 등에 따라 거리 및 예상소요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출발지와 교통편을 반드시 확인하며 예상소요시간보다 넉넉하게 잡아 천천히 즐기며 걷도록 합니다.



시군	길 명칭	시 점		종 점		정보안내	
		구주소	도로명주소	구주소	도로명주소	관광안내소 명칭 및 연락처	시군별 부서 및 연락처
전주시	한옥마을둘레길	전주공예품전시관 전주시 완산구 교동 65-5	전주공예품전시관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15	(시종점 동일)	(시종점 동일)	한옥마을관광안내소 063-284-1126, 282-1330	전주시청 환경위생과 063-281-2331
	천년전주마실길	국립무형유산원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96-1	국립무형유산원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시종점 동일)	(시종점 동일)	한옥마을관광안내소 063-284-1126, 282-1330	전주시청 환경위생과 063-281-2331
	건지산길	연화마을 입구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산 36-24	(새주소 없음)	(시종점 동일)	(시종점 동일)	-	전주시청 푸른도시조성과 063-281-2286
군산시	구불8길(고군산)	선유 1교차로 정류장 군산시 옥도면 선유로 371-17	(새주소 없음)	(시종점 동일)	(시종점 동일)	군산관광안내소 063-453-4986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063-454-3303
	구불4길(구술외)	옥산대상아파트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736	옥산대상아파트 군산시 옥산면 산성로 194	우동2길 정류장 군산시 옥산면 남내리 654	(새주소 없음)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063-454-3303
	구불5길(물빛길)	온파호수공원 관리사무소 군산시 나운동 1223-5	온파호수공원 관리사무소 군산시 은파순환길 9	(시종점 동일)	(시종점 동일)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063-454-3303
	구불6-1길(탁류길)	선양동 해돋이 공원 군산시 선양동 924-2	(새주소 없음)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시 장마동 1-67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시 해망로 240	군산관광안내센터(여미랑) 063-446-5114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063-454-3303
익산시	함라산 둘레길	삼부자집(함라파출소)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35	삼부자집(함라파출소) 익산시 함라면 수동길 4	웅포관광지공개나루터 주차장 전북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727	웅포관광지공개나루터 주차장 전북 익산시 웅포면 강변로 25	웅포관광지공개나루 안내소 063-862-1578	익산시청 녹색환경과 063-859-5438
	미륵산 둘레길	기양 주차장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209-1	(새주소 없음)	구룡마을대나무숲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541-2	(새주소 없음)	없음	익산시청 녹색환경과 063-859-5438
	웅포공개나루길	웅포관광지공개나루터 주차장 전북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727	웅포관광지공개나루터 주차장 전북 익산시 웅포면 강변로 25	내바위성지 주차장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1142-14	(새주소 없음)	웅포관광지공개나루 안내소 063-862-1578	익산시청 녹색환경과 063-859-5438
정읍시	정읍사 오솔길 1코스	정읍사공원 정읍시 시기동 81-7	정읍사공원 정읍시 정읍사로 541	내장산문화광장(토산품판매점) 정읍시 쌍암동 536-4	내장산문화광장(토산품판매점) 정읍시 쌍암동 536-4	정읍종합관광안내센터 063-536-6776	정읍시청 산림복지과 063-539-5757
	정읍사 오솔길 2코스	내장산문화광장(토산품판매점) 정읍시 쌍암동 536-4	내장산문화광장(토산품판매점) 정읍시 월영1길 7	(시종점 동일)	(시종점 동일)	정읍종합관광안내센터 063-536-6776	정읍시청 산림복지과 063-539-5757
	대장금마실길	난국정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1040-3	(새주소 없음)	(시종점 동일)	(시종점 동일)	정읍종합관광안내센터 063-536-6776	정읍시청 산림복지과 063-539-5757
남원시	지리산둘레길 1코스 (구룡폭포순환길)	주천면 둘레길 주차장 남원시 주천면 장안리 259-1	주천면 둘레길 주차장 남원시 주천면 외평2길 3	(시종점 동일)	(시종점 동일)	지리산둘레길 남원센터 063-636-0850	남원시청 환경과 063-620-6232
	지리산둘레길 2코스	운봉읍사무소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347-11	운봉읍사무소 남원시 운봉읍 황산로 1083	인월마을회관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171-1	(새주소 없음)	지리산둘레길 남원센터 063-636-0850	남원시청 환경과 063-620-6232
	교룡산 둘레길	교룡산국민관광단지 주차장 남원시 산곡동 251-21	교룡산국민관광단지 주차장 남원시 산곡동 251-21	(시종점 동일)	(시종점 동일)		남원시청 환경과 063-620-6232
김제시	새만금바람길	진봉면사무소 김제시 진봉면 고사리 40-88	진봉면사무소 김제시 진봉면 진봉1길 15-3	거전마을회관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460-5	거전마을회관 김제시 진봉면 거전길 196	진봉면사무소 063-540-4781	김제시청 환경과 063-540-3331
	금구명품길	금구면행정복지센터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177-16	금구면행정복지센터 김제시 금구면 금구로 44	대학교 김제시 금구면 대회리 146-1	(새주소 없음)	금구면사무소 063-540-4815	김제시청 환경과 063-540-3331
	금산사길	김제시(모악산)관광안내소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135-3	김제시(모악산)관광안내소 김제시 금산면 모악로 455	(시종점 동일)	(시종점 동일)	김제시관광안내소 063-548-1330	김제시청 환경과 063-540-3331
완주군	고종시 마실길	위봉폭포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51-1	(새주소 없음)	학동마을경로회관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86	학동마을경로회관 완주군 동상면 수만길 123-5	-	완주군청 환경과 063-290-2662
	운문골 마실길	경천생태체육공원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 680-3	(새주소 없음)	완주전통문화체험장 완주군 고산면 소항리 162	완주전통문화체험장 완주군 고산면 대아저수로 416	-	완주군청 환경과 063-290-2662
	완주 편백숲길	상관편백숲 공영주차장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631-1	(새주소 없음)	(시종점 동일)	(시종점 동일)	상관편백숲 관광안내소	완주군청 환경과 063-290-2662



시군	길 명칭	시 점		종 점		정보안내	
		구주소	도로명주소	구주소	도로명주소	관광안내소 명칭 및 연락처	시군별 부서 및 연락처
진안군	용담호 감동벼룻길 (진안고원길11-1구간)	용담댐물문화관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 1136-3	용담댐물문화관 진안군 안천면 안용로 747	(시종점 동일)	(시종점 동일)		진안군청 관광과 063-430-2551
	운일암반일암 숲길 (진안고원길 9구간)	노적봉쉼터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85-2	노적봉쉼터 진안군 주천면 동상추천로 1716	주천면사무소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 437-3	주천면사무소 진안군 주천면 동상추천로 2213	임시 관광안내소 (7-8월 운영) 063-430-8749	진안고원길 063-433-5191
	마이산길 (진안고원길 1구간)	진안만남쉼터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223-3	진안만남쉼터 진안군 진안읍 진주로 1054-6	은천마을회관 진안군 진안읍 가림리 1129-5	은천마을회관 진안군 진안읍 은천2길 6		
무주군	예향천리 금강변 마실길 2코스	점두2교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9-2	(새주소 없음)	서면마을 무주군 무주읍 서면강변로 76	(새주소 없음)	무주군관광안내소 063-324-2114 무주군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063-320-2331
	예향천리 금강변 마실길 1코스	도소마을회관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1433-2	도소마을회관 무주군 부남면 유성길 155	울소교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1179-10	(새주소 없음)	만남의광장안내소 063-320-2571	
	구천동어사길	덕유산국립공원삼공주차장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411	덕유산국립공원삼공주차장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1로 167	(시종점 동일)	(시종점 동일)		
장수군	방화동 생태길	장안산국립공원 주차장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784	(새주소 없음)	(시종점 동일)	(시종점 동일)	방화동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063-350-2475 튼봉생태공원 063-353-7002 / 350-2550	장수군청 산림과 063-350-2473 장수군청 환경위생과 063-350-2548,2549
	튼봉생태길	튼봉생태공원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588	튼봉생태공원 장수군 장수읍 물부랭이길 10-18	(시종점 동일)	(시종점 동일)	튼봉생태공원 063-353-7002 / 350-2550	장수군청 환경위생과 063-350-2548, 2549
	장수(장안산) 마실길	연주마을 입구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49	연주마을 입구 장수군 장수읍 덕산로 763-3	의암주 논개 생가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709	장수군 장계면 의암로 558	장계시외공용버스터미널 063-352-1514 논개생가지관리사무소 063-350-2636	장수군청 환경위생과 063-350-2548,2549
임실군	옥정호 마실길	옥정호 주차장 임실군 운암면 입석리 산 32-9	(새주소 없음)	여리동 정류장 임실군 운암면 입석리 847-1	(새주소 없음)		임실군청 환경보호과 063-640-2951
	옥정호 물안개길	둔기 정류장 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374-1	(새주소 없음)	웅운 정류장 운암면 마암리 산 52-2	(새주소 없음)		임실군청 환경보호과 063-640-2951
	섬진강길	물우 경로당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 723-1	물우 경로당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길 40-6	구담마을회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712	구담마을회관 임실군 덕치면 천담2길 287-4		임실군청 문화관광치즈과 063-640-2341 임실군청 환경보호과 063-640-2951
순창군	장군목길	구미교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30-12	(새주소 없음)	(시종점 동일)	(시종점 동일)	-	순창군청 환경수도과 063-650-1722
	강천산길	강천산 국립공원 매표소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981	강천산 국립공원 매표소 순창군 팔덕면 강천산길 97	강천산 국립공원 매표소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981	강천산 국립공원 매표소 순창군 팔덕면 강천산길 97	강천산국립공원매표소 063-650-1672	순창군청 환경수도과 063-650-1722
	산비의 길	훈몽재 순창군 쌍치면 둔전리 45-1	훈몽재 순창군 쌍치면 둔전2길 83	낙덕정 순창군 복흥면 상송리 47-2	(새주소 없음)	훈몽재 063-652-0076	순창군청 환경수도과 063-650-1722
고창군	운곡습지생태길 1코스	운곡습지탐방안내소*차량 진입 불가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668	(새주소 없음)	운곡습지홍보관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180-1	(새주소 없음)	운곡습지 탐방안내소 063-564-7076	고창군청 생태환경과 063-560-2687 / 560-2690
	운곡습지생태길 2코스	운곡습지 친환경주차장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212	(새주소 없음)	(시종점 동일)	(시종점 동일)	운곡습지 탐방안내소 063-564-7076	고창군청 생태환경과 063-560-2687 / 560-2690
	고창읍성길	고창읍성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27	고창읍성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1	고창모양골프연습장 전북 고창군 고창읍 노동리 14-9	고창모양골프연습장 전북 고창군 고창읍 노동로 386	고창읍성 063-560-8067	고창군청 생태환경과 063-560-2687 / 560-2690
부안군	적벽강노을길 (부안마실길 3코스)	성천항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412-5	성천항 부안군 변산면 성천길 7-59	해남이공원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788-25	해남이공원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길 92		부안군청 환경과 063-580-4442
	해남이 숲섬길 (부안마실길 4코스)	해남이공원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788-25	해남이공원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길 92	술섬(전북학생수련원)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313-1	술섬(전북학생수련원) 부안군 변산면 변산로 3318	반월안내소 010-3650-1310	부안군청 환경과 063-580-4442
	모항갯벌체험길 (부안마실길 5코스)	술섬(전북학생수련원)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313-1	술섬(전북학생수련원) 부안군 변산면 변산로 3318	모항갯벌체험장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123	모항갯벌체험장 부안군 변산면 모항길 107		부안군청 환경과 063-580-4442
	쌍계재 아홉구비길 (부안마실길 6코스)	모항갯벌체험장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123	모항갯벌체험장 부안군 변산면 모항길 107	왕포마을 부안군 변산면 운호리 185-3	왕포마을 부안군 진서면 왕포길 30-3		부안군청 환경과 063-580-4442

## 대중교통편



시군	길 명칭	버스터미널&기차역 → 시 점				종 점 → 버스터미널&기차역					
		승차장	노선	하차장	하차 후 이동	승차장	노선	하차장	하차 후 이동		
전주시	한옥마을 둘레길	〈전주역〉 '전주역첫마중길' 정류장	119번	'전동성당· 한옥마을' 정류장	공예품전시관 방향 도보 8분 (540m)	'전동성당·한옥마을' 정류장	79, 5-1번	〈전주역〉 '동부대로전주역' 정류장	〈전주역〉 도착		
		〈전주고속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불교회관' 정류장	79, 5-1번				79, 5-1번	〈전주고속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불교회관' 정류장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도착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	79, 5-1, 1000번				79, 5-1번 1000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	〈전주시외버스터미널〉 도착		
	천년전주 마실길	〈전주역〉 '전주역첫마중길' 정류장	1000번	'남고사입구' 정류장	국립무형유산원 방향 도보 7분(406m)	'좁은목' 정류장	1000번	〈전주역〉 '동부대로전주역' 정류장	〈전주역〉 도착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전주시외버스터미널〉 '국민은행 금암지점' 정류장	725, 752, 429번	'국립무형유산원' 정류장	-	'남고사입구' 정류장	1000번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 〈전주고속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불교회관' 정류장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도착 〈전주시외버스터미널〉 도착		
	건지산길	〈전주역〉 '동부대로 전주역' 정류장(환승) '전주동물원' 정류장	1000번	'전주동물원' 정류장(환승)165	'연화마을' 정류장	연화마을 입구 방향 도보 1분(70m)	'연화마을' 정류장	165번	'전주동물원' 정류장 (환승) 1000번	〈전주역〉 '전주역첫마중길' 정류장	〈전주역〉 도착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전주시외버스터미널〉 '금암1동주민센터' 정류장	165번					165번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전주시외버스터미널〉 '금암1동주민센터' 정류장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까지 도보 12분(796m)	
군산시	구불8길 (고군산)	〈군산역〉'군산역' 정류장	7,83번	'비음항 환승장' 정류장 (환승) 99	'선유1교차로' 정류장	-	'선유1교차로' 정류장	99-1번	'비음1주차장' 정류장(환승) 83, 7번	〈군산역〉 '군산역' 정류장	〈군산역〉 도착
		〈군산고속버스터미널〉 〈군산시외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	7,8번 (경암사거리 방향), 9번 (정미목육탕 방향)						'비음1주차장' 정류장(환승) 7,8,9번	〈군산고속버스터미널〉 〈군산시외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	〈군산고속버스터미널〉 도착 〈군산시외버스터미널〉 도착
	구불4길 (구슬외)	〈군산역〉 '군산역' 정류장	3,4, 1,2,7번	'제일고'정류장 (환승) 88번	'육산대상아파트' 정류장 88번	'육산' 정류장 하차 시, 육산대상아파트 방향으로 도보 이동 7분(459m)	'우동 2길' 정류장	41,42,43번	〈군산역〉 '군산역' 정류장	〈군산역〉 도착	
		〈군산고속버스터미널〉 〈군산시외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	88,41,42,43번 (정미목육탕 방향)	'육산'정류장 41,42,43번					〈군산고속버스터미널〉 〈군산시외버스터미널〉 '팔마광장·터미널' 정류장	〈군산고속버스터미널〉 도착 〈군산시외버스터미널〉 도착	
	구불5길 (물빛길)	〈군산역〉 '군산역' 정류장	11,12,13,15,16번	'은파호수공원' 정류장	은파호수공원 방향 도보 6분(397m)	'은파호수공원' 정류장	11,12,13,15,16번	〈군산역〉 '군산역' 정류장	〈군산역〉 도착		
		〈군산고속버스터미널〉 〈군산시외버스터미널〉 '팔마광장·터미널' 정류장	41,42,43,44, 46,47번				11,12,13,15,16 41,42,46,47번	〈군산고속버스터미널〉 〈군산시외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	〈군산고속버스터미널〉 도착 〈군산시외버스터미널〉 도착		
	구불 6-1길 (탁류길)	〈군산역〉 '군산역' 정류장	3,4,1, 2,7번 3,4,1, 2,7번	'조촌동사거리' 정류장(환승) 52,53, 54번	'창성주공아파트' 정류장	선양동 해돋이공원 방향 도보 6분(317m)	'근대역사박물관' 정류장	17,18,19번	〈군산역〉 '군산역' 정류장	〈군산역〉 도착	
		〈군산고속버스터미널〉 〈군산시외버스터미널〉 '팔마광장·터미널' 정류장	52,53,54번	〈군산고속버스터미널〉 〈군산시외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					〈군산고속버스터미널〉 도착 〈군산시외버스터미널〉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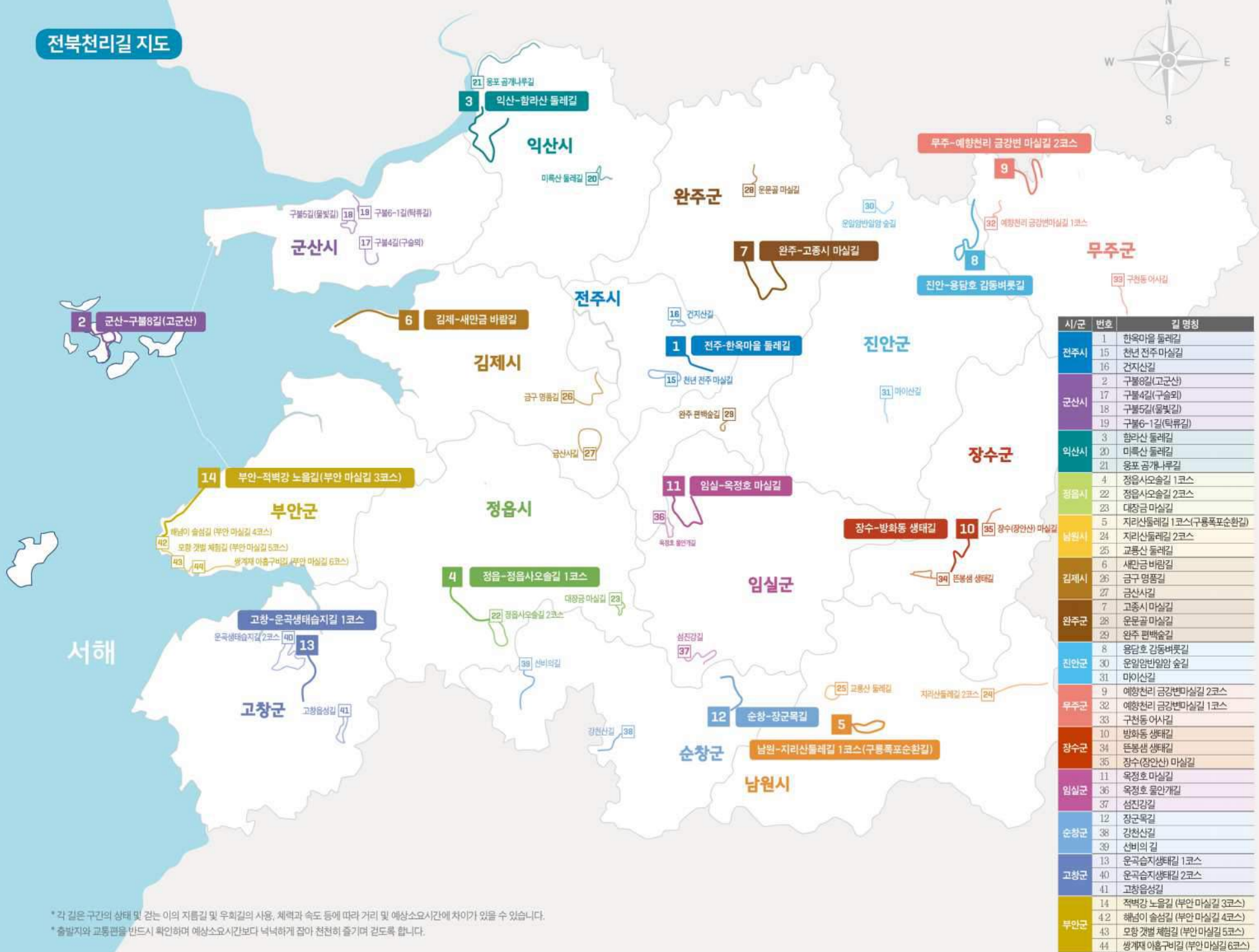
시군	길 명칭	버스터미널&기차역 → 시 점				종 점 → 버스터미널&기차역				
		승차장	노선	하차장	하차 후 이동	승차장	노선	하차장	하차 후 이동	
익산시	함라산 둘레길	《익산역》 ‘대한통운’ 정류장	36, 37, 38번	‘함라파출소’ 정류장	-	‘웅포보건지소’ 정류장	35, 35-1번	《익산역》 ‘중앙시장’ 정류장	익산역까지 도보 4분(261m)	
		《익산공용버스터미널》 《익산고속버스터미널》 ‘평화동’ 정류장						《익산공용버스터미널》 《익산고속버스터미널》 ‘전북제일고’ 정류장	익산역까지 도보 6분(384m)	
	미륵산 둘레길	《익산역》 ‘대한통운’ 정류장	60, 60-1번	‘기양’ 정류장 (엔제리너스 보이는 정류장)	술발가든 쪽으로 도보 1분(70m)	‘구룡’ 정류장	60-2번	《익산역》 ‘중앙시장’ 정류장	익산역까지 도보 4분(261m)	
		《익산공용버스터미널》 《익산고속버스터미널》 ‘평화동’ 정류장						《익산공용버스터미널》 《익산고속버스터미널》 ‘전북제일고’ 정류장	공용버스터미널까지 도보 6분(384m)	
웅포곰개나루길	《익산역》 ‘대한통운’ 정류장	35, 35-1번	‘웅포보건지소’ 정류소	웅포관광지 곰개나루터까지 도보 3분(200m)	‘화북’ 정류장 (나암방향)	좌석 333번	《익산역》 ‘익산역’ 정류장	익산역까지 도보 5분(300m)		
	《익산공용버스터미널》 《익산고속버스터미널》 ‘평화동 정류장’						《익산공용버스터미널》 《익산고속버스터미널》 ‘익산터미널’ 정류장	공용버스터미널까지 도보 2분(84m)		
정읍시	정읍사 오솔길 1코스	《정읍역》 ‘정읍역’ 정류장 《정읍공용버스터미널》 ‘정읍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	277번	‘시기주공’ 정류장	정읍사공원 방향 도보 13분(803m)	‘내장저수지& 수룡목’ 정류장	171번	‘정읍역’ 정류장	《정읍역》 도착	
			277-1번	‘센트럴APT’ 정류장	정읍사공원 방향 도보 10분(627m) 도보 6분			‘종로종합약국’ 정류장	《정읍공용버스터미널》 도착	
	정읍사 오솔길 2코스	《정읍역》 ‘정읍역’ 정류장 《정읍공용버스터미널》 ‘종로종합약국’ 정류장	171번	‘내장저수지’ 정류장	월영교 방향 도보 6분(406m)	‘내장저수지’& 수룡목’ 정류장	171번	‘정읍역’ 정류장	《정읍역》 도착	
				‘수룡목’ 정류장	월영교 방향 도보 2분(150m)			‘종로종합약국’ 정류장	《정읍공용버스터미널》 도착	
대정금마실길	《정읍역》 ‘정읍역’ 정류장 《정읍공용버스터미널》 ‘종로종합약국’ 정류장	151-2번 (09:10, 14:20 1일 2회 운행)	‘향토마을’ 정류장	난국정 쪽으로 도보 2분(156m)	‘향토마을’ 정류장	151-2번	‘정읍터미널’ 정류장	《정읍공용버스터미널》 도착		
남원시	지리산둘레길 1코스 (구룡폭포 순환길)	《남원역》 ‘남원역’ 정류장	101, 102번	‘지리산 둘레길 입구’ 정류장	지리산둘레길 1코스 시점	‘지리산둘레길 입구’ 정류장	3-101, 1-102번 (장안 방향)	《남원역》 ‘남원역’ 정류장	《남원역》 도착	
		《남원공용버스터미널》 ‘시외터미널’ 정류장					3-101, 1-102 2-272번 (장안 방향)	《남원공용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	《남원공용버스터미널》 도착	
		《남원고속버스터미널》 ‘동지사거리’ 정류장	272번		지리산둘레길 1코스 시점	‘지리산둘레길 입구’ 정류장	2-272번 (장안 방향)	《남원고속버스터미널》 ‘도통동주민센터’ 정류장	고속버스터미널 방향 도보 9분(574m)	
	지리산둘레길 2코스	《남원역》 ‘남원역’ 정류장	114,133,134,142번	‘운봉’ 정류장	운봉읍사무소 방향 도보 6분(412m)	도보 5분(311m) ‘파출소사거리 (남원방면)’ 정류장	1-130,1-142, 1-132, 1-133, 5-120, 5-130번 1-141,1-130, 1-132,1-133, 1-142번	《남원역》 ‘남원역’ 정류장	《남원역》도착	
		《남원공용버스터미널》 ‘시외터미널’ 정류장	113,133, 134,141,142번				인월마을회관	도보 이동 5분(350m)	《남원공용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	《남원공용버스터미널》 도착
		《남원고속버스터미널》 ‘도통동주민센터’ 정류장	113,133,134, 141,142번				‘파출소사거리’ (남원방면) 정류장	1-130,1-132, 1-133,1-142, 5-120,5-130 5-132, 5-133번	‘장동정류장’ (환승) 3-113, 3-121번	《남원고속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정류장
	교통산 둘레길	《남원역》 ‘남원역’ 정류장	101,142, 150,162, 163,523번	‘왕정교’ 정류장 (환승)511번	교통산 국민관광단지 방향 도보 6분(370m)	‘산곡’ 정류장	5-511번		《남원역》 ‘남원역’ 정류장	《남원역》 도착
		《남원공용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	3-101, 3-113, 3-121, 3-175, 3-181, 3-320번	‘용성초교’ 정류장 (하차)후 맞은편 ‘용성초등학교’ 정류장(환승) 511번			5-511 번	‘향교동주민센터’ (환승) 3-175, 3-320, 3-321, 3-322, 3-540번	《남원공용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	《남원공용버스터미널》 도착
		《남원고속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정류장	320, 323번	‘지리산권개발 조합’ 정류장 (환승)511번			5- 511번	‘용성초교’ 정류장(하차)후 맞은편 ‘용성초등학교’ 정류장(환승)320,323번	《남원고속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정류장	《남원고속버스터미널》 도착

시군	길 명칭	버스터미널 & 기차역 → 시 점				종 점 → 버스터미널 & 기차역				
		승차장	노선	하차장	하차 후 이동	승차장	노선	하차장	하차 후 이동	
김제시	새만금비람길	〈김제역〉 '김제역1' 정류장	18번, 19번	'관기' 정류장	파출소 앞 다리 방향 도보 2분 (160m)	'거전중점' 정류장	19번	'김제역,한신아파트' 정류장	〈김제역〉 도착	
		〈김제공용버스터미널〉 '버스터미널1' 정류장					18번	'시립도서관' 정류장	'동서12길' 방향 도보 11분(681m) 〈김제공용버스터미널〉도착	
	금구명품길	〈김제공용버스터미널〉 '버스터미널2' 정류장	33번	'금구면사무소' 정류장	-	'금천' 정류장	1번	'김제역,한신아파트' 정류장	〈김제역〉 도착	
		〈김제역〉 '김제역,한신아파트' 정류장	1번	'금구파출소' 정류장	금구교 건너는 방향 도보 3분(221m)			'금성여자중학교앞' 정류장	'경찰서오거리'에서 '터미널사거리' 방향 도보 13분 (807m) 〈김제공용버스터미널〉 도착	
	금산사길	〈김제공용버스터미널〉 '버스터미널2' 정류장	5번, 5-1번	'금산사' 정류장	-	'금산사' 정류장	5번, 5-1번	'김제역1승강장' 정류장	〈김제역〉 도착	
		〈김제역〉 '김제역,한신아파트' 정류장			-			'농협사지부' 정류장	터미널사거리에서 '삼보컴퓨터' 방향 도보 4분 (252m) 〈김제공용버스터미널〉 도착	
완주군	고종시 마실길	〈전주역〉 '동부대로전주역' 정류장	806번	'위봉폭포' 정류장	'위봉폭포 계단' 방향 도보 6분(391m)	'학동마을' 정류장	806번	'동부대로신기마을' 정류장	〈전주역〉 방향 도보 6분 (430m)	
	운문굴 마실길	〈전주역〉 '동부대로전주역' 정류장	535번	'고산터미널' 정류장 300 경천, 운주 행 (환승)	'경천면 사무소' 정류장	운용마을 방향 도보 3분 (231m) '운용'정류장	300번 (고산 방면)	'고산터미널' 정류장 535번 (환승)	'전주역 첫마중길' 정류장	〈전주역〉 도착
		〈고산공용터미널〉 '고산터미널'정류장	300번 (경천, 운주)	-	-			'고산터미널' 정류장	〈고산터미널〉 도착	
	완주 편백숲길	〈전주고속버스터미널〉 '기린대로' 방향 도보 9분 (527m) '기린대로금암광장' 정류장	752번	'원죽림' 정류장	맞은편 '편백숲 가는길' 방향 도보 22분 (1.5km)	'원죽림' 정류장	752번	'금암1동주민센터' 정류장	'덕진문화파출소' 방향 도보 11분(724m)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도착	
진안군	용담호 감동버섯길 (진안고원길 11-1구간)	〈진안시외버스공용정류장〉 '진안터미널'정류장	농어촌버스 진안-송동(정천) 행	'황두굴' 정류장	'용담댐 팔각정 휴게소' 방향 도보 25분(1.7km) '지장'정류장	용담댐조각공원, 안전 방향 도보 16분(1.1km) '지장'정류장	농어촌버스 진안(송동-안천) 행	'진안터미널' 정류장	〈진안시외버스공용정류장〉 도착	
	운일암반일암 숲길(진안고원길 9구간)	〈진안시외버스공용정류장〉 '진안터미널'정류장	농어촌버스 진안-주천 행	'삼거' 정류장	노적교 건너 '노적봉쉼터' 방향 도보 3분(232m)	주천초등학교 앞 '주천터미널' 정류장	농어촌버스 (주천-진안) 행	'진안터미널' 정류장	〈진안시외버스공용정류장〉 도착	
	마이산길 (진안고원길 1구간)	〈진안시외버스공용정류장〉 진안시외버스공용정류장	진안우체국 방향 도보 11분(731m)	-	-	은천삼거리 '은천' 정류장	농어촌버스 (마령-진안) 행	'진안터미널' 정류장	〈진안시외버스공용정류장〉 도착	
무주군	예향천리 금강변마실길 2코스	〈무주공용버스터미널〉 '무주공용버스터미널' 정류장	무진장버스 부남(가당) 행	'굴암삼거리' 정류장 '잠두2교' 하차 의사 표시	'잠두2교' 방향 도보 13분(888m)	'서면' 정류장	무진장버스 무주(서면) 행	'무주공용버스터미널' 정류장	〈무주공용버스터미널〉 도착	
	예향천리 금강변마실길 1코스	〈무주공용버스터미널〉 '무주공용버스터미널' 정류장	무진장버스 부남(가당,굴암리,반소) 행	'도소' 정류장	-	'울소마을회관' 방향 도보 4분(252m) '울소'정류장	무진장버스 부남(반소,굴암리,가당) 행	'무주공용버스터미널' 정류장	〈무주공용버스터미널〉 도착	
	구천동여사길	〈무주공용버스터미널〉 '무주공용버스터미널' 정류장	무진장버스 무주(구천동) 행	'구천동버스' 정류장	-	'구천동버스' 정류장	무진장버스 (미천, 상오정, 설천) 행	'무주공용버스터미널' 정류장	〈무주공용버스터미널〉 도착	
장수군	방화동 생태길	〈장수공용버스터미널〉 '장수터미널' 정류장	농어촌버스 덕산 행 * '용림제 삼거리' 하차 의사 표시	'용림제 삼거리' 하차(비공식 정류장)	'용림제 삼거리' 에서 우측 '용소계곡' 방향 도보 31분(2km)	'용림제 삼거리' *비공식 정류장, 하차 의사 표시	농어촌버스 덕산 행	'장수터미널' 정류장	〈장수공용버스터미널〉 도착	
	든봉샘 생태길	〈장수공용버스터미널〉 '장수터미널' 정류장	농어촌버스 번암 행 농어촌버스 안양(용추동) 행	'수분' 정류장	사거리에서 '든봉샘생태공원' 방향 도보 10분 (654m)	'수분' 정류장	농어촌버스 번암 행	'장수터미널' 정류장	〈장수공용버스터미널〉 도착	
	장수(장안산) 마실길	〈장수공용버스터미널〉 '장수터미널' 정류장	농어촌버스 덕산 행	'연주' 정류장	갈림길 방향 도보 3분 (167m)	'논개생가지 공용주차장' 에서 식당 방향 도보 3분 (171m)'주촌' 정류장	농어촌버스 장계터미널 / 장계 / 장수공용터미널 행	〈장계시외공용버스터미널〉 '장계터미널'정류장 (환승)	'장수 공용터미널' 정류장	〈장수공용 버스터미널〉 도착

시군	길 명칭	버스터미널&기차역 → 시 점				종 점 → 버스터미널&기차역			
		승차장	노선	하차장	하차 후 이동	승차장	노선	하차장	하차 후 이동
임실군	옥정호 마실길	〈강진공용버스터미널〉	농어촌버스 하운암(막은댁, 상운암)행	‘입석’ 정류장	‘국사봉전망대’ 방향 도보 20분 (1.5km)	‘어리동’ 정류장	농어촌버스 하운암(막은댁, 상운암)행	〈강진공용버스터미널〉 도착	-
	옥정호 물안개길	〈강진공용버스터미널〉 〈전주 ‘송천동중점’ 정류장〉	농어촌버스 하운암(막은댁, 상운암)행 974번 (하운암)행	‘둔기’ 정류장 ‘막은댁’ 정류장	- ‘둔기’ 정류장 방향 도보 15분(1.0km)	‘용운 입구’ 정류장 ‘용운 입구’ 정류장	농어촌버스 하운암(막은댁, 상운암)행 농어촌버스 하운암(막은댁, 상운암)행	〈강진공용버스터미널〉 도착 ‘막은댁’ 정류장에서 974번 버스(환승)	- 〈전주 ‘송천동중점’ 정류장〉 도착
	섬진강길	〈강진공용버스터미널〉	농어촌버스 (순창)행	‘물우’ 정류장 *같은 이름의 정류장이 400m 간격으로 2개 있음	‘물우마을’ 방향 도보 10분 (5~900m)	‘구담마을’ 정류장	농어촌버스 (강진)행	〈강진공용버스터미널〉 도착	-
순창군	장군목길	〈순창공용버스터미널〉	농어촌버스 순창(지북, 구미, 동계)행	‘강경’ 정류장		‘강경’ 승강장	농어촌버스 -순창(지북, 구미, 동계, 구미, 지북)행 -순창(구미,지북)	〈순창공용버스터미널〉 도착	-
	강천산길	〈순창터미널〉 입구 나와서 우측 ‘순창군보건의료원 승강장’ 정류장	농어촌버스 -구립(구립, 정읍, 북흥, 쌍치)행 -정읍(팔덕, 강천사, 담동, 북흥, 내장사) 행 -북흥(팔덕, 강천사, 담동, 북흥, 어은)행 -쌍치(팔덕, 강천사, 담동) 행	‘강천산’ 정류장	‘강천산구립공원’ 방향 도보 15분 (900m)	‘강천산’ 정류장	농어촌버스 -순창(화양, 지양, 구곡, 팔덕)행 -순창(내장사, 북흥, 담동, 강천사, 팔덕)행	‘순창군보건의료원승강장’ 정류장	맞은편 〈순창터미널〉 도착
	선비의 길	〈정읍공용버스터미널〉	농어촌버스 -쌍치(방산, 정읍)행 -쌍치(방산, 운암, 용전, 오봉, 내동)행 * 시내, 시외버스 동시 운행	‘중안’ 정류장	‘중안교’ 건너 남쪽 방향 도보 15분 (1km)	‘상송교’ 방향 도보 3분 (150m) ‘상송’ 정류장	농어촌버스 -정읍(팔덕, 강천사, 담동, 북흥, 내장사) 행 -북흥(담동, 사창리, 내장사, 정읍) 행	〈정읍공용버스터미널〉 도착	-
고창군	운곡습지생태길 1코스	고창공용버스터미널	농어촌버스 고창(각동) 행	‘도산’ 정류장	‘고창생물권보전 지역관리센터’ → ‘고창고인돌 박물관’ 방향 도보 30분(2km)	‘도산’ 정류장 맞은편 ‘기능대학’ 정류장	농어촌버스 (고창) 행	〈고창 공용버스터미널〉 도착	-
	고창공용버스터미널	고창공용버스터미널	농어촌버스 죽림(박물관) 행	‘고창고인돌 박물관’ 정류장	‘고창고인돌유적지’ 방향 도보 15분 (940m)	‘고창고인돌박물관’ 정류장	농어촌버스 고창(죽림) 행	〈고창 공용버스터미널〉 도착	-
	운곡습지생태길 2코스	고창공용버스터미널	농어촌버스 고창(심원) 행	‘원평’ (부정방면) 정류장	맞은편 굴다리 ‘인천가든’ 방향 도보 30분(2.3km)	‘원평’ (독곡방면) 정류장	농어촌버스 (고창) 행		
	고창읍성길	고창공용버스터미널	-	-	‘고창읍성’ 방향 도보 15분(1km)	삼거리에서 좌측으로 ‘동산’ 정류장 도보 3분(187m)	농어촌버스 -고창(노동) 행 -고창(월산) 행	〈고창 공용버스터미널〉 도착	-
부안군	적벽강노을길 (부안마실길 3코스)	〈부안종합버스터미널〉 입구 나와서 우측 ‘부안버스터미널’ 정류장	좌석버스 100번 농어촌 버스 201, 211번	‘상천마을’ 정류장	맞은편 ‘고사포 해변’ 방향 도보 10분(500m)	‘격포항여객터미널’ 방향 도보 5분(400m)	‘격포터미널’ 정류장 좌석버스 100번	‘부안터미널’ 정류장	맞은편 도보 3분(200m) 〈부안종합버스터미널〉 도착
	해넘이 숲섬길 (부안마실길 4코스)	〈부안종합버스터미널〉 입구 나와서 우측 ‘부안버스터미널’ 정류장	좌석버스 100번 농어촌 버스 201, 211번	‘격포터미널’ 정류장	‘해넘이 공원’ 방면 도보 5분 (400m)	‘변산경찰수련원’ 방향 ‘상록’ 정류장 도보 20분(1.3km)	농어촌버스 201, 211번	‘부안터미널’ 정류장	맞은편 도보 3분(200m) 〈부안종합버스터미널〉 도착
	모항 갯벌 체험길 (부안마실길 5코스)	〈부안종합버스터미널〉 입구 나와서 우측 ‘부안버스터미널’ 정류장	농어촌버스 201, 211번	‘상록’ 정류장	‘S-오일 주유소’ 방향 도보 20분 (1.3km)	‘모항마을’ 방향 ‘모항’ 정류장 도보 10분(700m)	농어촌버스 201, 211번	‘부안터미널’ 정류장	맞은편 도보 3분(200m) 〈부안종합버스터미널〉 도착
	쌍계재 아홉구비길 (부안마실길 6코스)	〈부안종합버스터미널〉 입구 나와서 우측 ‘부안버스터미널’ 정류장	농어촌버스 201, 211번	‘모항’ 정류장	‘미동’ 방향 도보 10분 (700m)	‘왕포마을 입구 삼거리’ 방향 도보 5분(320m) ‘왕포’ 정류장	농어촌버스 201, 330, 350번	‘부안터미널’ 정류장	맞은편 도보 3분(200m) 〈부안종합버스터미널〉 도착



# 전북천리길 지도



시/군	번호	길 명칭
전주시	1	한옥마을 둘레길
	15	천년 전주 마실길
	16	간지산길
군산시	2	구불8길(고군산)
	17	구불4길(구술외)
	18	구불5길(물빛길)
	19	구불6-1길(탁류길)
익산시	3	함라산 둘레길
	20	미륵산 둘레길
	21	웅포 공개나무길
정읍시	4	정읍사오솔길 1코스
	22	정읍사오솔길 2코스
	23	대장금 마실길
남원시	5	지리산둘레길 1코스(구룡폭포순환길)
	24	지리산둘레길 2코스
	25	교룡산 둘레길
김제시	6	새만금 바람길
	26	금구 명품길
	27	금산사길
완주군	7	고종시 마실길
	28	운문골 마실길
	29	완주 편백숲길
진안군	8	진안-용담호 감동버킷길
	30	운일암반일암 숲길
	31	마이산길
장수군	9	무주-예향천리 금강변 마실길 2코스
	32	예향천리 금강변마실길 1코스
	33	구현동 아사길
임실군	10	장수-방화동 생태길
	34	탄봉샘 생태길
	35	장수(장안산) 마실길
순창군	11	임실-옥정호 마실길
	36	옥정호 물안개길
	37	섬진강길
남원시	12	순창-장군목길
	38	강천산길
	39	산비의 길
고창군	13	고창-운곡생태습지길 1코스
	40	운곡습지생태길 2코스
	41	고창읍성길
부안군	14	부안-적벽강 노을길(부안 마실길 3코스)
	42	해남이 숲섬길 (부안 마실길 4코스)
	43	모항 갯벌 체험길 (부안 마실길 5코스)
	44	생계재 아홉구비길 (부안 마실길 6코스)

\* 각 길은 구간 상태 및 걷는 이의 지름길 및 우회길의 사용, 체력과 속도 등에 따라 거리 및 예상소요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출발지와 교통편을 반드시 확인하여 예상소요시간보다 넉넉하게 잡아 천천히 즐기며 걷도록 합니다.





# 전주시

- 1 한옥마을 둘레길
- 15 천년 전주 마실길
- 16 건지산길

호남제일성(湖南第一城),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풍패지향(豐沛之鄉 - 왕조의 발상지를 뜻함), 안전한 고을, 한국의 꽃심... 이 웅대한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를 표현하는 수식어는 이렇게나 많다. 역사적으로도 전주시는 전라도를 이르는 두 대표 고을 중 한 곳이었으며 조선왕실가인 전주이(李)씨의 본향이기도 하다.

서기 757년 신라 경덕왕 16년부터 그 이름이 역사에 기록된 전주(全州)는 신라시대 9주 5소경으로 각 도를 분할 했을 때에도 전라북도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의 지명으로 그 이름을 이어갔으며 후백제의 수도이자 전라도의 중심 도시로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그 찬란한 문화와 역사적 가치를 이어왔다. 땅이 비옥하

고 험한 산세가 없는 곳, 사람들의 성품이 유순하고 예의와 인정이 넘치는 곳. 그래서 수많은 대한민국의 시/군/의 명칭 속에서도 이 '완전한 고을(온고을)', 전주시의 명칭은 빛난다. 물론 전주가 역사적 기록만을 가진 도시는 아니다. 세계적 영화축제인 전주국제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의 산실이자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인 전주한옥마을, 전동성당, 전주객사 등 유명한 관광자원을 가진 곳이다. 전국의 이름난 맛집들이 숨어있는 한식의 본향이자 가맥과 막걸리 한 상 등 풍류를 아는 이들이 흥취에 젖기 좋은 즐거운 도시이기도 하다. 전주 천과 모악산, 건지산, 완산칠봉 등 다양한 숲과 자연 생태가 빛어낸 환경도 빼 놓을 수 없다. 그래서 일년 365일, 대한민국의 관광 일

번지인 전주시로 사람들이 몰려든다.

전북천리길의 전주시 구간은 이토록 아름답고 즐거운 도시 전주시를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코스로 구성 되었다. 한옥마을둘레길을 통해 전주시가 자랑하는 전통과 젊음의 만남을 엿볼 수 있다면 천년전주마실길은 전주시의 현재를 그대로 조망할 수 있다. 건지산 길에서는 전주시의 수려한 자연생태와 왕조의 시작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 조경단을 만날 수 있다.

전북천리길의 시작, 그 '호남제일문(湖南第一門)'을 통과하는 기점으로 전주시에 첫 발을 내딛어 보자.



# 한옥마을 둘레길

전주시 제1길

차분히 둘러보는  
문화와 역사



컨셉  
산들길



길이  
8Km



시간  
2시간 30분



난이도  
쉬움

시종점 공예품전시관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15)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시작하는 한옥마을 둘레길은 한옥마을의 문화와 역사를 차분히 느끼고 싶은 사람들에게 걸맞은 길이다. 고즈넉한 전주천을 따라 걷다 보면 숨겨진 유산을 만나는 재미가 참 쏠쏠하다.

변화한 한옥마을 중심에서 벗어나선 300m 정도 좁고 단아한 골목을 천천히 걷는다. 곧 가람 이병기의 집필실 양사재가 보인다. “학인을 기르는 것[養士]이 나라의 원기(元氣)”라 쓰여 있듯 양사재는 선비들의 공부 공간이었다. 근처의 ‘전주향교’는 과거 관학 교육의 장으로써 최근에 판소리 공연 등 시민에게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장소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후 전주천을 따라 놓인 탁 트인 천변길이 시작된다. 전주 시민의 수질 개선 노력을 통한 맑은 물이 흐르며, 운이 좋다면 천연기념물 수달도 만나볼 수 있다. 천변길을 따라 한벽교 아래를 통과하면 느티나무 뿌리가 돌을 감싸고 선 바위 절벽 위에 한벽당이 자리하고 있다. 옆을 돌아보면 일제강점기 전라선 철도를 놓을 때 뚫은 터널인 한벽굴이 있다. 이 철도길은 현재 바람 쐬는 길이 되어 한옥마을 둘레길 또한 이 길을 통해 전주천 상류를 향해 나아간다.

길을 따라 700m를 올라가면 치명자산성지와 승암사 등이 나온다. 치명은 순교의 다른 말로, 본래 성지가 있는 산 이름도 승암산에서 치명자산으로 바꿨다고 전해진다. 옛 사람들의 신앙심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천변길을 따라 각시바위를 지난다. 곧 여정의 반환점을 알리는 색장마을 입구를 만날 수 있다.







다시 천변길로 내려와 자연생태박물관을 지나게 되는데, 전주천의 생태적 가치와 본래의 자연을 회복한 이곳 전주천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동·식물들을 알아볼 수 있다.  
이후 도로를 따라 자만벽화마을을 만날 수 있는데, 아기자기한 가게와 재미있는 벽화가 가득한 곳이다. 다리를 건너 여정의 끝에 다다라 오목대 언덕에 올라선다. 고려시대 이성계가 왜구를 크게 물리치고 승리를 만끽한 오목대는 한옥마을 돌레길에서 고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전주의 전경을 한눈에 가득 담을 수 있는 장소인 만큼 사진 등 여정의 마무리 축하를 하고 나무 계단을 내려오면 마지막 장소인 공예품전시관에 닿는다.

#### 고도표



#### 정보 안내

**위험구간** 없음  
**관광안내소** 한옥마을관광안내소  
(063-284-1126, 063-282-1330)  
**문의처** 전주시청 환경위생과(063-281-2331)  
**주차장 유무** 시종점 주차장 유

#### 추천 한마디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는 5월이나 전주비빔밥 축제 등이 열리는 가을에 맞춰 방문해도 좋다.



# 천년 전주 마실길

전주시 제2길

사부작사부작 만나는  
천년의 고도



컨셉  
산들길



길이  
12Km



시간  
5시간 30분



난이도  
보통

시종점 국립무형유산원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주요 경로

국립무형유산원

좁은목약수터

남고산

만경대

국립무형유산원

다가공원

용머리고개

완산공원

초록바위

천년 전주 마실길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출발하여 총 5시간을 걷는 길로, 반나절 동안 백제부터 조선시대, 현재에 이르기까지 천년 고도 전주를 오롯이 느낄 수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좁은목약수터를 향해 걷는다. 꽤 높은 능선의 남고산을 오르기 위해 이곳에서 목을 축이며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솟아오른 바위로 자연의 산성을 연상케 하는 산길을 따라 만경대를 딛고 서면 멀리 내다보이는 전주의 경치가 벽찬 숨을 틔워준다.







출발지인 무형유산원을 다시 지나 곧지산 끝자락에 있는 초록바위를 만난다. 바위벽과 강바람이 만나 이끼를 피워 만들어진 초록바위는 천주교와 동학농민군의 역사가 깃든 전주 미래유산의 장소다. 계속되는 길은 완산칠봉으로 이어져 봄꽃으로 유명한 완산공원을 마주하게 된다. 이어서 동학농민군과 관군의 싸움터이기도 했던 용머리고개를 지나 조선시대의 활터였던 다가공원과 만나게 된다. 종점인 국립무형유산원을 향해 걸으며 백제부터 조선시대를 거슬러 현재에 닿은 전주의 역사를 되짚어 본다.



## 정보 안내

**위험구간** 만경대~삼경사 사이 남고산성  
돌계단이 흔들리고 숲길 안전바가  
고정 안됨.

**관광안내소** 한옥마을관광안내소  
(063-284-1126, 063-282-1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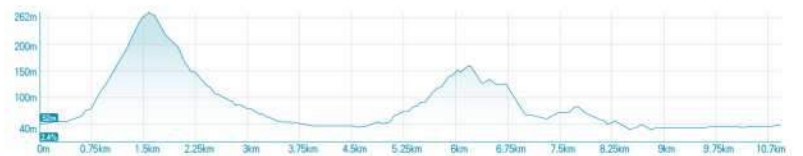
**문의처** 전주시청 환경위생과(063-281-2331)

**주차장 유무** 시종점 주차장 有

## 추천 한마디

사계절 화려한 풍경과 녹음으로 유명한 완산공원을 즐겨보자. 1코스 한옥마을둘레길을 이어 걸어도 좋다.

## 고도표







## 건지산길

전주시 제3길

생생히 마주하는  
전주의 자연과 문화



컨셉 산들길

길이 9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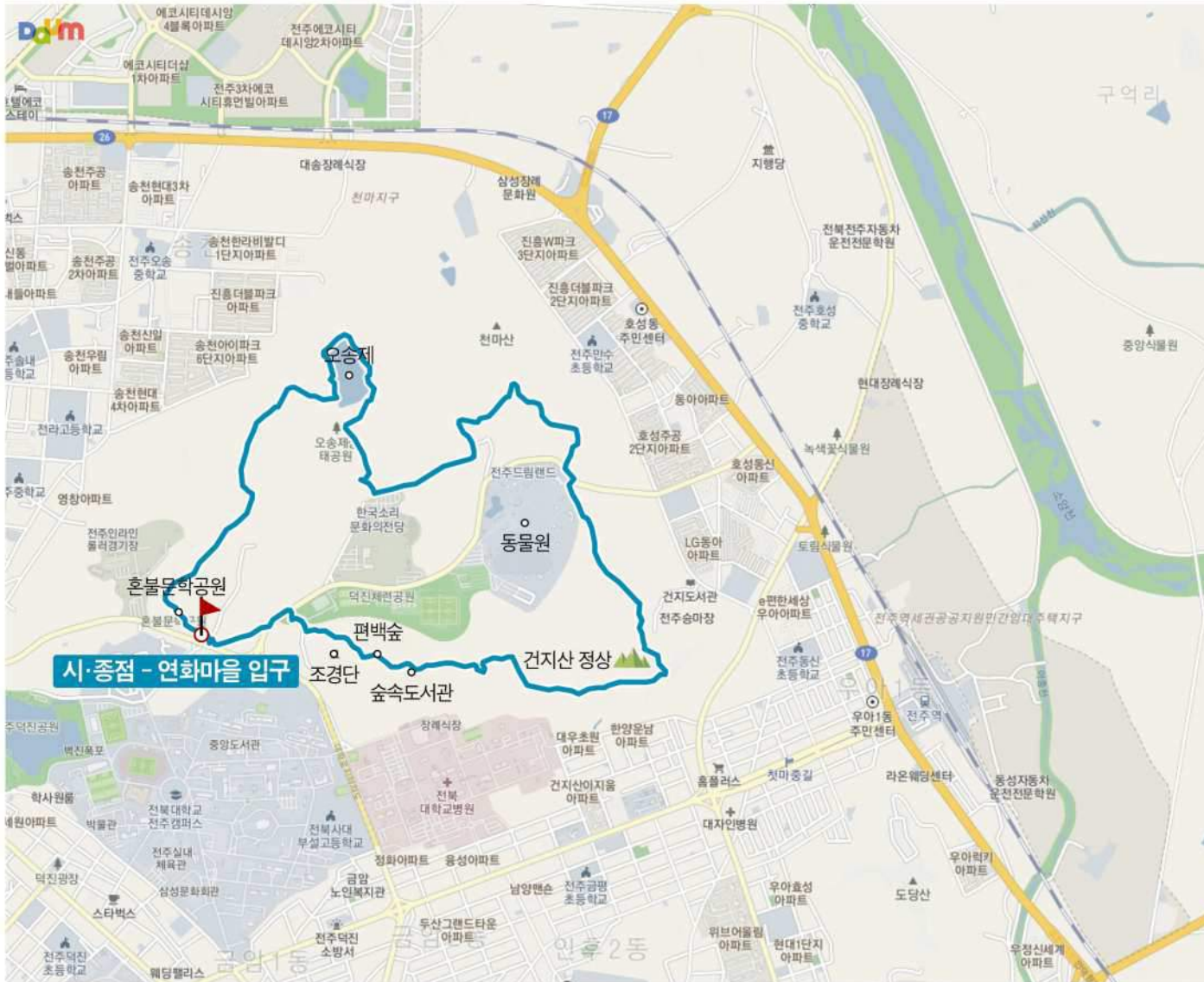
시간 4시간

난이도 쉬움

시종점 연화마을 입구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산 36-24 : 구주소)

주요 경로 연화마을 입구 혼불문학공원 오송제 편백숲 동물원뒷길  
연화마을 입구 조경단 숲속도서관 건지산 정상





생생한 자연과 함께 전주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건지산길은 연화마을 입구에서 여정을 시작한다. 혼불문학공원을 지나 울창한 숲길은 길의 본격적 시작을 알리는 듯하다. 걸음으로 만나는 오송제에서는 국내 10여 곳에만 있다는 희귀 식물 낙지다리와 전주 물꼬리풀을 품어 안고 생태 환경이 잘 보전된 시민의 휴식처가 되었다. 이어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으로 단단해진 길 중간에는 편백숲이 있어 은은한 편백나무 향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어서 동물원뒷길을 따라 느슨한 오르막을 걸으면 건지산 정상이 나온다. 전주의 주산(主山)으로 시민들이 귀하게 아끼는 산이다. 정상에서 전주 시내를 보고 내려오는 길에는 그 위치부터 매력 있는 숲속도서관이 있다. 숲 한가운데서 책을 읽는 경험은 독특한 추억이 된다.

500m쯤 지나면 기쁜 경사가 시작된 곳이라는 뜻의 조경단이 보이게 된다. 조경단에는 태조의 22대 조의 묘와 제단이 있다. 덕분에 전통건축의 은은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사냥과 벌목이 금지되어 지금과 같은 울창한 숲과 희귀 동·식물을 얻게 되었다.

다시 연화마을로 돌아와 가까운 곳에 다양한 문화시설들을 연계해 둘러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를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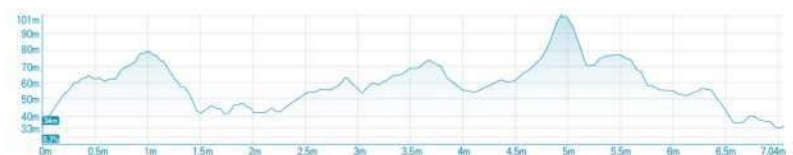
## 추천 한마디

낮은 산이지만 조선헌가의 시초이자 생태의 보고로 유명한 산이다. 동물원과 전북대학교 대학교 등을 연계하여 둘러보아도 좋다.

## 정보 안내

**위험구간** 동물원 뒷길 도로횡단시 차량주의  
**문의처** 전주시청 푸른도시조성과 (063-281-2286)  
**주차장 유무** 시종점 주차장 有

## 고도표







# 군산시

- 2 구불8길(고군산)
- 17 구불4길(구슬외)
- 18 구불5길(물빛길)
- 19 구불6-1길(탁류길)

이 평화롭던 지역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큰 항만을 가진 해양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이 땅의 아픔이 그대로 담겨졌던 역사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일제강점기 김제, 정읍 등 풍요로운 전북의 곡창지대의 쌀을 수탈하기위해 조성, 발전된 군산항만은 그 특성 때문에 물류의 전진기지이자 국제문화의 유입경로, 근대화의 물결 한 가운데 놓인 역사의 현장으로 독특한 모습을 띄게 된다. 지금도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 각종 영화와 드라마의 무대인 적산가옥 히로쓰 가옥 등의 문화재가 남아있으며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근대유산들이 보존되어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군산의 과거를 말해주고 있다. 역사로만 평가되기에는 군

산이 가진 보물은 너무나 많다. 전국 최고의 빵집으로 꼽히는 제과점과 쇠고기국밥, 콩나물국밥, 화교들로부터 내려온 유서깊은 중화요릿집 등 전국의 미식가들이 탐내는 군산의 맛기행도 유명하다. 은파호수공원 등 다양한 공원과 함께 새만금 방조제를 통해 최근 육로로 이어진 진주같은 고군산군도를 만나볼 수 있다. 금강 하구를 따라 거니는 풍경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줄 것이다. 전북천리길의 군산시 구간은 아름다운 군산시가 가진 다양한 풍경을 만나볼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구불8길에서는 신선과 선녀가 놀고 갔다는 전설이 있는 고군산군도를 둘러볼 수 있다. 구불4길과 5길은 군산의 대표적인 호수와 유원지를 중심으로 그 속의 생태와 평화

로운 풍경에 젖어볼 수 있다. 구도심을 걷는 구불6-1길에서는 소설 '탁류'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전라북도를 이야기하면서 군산을 빼 놓을 수 없다. 많은 이들이 그 곳에서 과거와 현대의 공존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는다. 군산을 걸어보자. 그 곳을 거니는 발걸음 하나마다 걷는 이만의 또 다른 이야기가 기록될 것이다.

# 구불8길(고군산)

군산시 제1길

신선이 노니는 섬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



컨셉  
해안길



길이  
10Km



시간  
3시간 30분



난이도  
쉬움

시종점 선유1교차로 정류장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371-17 : 구주소)

주요 경로 선유1교차로 정류장 선유도 선착장 선유도해수욕장 망주봉

선유1교차로 정류장 선유도해수욕장 솔섬 몽돌해수욕장 선유3구마을

신선이 노니는 섬이라는 명칭의 선유도, 2017년 고군산군도의 섬들을 잇는 다리가 완성되며 보다 가까이 선유도를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다리의 끝 지점인 선유1교차로 정류장에서 여정은 시작된다. 선유도 선착장을 지나 멋을 한가득 안고 있는 선유도해수욕장을 지나게 되는데, 잠시 신발을 벗고 서해에서 가장 맑은 바닷물과 발가락 사이를 간절이는 백사장의 모래를 만나면 선유도의 꿈같은 풍경에 한껏 취하게 된다.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 발을 겨우 옮겨 선유도 북섬 초입의 망주봉 앞을 지난다. 망주봉에는 선유도에 유배 온 선비가 매일 이곳에서 임금에게 예를 올렸다는 전설과 함께 오통묘라는 당집이 자리하고 있다. 이 곳에서 풍어와 무사 항해를 함께 기원했을 것이다.

망주봉을 끼고 돌면 선유3구마율이 나온다. 물이 귀한 바닷가 마을인데 곳곳에 우물이 있는 것이 특이하다. 마을을 지나 대봉전망대 대신 왼쪽의 시원한 대나무가 반기는 해안길을 따라 걷는다. 이 곳이 몽돌해수욕장으로 가는 길이다.

몽돌해수욕장은 선유도 북섬의 끄트머리, 잘록하게 들어간 만의 얇은 고개 너머에 있다. 해변에는 모래 대신 약 100m 정도의 길이로 반질반질한 검은 자갈들이 햇볕에 빛나 몽돌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1.7km를 되돌아와 만나는 솔섬은 서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을 가지고 있다. 사시사철 소나무 사이로 지는 해를 오롯이 바라보면 세상 근심이 사라지는 듯하다.

다시 눈앞에 활처럼 흰 백사장이 길게 뻗어 있다. 더 멀리에는 작은 돌섬 두 개가 나무다리로 연결되어 있어 건너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옆으로는 장자도와 대장도가 빼어난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 고도표



철썩이며 밀려드는 파도와 바닷바람은 가슴이 탁 트이게 시원하고 바다 위에는 어업을 하는 배들이 드물게 떠 있다. 유유자적한 유람선들이 드나드는 선유도선착장을 지나 신선이 노닐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경치를 뒤로하고 다시 시점이자 종점인 선유1교차로 정류장에 닿게 된다.

## 정보 안내

위험구간 없음

관광안내소 군산관광안내소  
(063-453-4986)

문의처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063-454-3303)

주차장 유무 시종점 주차장 有

## 추천 한마디

주말이면 고군산군도를 찾는 차량들로 도로가 매우 붐빈다. 평일 시간을 내어 호젓하게 걸으며 섬을 온전히 가질 수 있다.





## 구불4길(구슬뒀) 군산시 제2길

호수와 산,  
그것만으로도 멋진



컨셉  
호수길



길이  
9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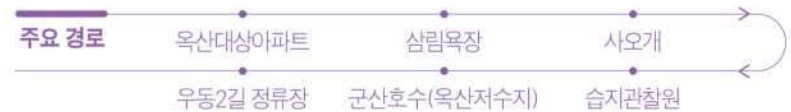
시간  
3시간 30분



난이도  
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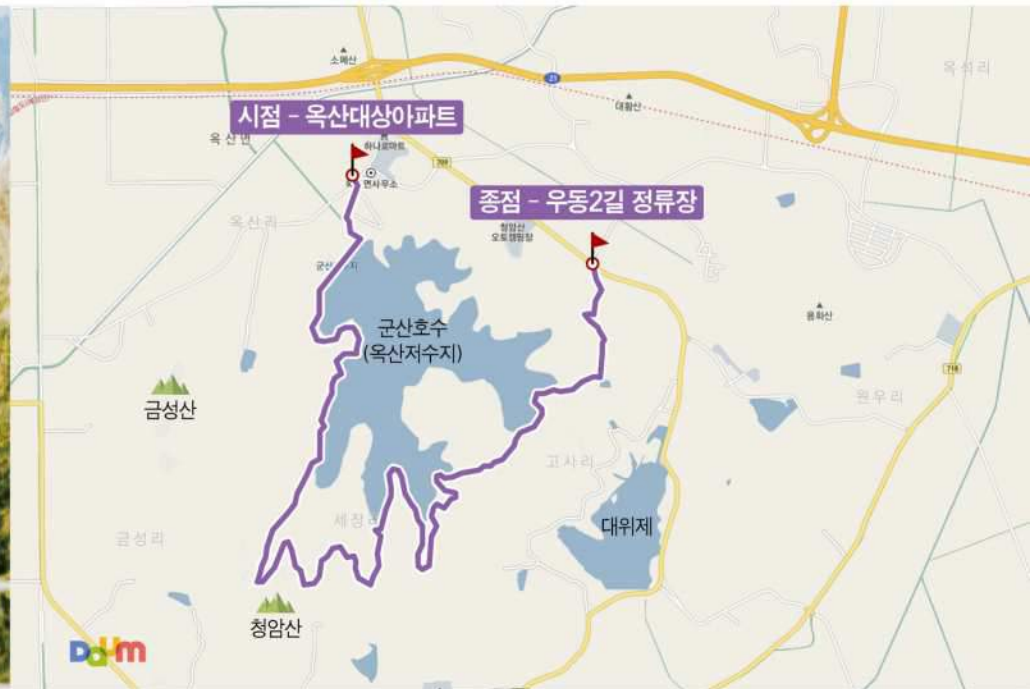
**시종점** 시점 옥산대상이파트 (군산시 옥산면 신성로 194)

종점 우동2길 정류장 (군산시 옥산면 남내리 654 : 구주소)



옥산대상이파트에서 출발해서 옥산저수지를 한 바퀴 도는 길로 시작부터 멋진 녹지 사이로 들어간다. 대나무와 왕버드나무 군락 등 저수지 둘을 올라 주변으로 만나는 자연은 걸으면서 생기는 피로를 말끔히 씻어준다.





청암산으로 오르는 길에는 아기자기한 버드나무, 대나무 숲을 지나고, 길을 따라 정상에 가까운 지점에 도착하면 어느새 숲속 오거리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이때 왼쪽의 청암산 정상으로 가는 대신 군대군데서 있는 숲대들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 사오개에 닿는다. 사오개는 시장에 가기 위해 넘어 다니던 작은 고개였다. 주변 마을 사람들은 수많은 대나무를 베어다 죽방 어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팔곤 하였는데, 덕분에 대나무를 산처럼 싣고 사오개를 넘어 다니는 수레가 줄을 이었다고 전해진다.

다시 저수지를 따라 걷기를 이어간다. 생태 학습이 가능한 잘 조성된 습지관찰원을 지나 얇고 좁은 고개를 넘어가면 종점인 마을의 우동2길 정류장이 보인다. 호수와 산, 그것만으로도 이미 이 길의 멋은 완벽하다. 다만, 군산호수(옥산저수지)는 군산저수지로도 불리고 있으니 안내판을 보고 길을 때 참고하면 좋다.

#### 고도표



#### 정보 안내

위험구간 없음

문의처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063-454-3303)

주차장 유무 출발지 주차장 有

#### 추천 한마디

봄과 여름, 가을 등 꽃이 피고 싹이 우거질 때 걷기 좋다. 청암산을 오르지 않고 호수 주변을 따라 돌아도 그만이다.



# 구불5길(물빛길) 군산시 제3길

산책하듯이 가볍게 걸어도  
충분히 좋을



컨셉  
호수길



길이  
9Km



시간  
3시간 30분



난이도  
쉬움

시종점 은파호수공원 관리사무소 (군산시 은파순환길 9)

주요 경로

은파호수공원 관리사무소

물빛광장

독방

습지공원

은파호수공원 관리사무소

키누훈련원

구불5길은 은파호수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출발, 공원을 한 바퀴 돌아 다시 돌아오는 길로, 오르는 길이 없어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하듯이 걸을 수 있고 근처 식당과 카페들이 많아 도심의 편안한 산책 공원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으로는 호수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광장의 물빛다리가 있다. 밤에는 조명이 아름답고, 낮에는 구조 자체가 참 아름답다. 물빛다리 양쪽 끝에는 각각 공연장과 소공원이 있어 함께 즐기면 좋다. 또한 이 길을 한가롭게 걸으며 만날 수 있는 생태 자연 또한 빼어나다. 곳곳하고 씩씩한 해송 숲과 함께, 연꽃 밭과 거대한 팽나무와 설화를 간직한 세 바위 옆에 앉아 낭만 넘치는 시간을 가져보자.

약 9km의 물빛길은 완주에 목적을 두지 않고 걸어도 좋다. 더위나 추위를 피해, 혹은 다리를 잠시 쉬기 위해 마시는 커피 한 잔에도 물빛길은 녹아있다. 늘어진 빛나무 군락 길은 봄의 여신이 머물다 간 듯하다. 때를 잘 맞추어 봄의 물빛길을 만나다면 더 없는 행운이 될 것이다.

## 정보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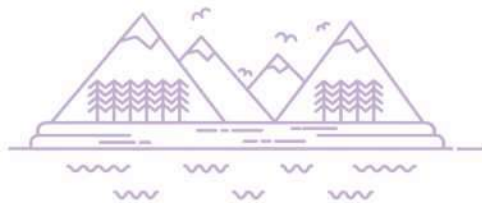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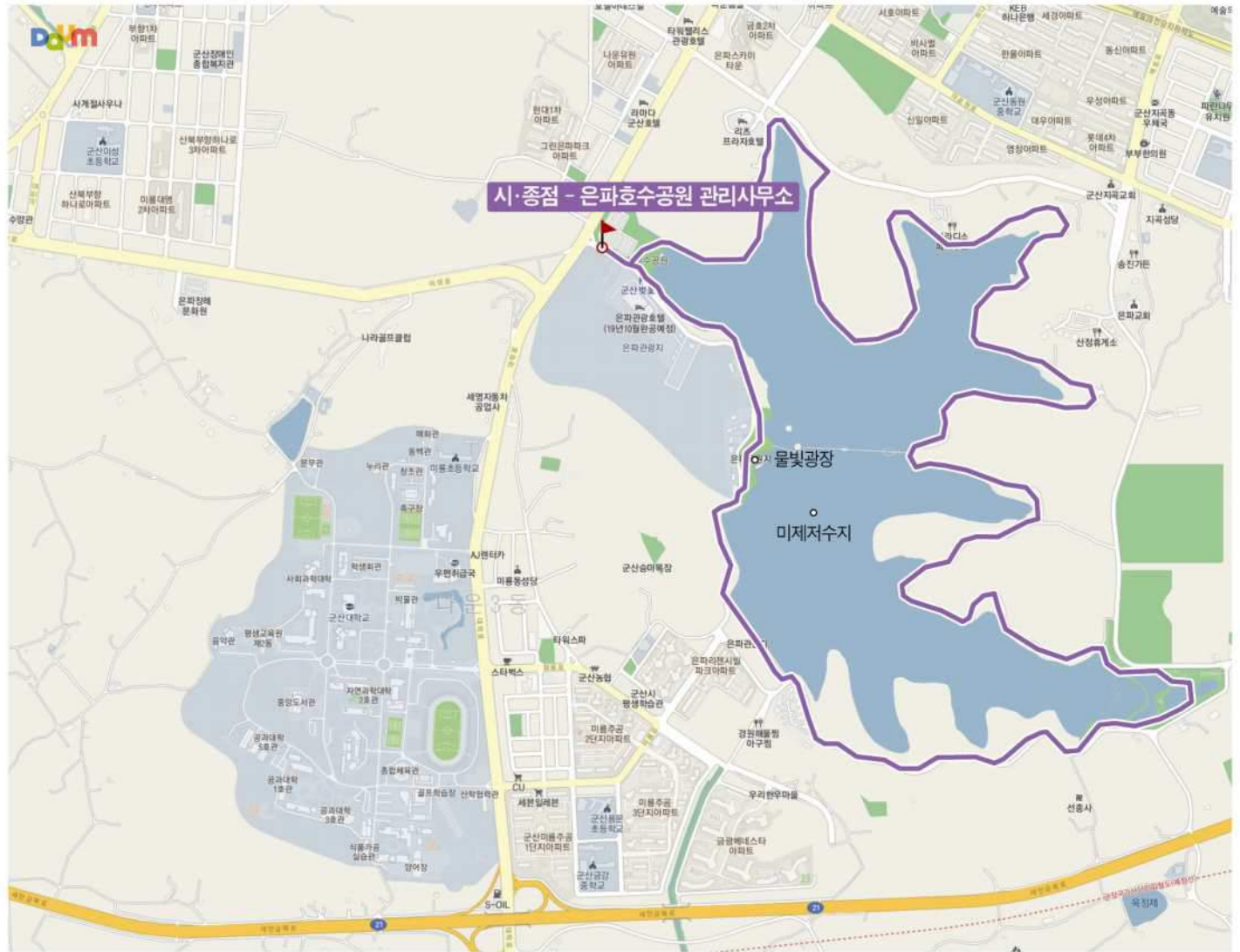
위험구간 없음

문의처 군산시청 관광진흥과(063-454-3303)

주차장 유무 시종점 주차장 有

## 추천 한마디

벚꽃이 피는 봄과 여름에 걸어보자.  
더운 날에는 선선한 저녁에 걸기에도 좋다.



## 고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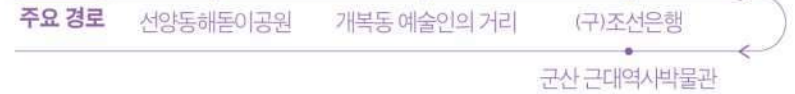


# 구불6-1길(탁류길) 군산시 제3길

길이 보여주는 조선의 역사

**시종점** 시점 선양동해돋이공원 (군산시 선양동 924-2 : 구주소)

**종점**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군산시 해망로 240)



 <b>컨셉</b> 산들길	 <b>길이</b> 3Km
 <b>시간</b> 1시간	 <b>난이도</b> 쉬움

선양동해돋이공원에서 출발하는 탁류길을 더욱 의미 있게 걸을 수 있는 방법은 채만식의 장편소설 <탁류>의 줄거리를 아는 것이다. <탁류>를 옆구리에 끼고 느슨한 내리막길을 걸어 군산항의 군산 근대역사박물관까지 걷는 짧은 길에 군산의 근·현대사가 상세히 담겨있다.

선양동해돋이공원 전망대에 올라서면 오른쪽으로 금강하굿둑이, 아래에는 개북동 비탈길이 보인다. 개북동 비탈길은 콩나물고개라고도 불렸다. 콩나물시루를 가득 채운 콩나물처럼 나라를 잃은 조선인들의 작은 집들이 언덕에 가득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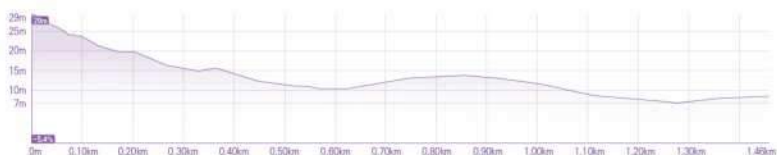




길 따라 내려와 개복동 예술인의 거리로 들어선다. 군산의 옛 자취를 따라 걷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일제강점기 때의 국도복합영화관 건물이 남아 있고, (구) 조선은행과 옛 세관 등 수탈의 시대를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이 건물들은 식민지 경영에 필요한 권위와 당당함을 과시하려는 의도였으리라. 건물 안 그 아픔을 빼곡히 남겨놓은 안내도와 함께, 해방로와 진포해양박물관 사이는 근대산업유산·예술창작 벨트로 지정하여 보전되고 있다.

길의 종점인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는 군산이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모두 있으니 꼭 방문해보자. 전시관과 함께 다양한 체험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서 짧은 여정을 끝낸 후 방문하여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에 좋다.

## 고도표



## 정보 안내

위험구간 없음  
 관광안내소 군산관광안내센터(여미랑)  
 (063-446-5114)  
 문의처 군산시청 관광진흥과(063-454-3303)  
 주차장 유무 시종점 주차장 有

## 추천 한마디

코스 길이가 짧은 편이니 여정에 여유가 있다면 히로쓰가옥, 동국사 등을 돌아보아도 좋다. 모두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다.





# 익산시

- 3 함라산 둘레길
- 20 미륵산 둘레길
- 21 웅포 곰개나루길

화려한 백제문화의 중심지였던 익산시는 순 우리말로 '숨리'라고 불렸다. 너른 만경평야에서 바라보면 구름이 저, 마치 그 속으로 들어간 듯 보이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이후 일제강점기 당시 만경, 김제평야의 쌀을 수탈하기 위해 호남선을 부설하면서 교통의 요지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익산의 역사는 지금의 발전보다 더욱 찬란한 가치를 지녔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미 마한시대부터 유력한 맹주국인 건마국(乾馬國)이 위치해 주변에 영향을 끼쳤으며 백제시대에서는 최고의 번영을 누렸음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포함되면서 증명되었다.

드넓은 호남평야가 인상적인 익산은 어디를 가더라도 그 너른 들을 닮은 듯 넉넉한 인심을 자랑한다. 그래서일까 부자와 그들의 인정에 대한 이야기가 함라면에서 전해지고 있다. 전북천리길 익산시 구간은 넉넉한 익산의 풍경과 인심, 과거의 영화를 다 담아볼 수 있는 길이다.

함라산 둘레길에서는 세 부자의 전설을 따라 함라재를 넘어 호남의 또 다른 젓줄인 금강변을 만난다.

미륵산둘레길에서는 미륵사지를 둘러보며 옛 번영의 자락을 느끼며 유구한 역사의 숨결을 체감할 수 있다. 웅포곰개나루길은 금강변이 풍경 속에서 푸근한 마을들을 지나치며 천주교 유적지를 찾는 순례길의 여정과도 같다.

마음의 평안을 주는 길, 산과 강, 들이 어우러진 소박한 풍경 속에서 걸을 수 있는 길을 원한다면 지금 익산시로 떠나보자.



핵심노선

# 함라산 둘레길

익산시 제1길

삼부잣집 전설이  
만드는 추억



컨셉  
강변길



길이  
12Km



시간  
4시간 30분



난이도  
보통

**시종점** 시점 삼부잣집(함라파출소) (익산시 함라면 수동길 4)

종점 웅포관광지공개나루터 주차장 (전북 익산시 웅포면 강변로 25)

**주요 경로**

삼부잣집(함라파출소)

함라재

야생차나무 군락지

웅포관광지공개나루터 주차장

입점리 고분전시관

갯점마을

비옥한 평야를 자랑하는 익산에서 유난히 우뚝 솟아 보이는 함라산을 뚫는 함라산 둘레길은 삼부잣집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을에 들어서면 삼부잣집의 위풍당당한 솟을대문과 전설들이 저마다의 내력을 안고 사람들을 반긴다.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되어 웅포로 가다가 잠시 마을에 쉬게 된 사람이 누룩 장사를 해 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부자가 되었다는 전설, 스님을 도와주고 명당이라고 찍어 준 자리에 집을 지어 부자가 되었다는 전설 등 삼부잣집에는 재밌는 설화들이 깃들여있다.

삼부잣집을 지나 함라재에 들어선다. 대나무들을 통과해 흘러온 물이 작은 폭포와 웅덩이가 만들어지는 모습은 탄성을 부르고, 처음 만나는 갈림길의 아기자기한 돌담은 안전을 빌었을 사람들의 바람이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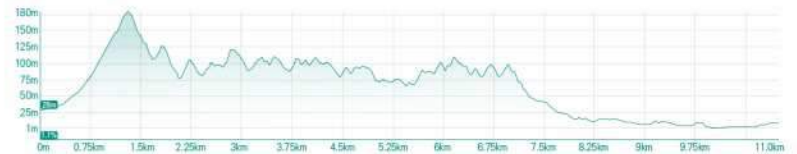
야생차나무군락지의 표지판을 따라 땀을 살짝 흘리고 나면 정상에 다다르고, 이제 출렁다리 밑을 지나 내려가는 길로 접어든다. 사람들이 잠시 쉬며 금강을 보거나 말 그대로 용변을 해결했다는 똥바위를 보고 웃으며 뒤로 하면 꽤 가파른 길이 시작된다. 발밑을 조심해서 돌길을 걸으면 다시 편안한 평지가 나오니 안심하자.

이후 자연에서 스스로 크는 야생차나무 군락지를 접할 수 있는데, 차나무의 북방한계점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 마치 잎을 뒤는 듯 은은한 공기를 마시며 함라산을 내려온다. 곧 갯점마을을 지나 입점리 고분전시관에 닿는다. 근처에서 발굴된 금동관과, 금동신발과 백제시대의 석묘 양식을 보며 한때 찬란했던 백제 문명의 위엄을 느낄 수 있다.

오래전 지어진 다리와 찾길을 지나서 농로를 통과한다. 드디어 반짝이는 금강이 두 눈에 가득 담긴다. 금강의 하류는 바다와 같이 넓다. 금강을 끼고 있는 길을 따라 걸으면서 이 여정의 마지막, 서울의 마포까지 쌀을 실어 보냈다는 웅포관광지공개나루터의 과거를 생각해 본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황포돛배도 구경하고 유람선도 타며 금강의 드넓은 품에 잠시 안겨보자. 또한 때를 잘 맞춘다면 금강의 하류로 내려앉는 환상적인 노을도 감상할 수 있으니 금강의 또 다른 이름인 비단강의 유래를 절로 알 수 있을 것이다.



#### 고도표



#### 정보 안내

- 위험구간** 함라재 전 경사 무너져 공사중,  
임도 전 돌계단 철목재~갯점마을  
차량 많은 도로 이용, 금강 전  
논두렁 보수 요구됨.
- 관광안내소** 웅포관광지공개나루 안내소  
(063-862-1578)
- 문의처** 익산시청 녹색환경과(063-859-5438)
- 주차장 유무** 시종점 주차장 有

#### 추천 한마디

함라산 시작점의 함라한옥마을은 새로운  
체험, 휴양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꼭 둘러보길 바란다.





# 미륵산 둘레길 악산시 제2길

세계문화유산을  
만나는



컨셉  
산들길



길이  
8Km



시간  
2시간 30분



난이도  
쉬움

**시종점** 시점 기양정류소 (악산시 금마면 기양리 209-1 : 구주소)

**종점** 구룡마을 대나무숲 (악산시 금마면 신용리 541-2 : 구주소)

주요 경로

기양정류소

미륵사지

구룡마을 대나무숲



익산에서 가장 높은 산인 미륵산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미륵사지를 품고 있으면서 동시에 완만하고 편안한 산책길로 시민들의 인기가 많다. 시점인 원기산 방면의 기양정류소에서 출발해 숲길로 이어지는 왼쪽의 산으로 들어선다. 널찍하게 잘 만들어진 길을 따라 등산을 시작할 수 있다.

깊은 자주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미륵사지를 가리키는 방향만 쫓아 걷는다. 2km 정도를 걸으면 오른쪽으로 열린 숲의 빈 공간을 통해 아름다운 금강도 구경할 수 있다. 그렇게 익산의 풍요로운 들과 멀리서 불어오는 강바람을 만끽하며 걷다 보면 곧 미륵사지를 만나게 된다.

백제 무왕이 638년에 창건한 미륵사는 신라의 황룡사, 고구려의 정릉사와 함께 삼국시대의 3대 사찰로 불린다. 복원된 석탑 및 전시관과 함께 탑의 발굴, 해체 및 복원까지의 과정을 함께 살펴 볼 수 있다. 찬란하고 웅장했던 사찰의 규모와 가치를 하나하나 새겨서 보고 나면 밖에 나가서 다시 만나는 석탑이 새롭게 느껴진다.

미륵사지의 장엄함을 눈에 담고 전복과학교 뒷길을 지나 구룡마을에 이른다. 영화와 드라마 촬영 장소로 유명한 대나무 숲이 있는 마을이다. 뛰어난 경관과 함께 십여 년 전에 복원한 왕대나무의 북방한계점으로 생태학적으로도 매우 귀중한 곳이라고 한다. 대나무 숲을 따라 한 바퀴 걸으며 초록빛 마음을 새긴 뒤 일정을 마무리한다.

## 정보 안내

**위험구간** 화산서원 짧은 내리막 급경사

**문의처** 익산시청 녹색환경과  
(063-859-5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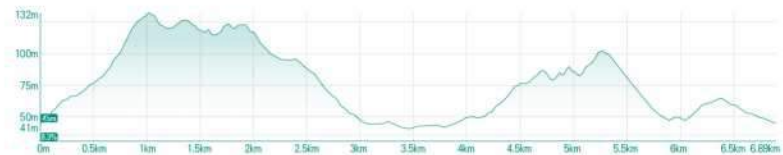
**주차장 유무** 출발지 주차장 유

## 추천 한마디

짧은 코스이므로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미륵산 정상을 다녀와도 좋다.



## 고도표







## 웅포 곰개나루길

익산시  
제3길

금강을 따라 흐르는  
다양한 이야기



컨셉  
강변길



길이  
21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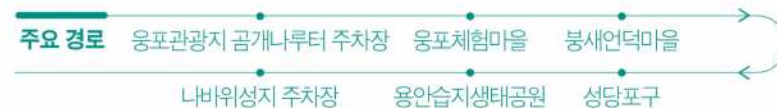


시간  
8시간



난이도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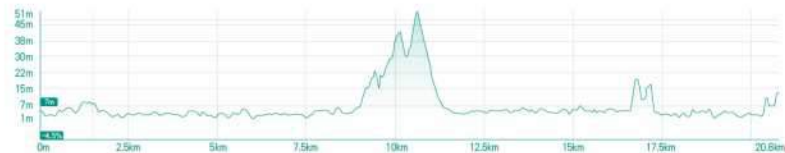
**시종점** **시점** 웅포관광지 곰개나루터 주차장 (전북 익산시 웅포면 강변로 25)  
**종점** 나바위성지 주차장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1142-14 : 구주소)







## 고도표



## 정보 안내

위험구간 없음

관광안내소 용포관광지공개나루 안내소  
(063-862-1578)

문의처 익산시청 녹색환경과(063-859-5438)

주차장 유무 시종점 주차장 有

## 추천 한마디

출발지점의 용포관광지공개나루터를 활용,  
함리산 둘레길과 이어 1박 2일 트레킹 코스로  
잡아도 좋다.

용포 공개나루길은 용포관광지 공개나루터에서 금강의 상류로 향한다. 덕양정과 느티나무의 배웅을 받으며 일정을 시작한다. 처음의 9km는 차분하다 못해 멈춘 것처럼 보이는 금강 하류의 넓은 수면과 끝도 없이 이어지는 억새를 따라 모든 번뇌를 내려놓고 친구 삼아 걷는다.

금강 자전거길을 따라 걷다 만나는 용포체험마을은 모든 경관이 모여 있어 산들강용포마을이라고도 부른다. 경관에 다양한 체험까지 불거리, 즐길 거리가 많다. 곁에는 봉새언덕체험마을도 있다. 봉새언덕마을에는 중국의 상상의 물고기 곤이 변해서 된 새, 봉새를 닮은 바위가 있다는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진다.

이어서 성당포구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후기까지 세곡을 관리하던 성당창이 있었다. 유명한 황포돛배가 그때의 세곡을 싣고 서울 마포까지 다녔으리라. 나무다리를 건너 용안습지생태공원에 다다른다. 형형색색의 바람개비소리가 천리길 여행자의 발걸음을 재촉한다. 이어 금강과 가까이 걷다 독으로 올라 잘 정비된 농로를 빠져나가면 종점인 나바위성지에 도착하게 된다. 김대건 신부가 1845년 폐례를 주고, 다블뤼 신부와 함께 한국에서 처음으로 천주교를 알린 성지이다. 나바위성지에서 한국 전통 건축 양식과 서양 건축 양식이 아름답게 어우러짐을 둘러보며 긴 일정에 지친 몸도 마음도 충분히 보상될 것이다.







# 정읍시

- ④ 정읍사오솔길 1코스
- ② 정읍사오솔길 2코스
- ③ 대장금 마실길

정읍사의 무대이자 내장산국립공원을 감싸 안은 정읍시는 서기 757년, 신라 경덕왕 16년에 정촌현을 정읍현으로 개칭한 기록이 남아있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도시이다.

남동쪽으로는 노령산맥 줄기로 산세가 수려한 내장산국립공원과 입암산이 연결되어 있고 북서쪽으로는 광활한 동진평야가 펼쳐져 있다.

정읍시를 이야기하며 빼놓을 수 없는 내장산은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명산이자 전국 최고의 단풍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산이기도 하다. 또한 내장사를 비롯한 다양한 고찰들이 있어 연중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다. 또한 정읍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과서를 통해 모든 이들이 한 번쯤은 읽어봤을 정

읍사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백제가요이자 조선시대 악학궤범에 수록된, 한글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노래이기도 하다.

장사를 하러 떠난 남편이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내가 산에 올라 달을 보며 무사하기를 기원하며 불렀다는 이 노래는 결국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아내는 망부석 이 되었다는 슬픈 전설도 가지고 있다.

전북천리길 정읍시 구간은 이처럼 정읍시가 자랑하는 다양한 풍경과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는 길이다.

정읍사오솔길 1코스에서는 정읍사 공원을 출발하여 산길을 따라 정읍사의 남편이 장을 보러 걸었을 길을 밟아본다. 이어지는 2코스에서는 내장저수지의 주변을 돌며 수변에 비치

는 내장산의 산세에 취해본다. 대장금마실길에서는 옥정호의 물길 따라 마을을 지나며 대장금의 고향이었다고 전해지는 장금산 자락의 고즈넉함에 젖는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호젓함과 어우러지는 길, 무작정 홀로 걷고 싶을 때 정읍시의 코스들을 떠올려보자. 하나같이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되는 길이다.



# 정읍사오솔길 1코스

정읍시 제1길

사랑의 과정을 온몸으로 느끼는

**컨셉** 산들길 **길이** 8Km **시간** 2시간 30분 **난이도** 보통

백제 가요이자 한글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노래인 정읍사를 테마로 하는 정읍사공원에서 여정을 시작한다. 백제의 숨결을 따라 공원을 한 바퀴 돌러본 뒤, 정읍사문화거리를 향해 나아간다. 약간의 오르막길을 걸어 전북과학대학교 생활관 건너편으로 가면 정읍사오솔길 1코스의 숲길을 알리는 입구가 보인다.

**시종점** 시점 정읍사공원 (정읍시 정읍사로 541)  
종점 내장산 문화광장(토산품판매점)  
(정읍시 월영1길 7)



**주요 경로** 정읍사공원 → 전북과학대학교 → 천년고개 → 두꺼비바위  
→ 내장산 문화광장(토산품판매점) → 월영마을 → 월영습지탐방안내소

정읍사오솔길 1코스는 총 일곱 구간으로 나뉜다. 각각 만남, 환희, 고쳐, 언약, 실천, 탄탄대로, 지킴 등의 테마를 가지고 사랑의 과정을 다양한 길 속에 녹여내고 있다. 먼저 만남, 환희의 길을 지나 천년고개를 넘으면 폐 숲이 차게 되는데 드디어 고쳐의 길에 접어든 것이다.





고단함도 잠시, 심심치 않게 있는 전망대에서 전라북도의 넓은 평야지대와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의 경치를 감상하며 한 숨 거를 수 있다.

이어진 언락의 길은 두꺼비바위가 지키고 있다. 굉장히 큰 바위라 나무꾼들이 자주 쉬었다고 하니 산을 찾는 이의 쉬덕 역할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것이다. 사랑과 우정의 증표로 매단 자물쇠들이 눈길을 끈다. 이렇게 오르막길과 평지와 내리막길을 번갈아 걷다 보면 행복하지만 괴롭기도 한 사랑의 과정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실천의 길을 지나 산 정상 근처에서 월영습지를 만난다. 지하수로 농사를 짓던 논이 오랜 세월이 지나 자연스럽게 습지로 변한 곳이다. 길 옆으로 작은 물이 흐르고 산비탈의 원시림이 감탄스럽다. 월영습지가 궁금하다면 월영습지탐방안내소에서 습지의 가치와 복원에 대한 설명을 해설사로부터 들을 수 있다. 탐방안내소 앞 월영 갈림길에서 월영마을로의 여정을 계속한다.

월영마을은 말 그대로 달맞이마을이다. 정읍사의 "달아 높이곰 돌아샤 머리곰 비쳐오시라"던 망부의 마음이 담긴 곳이다. 풍요로움과 고색창연한 마을이 인상적이다. 월영교 다리를 건너 내장산 문화광장에서 여정을 마무리한다. 내장산의 독특한 산세가 한 눈에 들어온다.



## ❓ 정보 안내

**워킹구간** 월영습지탐방안내소에서  
월영마을 사이가 급경사에  
물이 많은 미끄러운 진창길

**관광안내소** 정읍종합관광안내센터  
(063-536-6776)

**문의처** 정읍시청 산림복지과(063-539-5757)

**주차장 유무** 시종점 주차장 有

## ☁ 추천 한마디

언제라도 걷기 좋지만 진달래꽃 만연한 봄이나  
단풍으로 유명한 늦가을에 걷는다면 그 아름다  
움이 더할 것이다.

## 📈 고도표





# 정읍사오솔길 2코스

정읍시 제2길

물에 비친 내장산을  
감상할 수 있는



컨셉  
호수길



길이  
6Km



시간  
1시간



난이도  
쉬움

시종점 내장산 문화광장(토산품판매점) (정읍시 월영1길 7)

주요 경로

내장산 문화광장(토산품판매점)

내장산 조각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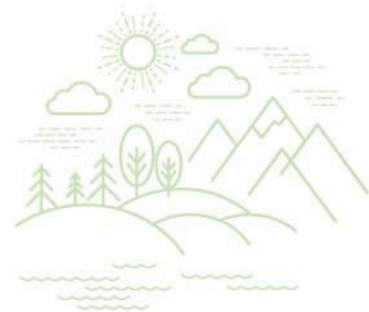
내장산 문화광장(토산품판매점)

서래탐방지원센터



내장산 문화광장에서 시작하는 2코스는 내장저수지 옆 테크를 따라 편안하게 걸으며 물에 비친 내장산의 풍경을 오롯하게 감상하는 길이다. 월영교를 지나 계속해서 테크를 따라 걸으면 성불암을 만날 수 있는데 시간이 여유롭다면 둘러봐도 좋다.

쭉 돌아 내장산수목원에 가까이 다가가면 정읍의 상징물들이 눈에 많이 띈다. 구절초 모양의 램프가 마당 가득 꽃을 피우고 있다. 바로 옆 내장산 조각공원은 드넓은 대지를 자랑하는데, 다채로운 주제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조각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앞쪽에 있는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탑 앞에서 그안의 담긴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보며 걸어 본다.







조각공원에서 걸어 나와 내장산생태공원 맞은편 서래탐방지원센터에서부터 길은 산기슭으로 이어진다. 내장저수지를 보며 걷는 숲길은 정읍사오솔길 2코스의 절경을 맞이하는 장소다. 가을은 물론 여름의 신록, 봄의 산수유, 눈 쌓인 겨울도 내장산은 사시사철 탄성을 자아내는 경치를 가지고 있다.

야생화동산을 지나 내장산 문화광장으로 되돌아온다. 이 작은 둘레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담았는지 새삼 놀란다. 그렇게 내장산은 이 길을 감싸고 아름다움을 한껏 뽐낸다.

### 정보 안내

**위험구간** 없음  
**관광안내소** 정읍종합관광안내센터  
 (063-536-6776)  
**문의처** 정읍시청 산림복지과(063-539-5757)  
**주차장 유무** 시종점 주차장 有

### 추천 한마디

코스가 짧은 편이므로 정읍사오솔길 1코스 구간과 이어 걸어보는 것도 좋다.

### 고도표





# 대장금 마실길

정읍시 제3길

수수하고  
부드러운 기품의



컨셉  
산들길



길이  
5Km



시간  
2시간



난이도  
쉬움

시종점 난국정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1040-3 : 구주소)

주요 경로

난국정

황토마을

중곡

바람굴

정금산

난국정

대부분이 평지로 구성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대장금 마실길은 호수와 산을 도는 멋진 길로 자동차도 많이 다니지 않아 고즈넉한 기분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풍류 가득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난국정에서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주변 풍경이 아름다워 이에 감동한 사람들이 돈을 모아 1928년에 세웠다고 한다.







황토마을은 수몰되기 전까지는 황학마을로 불렸다가 최근 대장금 마실길을 설계하며 다시 이름을 찾게 되었다. 구절초가 만개하는 시기에 마을에 오면 환상적인 풍경을 마주할 수 있다. 돌이 많은 산길을 지나 장금터널까지 오솔길을 걷는다. 터널에서 소나무 숲길로 이어지며 중곡을 향하게 되는데 이 고갯마루에서 보이는 옥정호와 임실군의 전경은 부드러운 기품을 자아낸다. 지척에 보이는 바람골을 지나 장금산으로 향한다.

북쪽 길을 따라 종점인 난국정에 돌아와 여정을 마무리한다. 그 앞으로 다리를 이용해 건너 갈 수 있는 성황당은 호남에 있는 육지 섬 중 제일 크다고 하니 한번 답사해보는 것은 어떨까?

#### 고도표



#### 정보 안내

**위험구간** 황토교 ~ 신흥리재 사이 예초작업,  
로프지시대 다수가 이탈  
**관광안내소** 정읍종합관광안내센터  
(063-536-6776)  
**문의처** 정읍시청 산림복지과(063-539-5757)  
**주차장 유무** 무(無)

#### 추천 한마디

호수와 산을 도는 멋진 길로 그 무엇보다도 고즈넉함이 일품인 코스로 할 수 있다.







# 남원시

- 5 지리산둘레길 1코스
- 24 지리산둘레길 2코스
- 25 교룡산 둘레길

대한민국 산들의 어머니라 불리는 지리산 밑에 위치한 남원시는 예로부터 산이 좋고 물이 좋은 곳, 전통이 그대로 보존되어온 곳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몽룡과 성춘향의 이야기인 '춘향전'의 주무대로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는 곳이기도 하다.

지리산 기슭에 있는 달궁리(덕동리)의 옛 성터가 마한의 왕이 전란을 피해 와서 쌓은 달궁터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조선시대의 사료에도 그 이야기가 실려있는 것을 보면 남원시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운봉고원 동쪽의 월산리에서 가야의 유물(갑옷, 철제술, 금제 귀걸이, 중국제 청자)이 발견된 것을 보아 굉장히 강대한 세력이 이곳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학계에서는 '운봉

가야'라 부르기도 한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수많은 외침 속에서 크고 작은 전투 속, 많은 의병장을 배출한 지역으로 지금도 남원시가 가지는 의기(義氣)를 보여주고 있다.

백두대간의 마지막 자락에 위치한 남원시와 지리산은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로 대한민국의 유명 걷기 트레일인 '지리산둘레길'도 이 남원에서부터 그 첫걸음을 시작한다.

전북천리길의 남원시 구간은 이 명산 지리산과 또 다른 남원시의 자랑인 교룡산의 돌레를 걷는 길로 이루어져 있다.

지리산둘레길 1구간은 주천면을 출발해 운봉까지 그 첫정을 시작하는 길이다. 전북천리길 구간은 이 기존코스를 변경, 지리산의 비경 중

하나인 구룡폭포와 구룡계곡을 감상할 수 있게 하였다. 지리산둘레길2구간에서는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마을의 풍경을 거닐 수 있으며 교룡산둘레길에서는 임진왜란과 동학농민혁명 등 역사의 큰 사건을 온몸으로 받아내었던 교룡산을 만날 수 있다.

숲속 가득한 청정한 기운과 맑은 물 따라 걷고 싶을 때, 내 몸과 마음속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활력을 불어넣고 싶을 때 전북천리길 남원시 코스를 만나보자. 무엇보다 뿌듯한 성취감 속에서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지리산둘레길 1코스 (구룡폭포순환길)

남원시 제1길



아홉 개로 굽이치는 폭포를 만나는



컨셉  
산들길



길이  
14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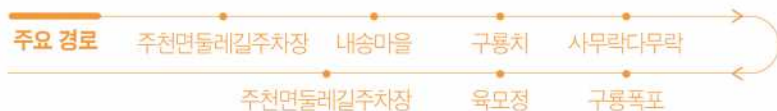


시간  
5시간 30분



난이도  
어려움

시종점 주천면둘레길주차장 (남원시 주천면 외평2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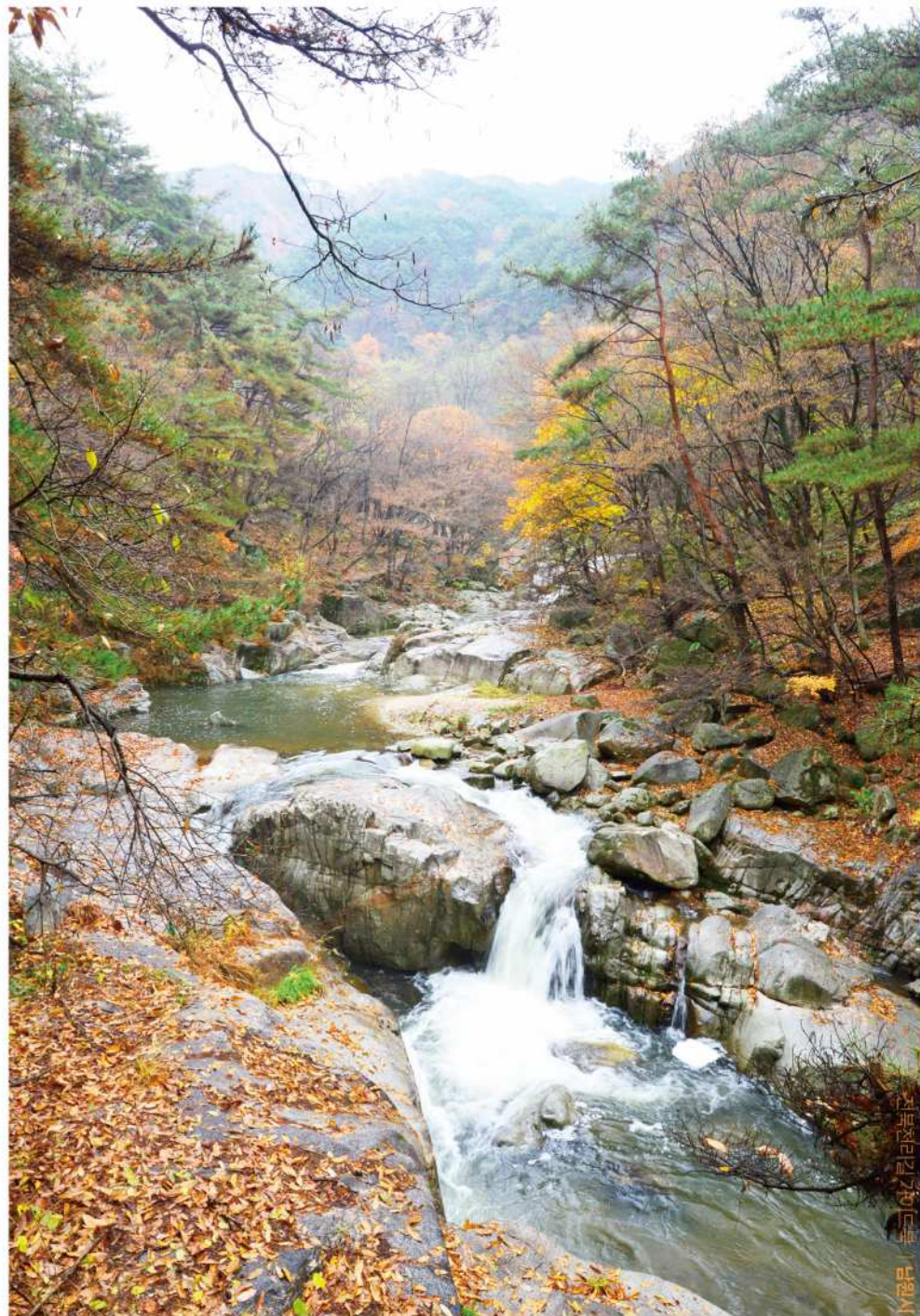


어리석은 사람이 오르면 지혜롭게 변한다는 전설이 있는 지리산은 백두대간이 다시 솟는다는 뜻의 두류산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리산의 둘레를 따라 도는 총 22개 구간, 3개 도를 아우르는 지리산둘레길은 한국의 명품 길로 이름이 높다. 이 중 '지리산둘레길 1코스(구룡폭포순환길)'은 지리산둘레길의 시작이다.

주천면둘레길주차장에서 출발해 개울을 따라 걷다 징검다리를 건넌다. 곧 내송마을을 만나게 되는데 마을 뒤로 있는 산길로 여정을 계속한다. 개미정자를 지나면 꽤 가파른 오르막길이 나타난다. 매트와 계단, 소나무 숲이 벽찬 숲을 위로한다.

구룡치까지 1.8km는 상승고도가 365m로 경사도가 20%를 넘는다. 백두산이 잠시 머물고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리산은 쉽게 오르기 힘든 산이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늘은 가까워지고 땅은 멀어진다. 그런 매력에 이 길은 구석구석 손길이 많이 닿아 아기자기하고 위험한 부분도, 길을 잃을 염려도 거의 없다.

구룡치 정상에서 내려와 사무락다무락을 만난다면 절반은 온 셈이다. 사무락다무락은 돌무더기로 길을 걷는 사람들의 안녕을 바라는 돌이 쌓여있다. 소망이 변해서 사무락, 담벼락이 변해서 다무락이라고 한다. 안녕의 소망을 빌며 쌓은 돌은 담벼락이 될 날이 올 것이다.







회덕마을로 내려와서 구룡폭포를 향해 쉼터 앞 도로를 따라 거슬러 올라간다. 도로를 지나 다시 산으로 들어가서 만나는 구룡정, 구룡폭포, 구룡사는 지리산둘레길 1코스(구룡폭포순환길)의 화룡점정이다. 특히 구룡폭포는 나무 계단을 밟아 폭포의 굉음의 한 가운데 흔들거리는 다리 위에서 감상하는 것이 좋다. 협곡으로 물려든 물길은 아홉 개의 아름다운 폭포를 빚어낸다.

비폭동, 유선대, 학선대 등 계곡 안의 바위와 물을 만나고 구룡탐방지원센터에 도착하면 여정은 끝난다. 아쉬운 발을 움직여서 육모정이 있는 호경마을을 지나 주천면사무소로 돌아온다.

#### 고도표



#### 정보 안내

위험구간 없음  
 관광안내소 지리산 둘레길 남원센터  
 (063-636-0850)  
 문의처 남원시청 환경과(063-620-6232)  
 주차장 유무 시종점 주차장 有

#### 추천 한마디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는 말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계곡길은 싱그럽기 그지없다.







## 지리산둘레길 2코스 남원시 제2길

달을 끌어당기는 마을을 향한 여정

컨셉 산들길
길이 11km
시간 4시간
난이도 보통

**시종점** 시점 운봉읍사무소 (남원시 운봉읍 황산로 1083)  
**종점** 인월마을회관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171-1 : 구주소)







지리산둘레길 2코스는 운봉~인월 구간으로 불린다. 운봉읍사무소에서 정육식당 삼거리 쪽으로 걷다보면 2코스의 시작 표지판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곳에서 서림공원을 향해 나아간다. 계속해서 신기교와 사반교를 건너 남천 옆으로 난 독길을 따라 걷는다. 드넓게 펼쳐진 논과 밭을 2km 정도 가로지르면 황산대첩비를 만나게 된다.

황산대첩은 이성계 장군이 기세가 하늘을 찌르던 왜구의 주력을 무찌른 전투로 바로 이곳에서 벌어졌다. 인근의 비전마을과 전촌마을은 황산대첩비를 관리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면서 저절로 생성된 마을이라 유래 또한 뜻깊다.

## 고도표



옥계저수지의 독을 통과하면 다시 산으로 접어들다. 느슨한 경사의 오르막길로 삼림욕을 하며 걸을 수 있다. 홍부골자연휴양림에서 지친 다리를 잠시 쉬어도 좋다. 이제 내리막길을 걸으면 인월마을까지는 금방이다. 달을 끌어당긴다는 멋스러운 이름을 가진 인월정과 흘러온 남천 물 가운데에 영월대라 글씨를 새긴 바위도 구경하며 인월마을회관에서 여정을 마친다.



## 정보 안내

**위험구간** 화수교 차량 이동이 많아 횡단시 주의  
**관광안내소** 지리산 둘레길 남원센터  
(063-636-0850)

**문의처** 남원시청 환경과(063-620-6232)

**주차장 유무** 시종점 주차장 유

## 추천 한마디

남천변을 따라 흐드러지는 벚꽃이 피는 봄에 걸어도 좋다. 유적이 많은 길이니 천천히 둘러보자.





# 교룡산 둘레길

남원시 제3길



교룡산에 담긴 치열한 역사



컨셉  
산들길



길이  
8km



시간  
3시간



난이도  
쉬움

시종점 교룡산 국민관광단지 (남원시 산곡동 251-21)

주요 경로 교룡산 국민관광단지 주차장

보성마을 갈림길

사방댐

교룡산 국민관광단지 주차장

화정마을갈림길

금강마을 갈림길

국민관광단지이자 임진왜란과 동학농민운동 등 역사의 거친 흐름 속에서도 단단히 제 모습을 지키고 있는 교룡산의 둘레를 따라 걷는다. 최제우 선생이 동학의 교리를 세운 곳이며 임진왜란 때 승병들이 왜적과 싸운 치열한 역사의 터이기도 하다.





교룡산 둘레길은 교룡산의 허리를 감고 한 바퀴 돈다.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반복되는 여정이므로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 그러나 솔솔이 울창하고 편백나무가 집중적으로 심어져 있어 향긋한 숲향과 시원함이 가는 여정을 응원해 줄 것이다.

근처의 교룡산성과 선국사는 꼭 둘러보는 것이 좋다. 교룡산을 즐기는 것을 넘어 교룡산의 가치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처의 만인의총을 통해 임진왜란 때 교룡산 인근이 얼마나 큰 격전지였는지를 알 수 있다.

순환하는 길을 따라 교룡산이 품은 마을과 남원 시내를 내려다 본다. 시내로 들어가만 북사터를 찾아보는 여정도 의미 있다. 석재와 석불의 규모와 품격으로 보아 왕립 사찰이 아니었을까 싶다. 다시 교룡산 국민관광단지로 돌아와 여정을 마친다. 잘 닦인 길과 표석이 지리산 못지않게 교룡산 둘레길의 친절한 매력을 한층 이끌어내 준다.



## 정보 안내

위험구간 없음

문의처 남원시청 환경과(063-620-6232)

주차장 유무 시종점 주차장 有

## 추천 한마디

교룡산은 등산하기에도 좋다. 남원시내와 가까운 편이기에 완주 후 광한루나 춘향테마파크를 둘러보면 더 알찬 여정이 된다.

## 고도표







# 김제시

- 6 새만금 바람길
- 26 금구 명품길
- 27 금산사길

백제 비류왕 27년, 즉 서기 330년에 축조된 한국 최고(最古)의 인공 저수지인 벽골제와 모악산도립공원, 금산사로 유명한 김제시는 대한민국에서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알려진 김제평야를 가진 도시이다.

벽골제로 미루어보건대 아득히 먼 옛날부터 이 곳의 경계기반은 광활한 들을 이용한 농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워낙 토질이 좋고 환경이 청정해 무엇을 심어도 잘 자란다고 알려져 있어 호남의 곡창지역으로 불릴 정도로 넉넉한 고장이다.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는 모악산 도립공원을 꼽을 수 있다. 전북지역의 명산 중 하나인 모악산은 어머니의 형상으로 김제시를 비롯

한 다양한 전복의 시, 군을 감싸 안고 있다. 또한 모악산에 위치한 다양한 사찰 중 금산사를 주목할 만하다. 견훤의 유배지이면서 미륵신앙의 중심지인 금산사는 1개의 국보와 10개의 보물을 가진 고찰이다.

이렇듯 유서 깊은 도시인 김제시는 최근 새만금 사업의 영향으로 또 다른 미래를 그리고 있다. 호남의 곡창지대를 넘어 다양한 청정산업의 메카이자 해양도시로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전북천리길 김제시 구간은 김제시의 대표적 관광지를 돌아보며 김제시의 과거와 미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할 수 있는 길이다.

새만금바람길에서는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너른 들판을 따라 바람의 노래를 들으며 걸

을 수 있다.

옛 흔적이 무심한 전선포와 낙조가 아름다운 망해사를 만나보자. 금구 명품길에서는 냉굴로 유명한 금구면을 만나본다. 금산길이 빛어내는 모악산과 고찰의 만남은 쉬이 잊혀지지 않을 여운을 남긴다.

한 번 만나면 쉬이 잊혀지지 않을 풍경. 눈이 부신 화려함보다는 감성이 충만한 곳곳의 흔적들이 가슴을 울리는 그 길, 김제시의 길들을 만나보자.



# 새만금 바람길

김제시  
제1길

옛 흔적들이 바람이 되어  
돌아오는

새만금 바람길에서 걸음마다 멀리 불어오는 바다 냄새 섞인 바람을 맞는다. 이 길은 쪽 뻗은 만경강 둑 위를 걸으며 옛 바다를 보는 길과 숲길, 산길 등이 어우러져 있다. 시작은 진봉면사무소에서 고사교회 옆의 길을 따라 진봉방조제로 오른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김제의 장점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진봉방조제에서 바라보는 김제평야와 새만금간척지의 드넓은 모습은 마음을 탁 트이게 해 준다.

2km 남짓의 방조제는 시멘트로 포장되지 않아 걷기에 편하다. 방조제의 끝에 다르면 석치마을 쉼터가 있다. 이 정자에서 잠시 쉬 후 뒤 쪽의 언덕을 오르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금세 숲이 가득한 길로 들어선다. 이 후 물갯벌을 가로지르는 구간이 나타나며 양옆으로 물과 습지를 사이에 두고 아슬아슬하게 길이 이어진다. 새만금 바람길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다. 더불어 화장실에 가까운 바위가 주변에 가득해 경치가 매우 멋지다.



**컨셉**  
해안길



**길이**  
12Km



**시간**  
4시간



**난이도**  
보통

**시종점** **시점** 진봉면사무소 (김제시 진봉면 진봉1길 15-3)  
**종점** 거전마을회관 (김제시 진봉면 거천길 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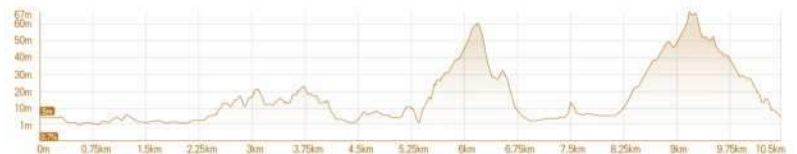
이제부터 대나무가 가득한 좁은 길이 나타난다. 아직도 철조망을 있던 시멘트 기둥, 참호, 관측소 따위의 흔적이 남아있다. 관측소 높이가 높은 만큼 훌륭한 전망을 자랑한다.

이윽고 전선포다.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배를 숨겨 두었던 포구다. 배들은 서쪽 끝 만경강 입구의 봉화산에서 신호를 받아 출동했다고 전해진다. 이어서 나타나는 전망대를 지나 고즈넉한 숲의 한 모퉁이를 지나면 바로 망해사다. 지금은 새만금방조제로 막혀버린 서해 바다를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는 망해사의 일몰은 처절하리만큼 아름답다.

망해사 뒤로 이어지는 길은 고요하다. 숲의 기운으로 몸이 새롭게 채워지면 김제의 유일한 항구 심포항에 도착한다. 공원처럼 깔끔한 심포항에서 지금까지 걸어온 긴 구간 동안 그리웠던 바다의 소리들을 듣는다. 이어서 봉화산으로 길은 짧지만 꽤 거칠다. 가시나무와 잡초를 피해 걷기 편한 길이 나타나고, 한 고개를 넘으면 봉수대를 만날 수 있다. 지엄한 군령은 사라진 지 오래, 만경강과 서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 좋은 곳으로 남아있다. 거전마을로 내려 와 걸음을 마무리한다. 내내 여정을 함께하던 바다 냄새 섞인 바람이 벌써 그리워진다.



## 고도표



## 정보 안내

**위험구간** 심터-초소 사이 예초작업,  
좁은 노면, 경사로 무너짐 보강 필요  
**관광안내소** 진봉면사무소(063-540-4781)  
**문의처** 김제시청 환경과(063-540-3331)  
**주차장 유무** 시종점 주차장 有

## 추천 한마디

홀로 걷기 좋은 길이다. 아스라이 사라진 옛 흔적을 따라 걷는 운치는 어느 길에 비할 바 아니다.



# 금구 명품길

김제시 제2길

시원한 바람과  
숲향을 느끼는



컨셉  
산들길



길이  
11Km



시간  
4시간



난이도  
보통

**시종점** 시점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김제시 금구면 금구로 44)

종점 대화교 (김제시 금구면 대화리 146-1 : 구주소)

주요 경로

금구면행정복지센터 선암저수지 축령문화마을 당월저수지

대화교

양석마을

편백나무 숲

상목냉굴

금구 명품길은 금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발한다. 모악산이 말 그대로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금구를 포근하게 품고 있다. 선암저수지의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보며 쪽 걷다보면 축령문화마을을 만난다. 축령문화마을에서는 염색 체험을 할 수 있고 전통 찻집 등 전통 문화 체험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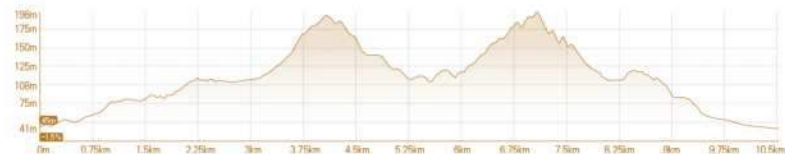
이어 또 다른 풍경의 당월저수지를 지나 당월 금구의 냉풍굴 세 곳 중 한 곳인 상목냉굴을 둘러본다. 옛 폐광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식은 땀을 모두 씻어주기에 충분하다.







## 고도표



## 정보 안내

위험구간 없음  
 관광안내소 금구면사무소(063-540-4815)  
 문의처 김제시청 환경과(063-540-3331)  
 주차장 유무 출발지 주차장 有

## 추천 한마디

상목냉굴에서는 여름철에 냉굴 안의 평상에 앉아서 시원하게 식사를 하거나 먹걸리를 마실 수 있다.

곧 편백나무 숲이 길게 이어진다. 숲속 가득한 피톤치드로 가슴 속을 채워보자. 숲길이 끝나고 양석마을로 들어선다. 양석마을은 뒤가 산으로 둘러싸이고 앞이 환하게 넓은 큰 마을이다.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금광으로 한 시대를 풍미하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어 계곡에서 사금을 채취했던 기록 등을 읽을 수 있다. 근처 금산사까지 뚫려있는 '양석냉굴'도 둘러서 시원한 바람을 두 배로 느끼는 것도 좋을 듯하다. 대화교에서 걸어온 길을 돌아본다. 모악산 따라 김제의 관문 금구의 평화로운 모습과 편백나무와 고사리 군락이 주는 자연, 냉풍굴의 바람이 쉬이 잊히지 않는다.







## 금산사길

김제시 제3길

맑은 정기로  
속세의 때를 벗는



컨셉 산들길

길이 13Km

시간 5시간

난이도 어려움

시종점 김제시(모악산) 관광안내소 (김제시 금산면 모악로 455)

주요 경로 김제시(모악산) 관광안내소 도통사 백운동마을 귀신사  
김제시(모악산) 관광안내소 금산초등학교 금평저수지



금산사길은 모악산마실길 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한다. 금산사는 후백제의 견훤이 유배된 절이자 미륵신앙의 중심이었다. 김제시 관광안내소에서 여정을 시작해 전라북도를 품는 모악산을 따라 고찰들을 만난다.

김제시 관광안내소 왼편 뒤쪽으로 살짝 숨어있는 길 입구를 찾는다. 초입에서 닭지붕섬까지 가는 숨이 차는 오르막길이다. 이후 폭신한 솔숲을 지나 탁 트인 풍경과 함께 다소 느슨한 평지가 이어진다. 계속해서 도통사를 지나고 길 입구에서 2.5km 떨어진 잣마루에서부터 정상은 뒤로하고 내리막길을 밟는다. 백운동마을로 가는 길이다.

마을의 천연 암반으로 이루어진 개천을 따라 관통하는 좁은 길은 귀신사로 인도한다. 길고 가파른 내리막길을 구불거리며 내려가면 금평저수지다. 최근에 돌레를 따라 나무 테크가 생겨서 걷기에 더 좋아졌다. 이후 금산초등학교 앞의 유명한 끝없이 이어지는 가로수길에서 고민과 걱정을 씻어낸다.

이윽고 다시 김제시 관광안내소에 도착한다. 여기서 여정은 끝나지만 꼭 금산사를 둘러보며 육각 다층 석탑과 석련대, 미륵진 등 중요한 역사의 보고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 ⑦ 정보 안내

위험구간 없음

관광안내소 김제시관광안내소  
(063-548-1330)

문의처 김제시청 환경과(063-540-3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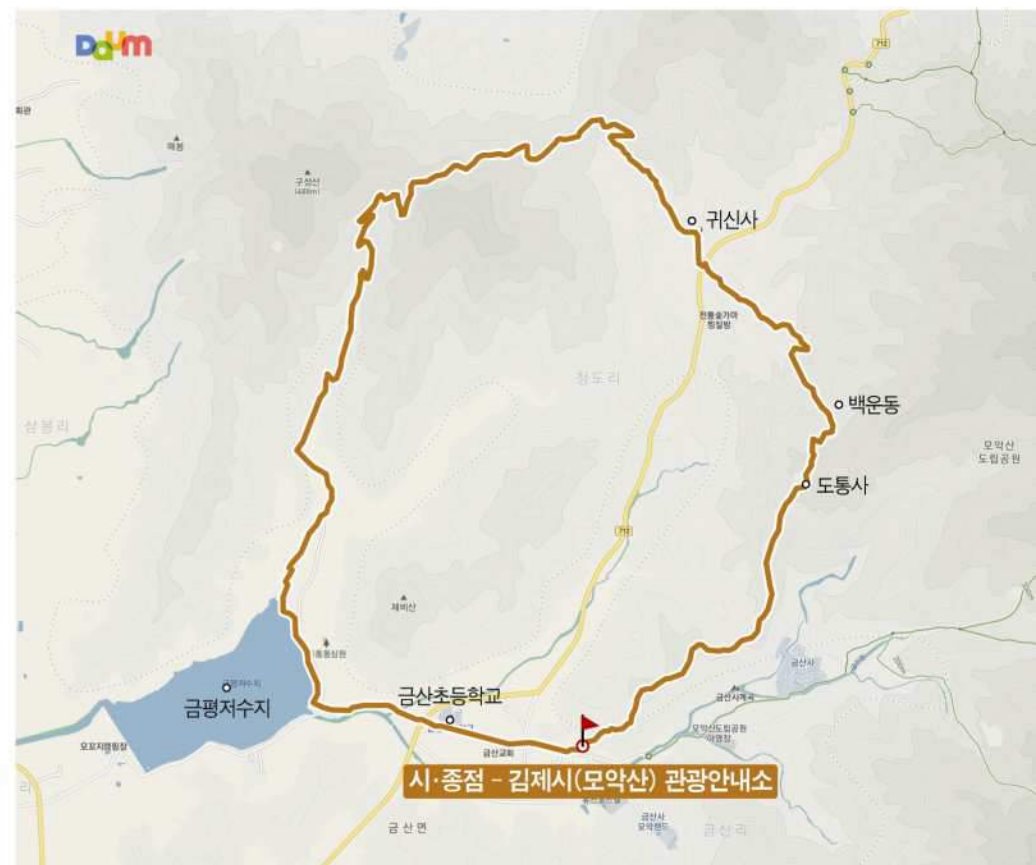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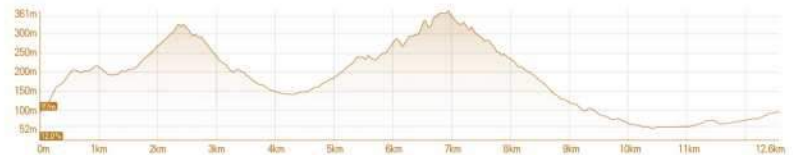
주차장 유무 시종점 주차장 有

## ☁️ 추천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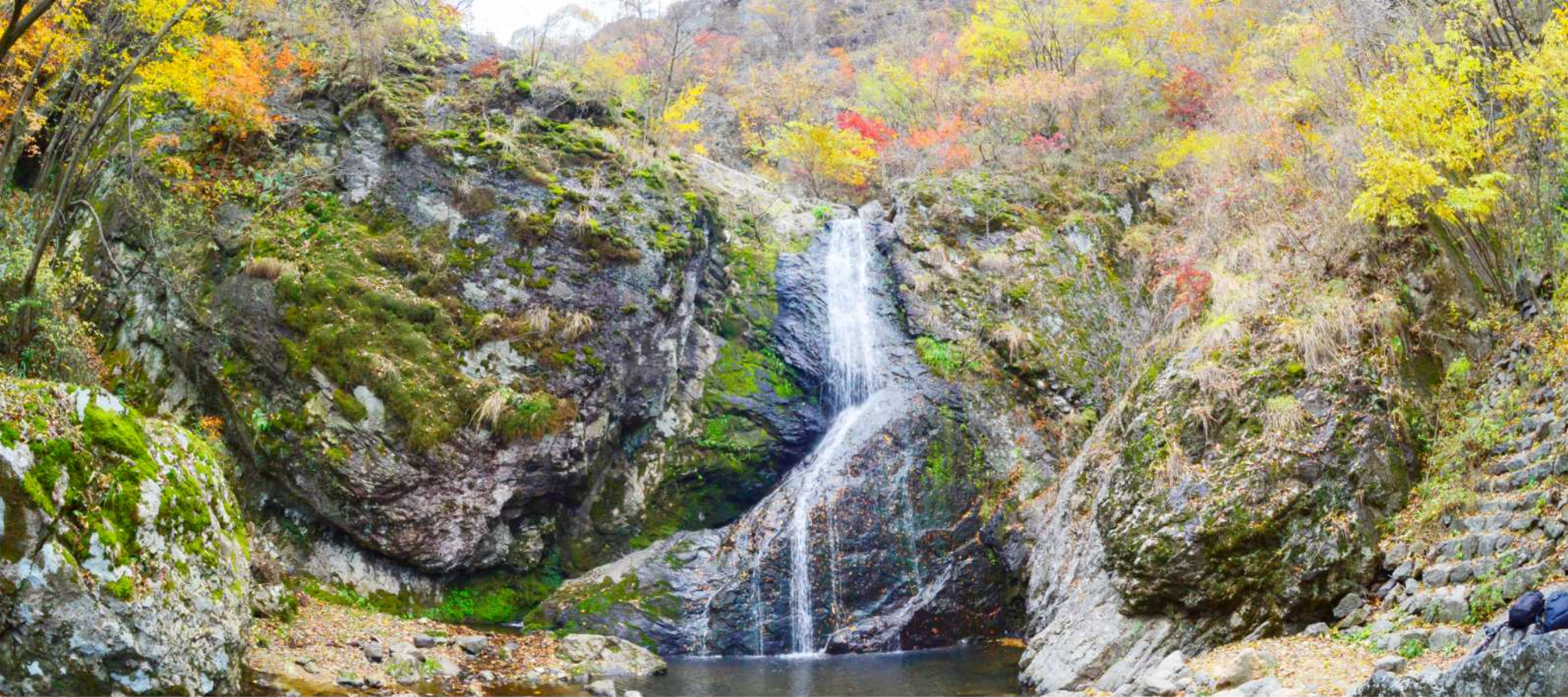
가을에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길이다.  
모악산의 등산과 일부구간을 병행해도 좋다.



## 고도표







# 완주군

- ⑦ 고종시 마실길
- ②⑧ 운문굴 마실길
- ②⑨ 완주 편백숲길

전주시와 더불어 전라북도의 중심지로 그 역사에 이름을 남긴 완주군.

원래 전주군(郡)으로 전주시와 함께였던 지역으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백제 위덕왕 2년인 서기 555년에 완산주가 설치되었던 기록이 있어 완주로서의 이름은 또 다른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조선시대에는 태조의 고향(전주李씨의 본향)이라하여 완산유수부로 승격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전주읍이 전주부로 승격되면서 전주군이 완주군으로 개칭, 15개면을 관할하는 넓은 행정구역을 자랑하였다.

현재도 전라북도의 시, 군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며 전주시를 포함 8개 시, 군과 경계를 이루는 전라북도의 중심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 완주군은 전라북도의 또 다른 청정지역이자 풍경자원을 자랑하는 곳이다. 백두대간 줄기 중 노령산맥에서 뻗어나온 줄기를 토대로 다양한 산과 그 속의 전통이 살아있는 마을과 문화재, 유적들을 만날 수 있다. 전북천리길 완주군 구간은 권삼득 명창의 죽음의 장소로 알려진 위봉폭포와 고종에게 진상하였다는 곳감의 재료인 고종시로 유명한 학동마을을 만나는 고종시마실길을 시작으로 숲속 기운이 그대로 살아있는 운문굴마실길, 편백나무 숲과 인근의 리조트, 사우나로 유명한 완주 편백숲길을 걸을 수 있다. 산과 숲, 그 싱그러운 기운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곳, 완주군의 길들을 만나보자.



# 고종시 마실길 완주군 제1길

웅장한 폭포와 소나무의 위엄

 **컨셉** 산들길  **길이** 11Km  **시간** 4시간  **난이도** 어려움

**시종점** **시점** 위봉폭포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51-1 : 구주소)

**종점** 학동마을 경로회관 (완주군 동상면 수만길 123-5)

**주요 경로** 위봉폭포 송곳재 시향전망대 다자미마을 학동마을 경로회관

고종시 마실길은 위봉폭포에서 시작한다. 시작부터 폭포의 크기와 위용이 압도적이다. 60m 높이의 위봉폭포의 2단으로 떨어지는 물을 보고 있다면 가슴이 시원해진다. 거의 굉음이라고 할 만한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위봉폭포의 물 앞에서 판소리 8대 명창 중 한 명인 권삼득 명창이 득음을 위해 물러서지 않고 소리로 맞섰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위봉폭포가 있는 동상면은 완주에서도 높은 산이 첩첩해 골짜기에 마을이 형성되어 마을과 마을을 잇는 도로마저 여의치 않은 지역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여정은 마음을 굳게 먹는 게 좋다.







위봉폭포를 지나 한적한 산책로를 따라 내려가면 삼거리가 나타나는데, 이 때 입석마을로 가는 길을 뒤로하고 송곳재 방향으로 계속 걷는다. 정상까지는 4km가 넘는 긴 오르막길이다. 안내심이 요구되지만, 흐르는 계곡물과 병풍 같은 산맥의 풍경을 옆에 긴 오르막길은 아름답기 그지없다. 산을 오르고 길을 걷는 이유가 맑은 공기를 마시고 땀을 흘리며 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면 고종시 마실길은 정확히 그 이유에 충실하다.



송곳재를 향해 걷다 보면 벼랑 중간 중간 특 튀어나온 부분에 자라고 있는 소나무가 눈길을 끈다.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리고 뺨은 모양새는 여느 천년송에 뒤지지 않는다. 나머지 정상까지 삼림욕을 충분히 즐기면서 올라가면 드디어 원동산의 시향전망대에 닿는다. 시원한 전망이 흘린 땀을 보상받는 듯하다.



713m의 전망대에 올라 바라보는 풍경은 환상적이다. 앞쪽으로는 완주군과 익산시의 모습이, 뒤쪽으로는 백두대간에 뺨은 노령산맥의 줄기가 물결친다. 특히 시향전망대의 시향이라는 이름은 감 향기라는 뜻으로, 감 품종의 하나 고종시의 꽃감이 특산인 동상면과도 아주 잘 어울린다.

이제부터 긴 내리막길이다. 2km 정도를 내려가면 왼쪽으로 아름다운 생태숲길로 가는 길도 함께 나타나지만 발걸음은 다자미마을로 이어지는 내리막길로 재촉한다. 그렇게 하나의 마을을 지나 학동마을 경로회관에서 여정을 마친다. 근처의 정자 또한 멋스러운 모습이다. 정자에서 잠시 다리를 쉬고 있다면, 지나온 길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생생하다.

## 정보 안내

위험구간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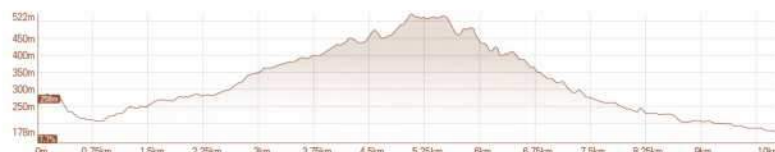
문의처 완주군청 환경과(063-290-2662)

주차장 유무 출발지 주차장 有

## 추천 한마디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위봉폭포에서 1km가량 떨어진 위봉사를 둘러보고 출발해도 좋다. 백제 시대 세워진 사찰로, 국난시 태조 이성계의 영정을 옮겨 모셨던 위봉산성도 인근에 있다.

## 고도표







## 운문골 마실길 원주군 제2길

고즈넉한 문화와  
숲과 물길의 조화



**컨셉**  
산들길



**길이**  
6km



**시간**  
2시간



**난이도**  
쉬움

**시종점** **시점** 경천생활체육공원 (원주군 경천면 경천리 680-3 : 구주소)

**종점** 원주전통문화체험장 (원주군 고산면 대아저수로 416)



운문골 마실길은 경천생활체육공원에서 출발하여 남쪽의 고개를 넘어 고산면 원주전통문화체험장까지 가는 비교적 짧고 편안한 길이다. 근처 경천저수지의 풍광도 아름답기에 시간과 체력이 넉넉하면 함께 둘러보아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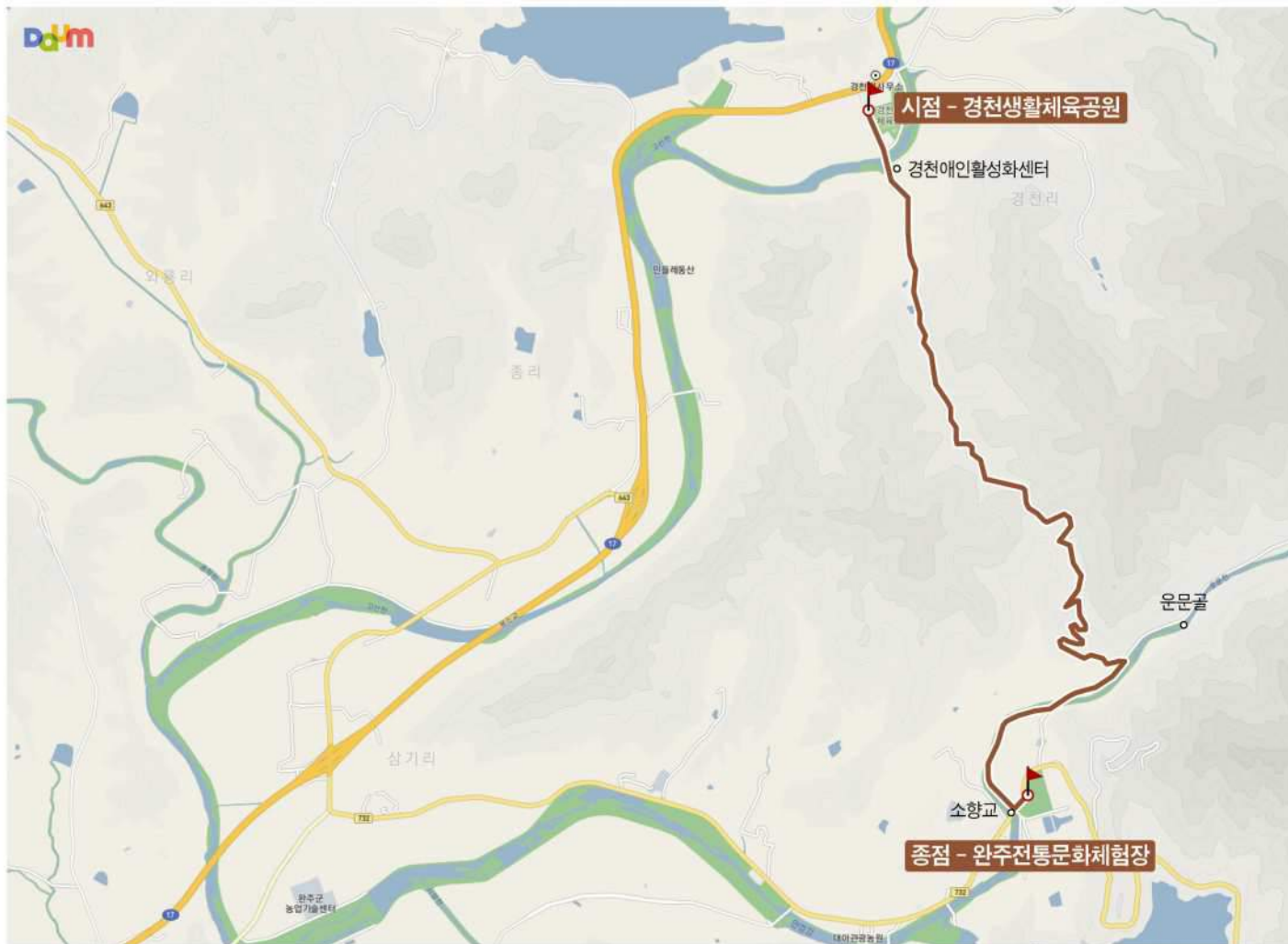


경천애인활성화센터의 주변의 정갈하고 탁 트인 경치를 감상하며 오르막길에 들어선다. 지나가며 보이는 풀꽃과 푸른 물의 사방땀, 깊은 계곡은 고즈넉하고 시원한 경치를 자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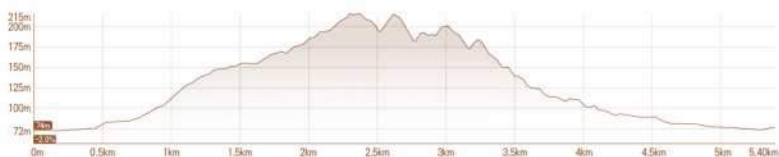
계속 되는 폭신한 흙길은 가파르지 않아 경천 편백숲 까지도 비교적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이 작은 편백나무들을 친구 삼아 운문골을 향해 걷는다. 곧 제법 키가 큰 편백나무 숲이 나오고 향기와 함께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좋은 기운들을 받는다.

운문골 마실길은 공기조차 달게 느껴지는, 완주가 가진 천혜의 환경의 장점이 도드라지는 길이다. 계속해서 운문골을 나와 운문천을 향해 걸어 건너편으로 보이는 완주전통문화체험장에서 여정을 마무리한다.

완주전통문화체험장의 한옥건물은 신구의 조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그네와 널뛰기, 투호 등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어 남녀노소 즐겁게 이용할 수 있다. 숙박도 가능하다고 하니 하루를 묵으며 편백과 계곡을 즐기면서 마음의 여유를 더 얻어도 좋겠다.



## 고도표



## 정보 안내

**위험구간** 소향교 전 450m 인도없는 도로 이용  
**관광안내소** 상관편백숲 관광안내소  
**문의처** 완주군청 환경과(063-290-2662)  
**주차장 유무** 시종점 주차장 有

## 추천 한마디

코스가 짧고 어렵지 않아 가족들과 함께 산림욕을 하며 즐기기가 좋다. 도척지에서의 전통놀이 체험은 소소한 재미를 준다.



# 완주 편백숲길

완주군 제3길

웅장한 숲, 피톤치드의 향연



컨셉  
산들길



길이  
6km



시간  
2시간 30분



난이도  
쉬움

시종점 상관편백숲 공영주차장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631-1 : 구주소)

주요 경로

상관편백숲 공영주차장

편백숲 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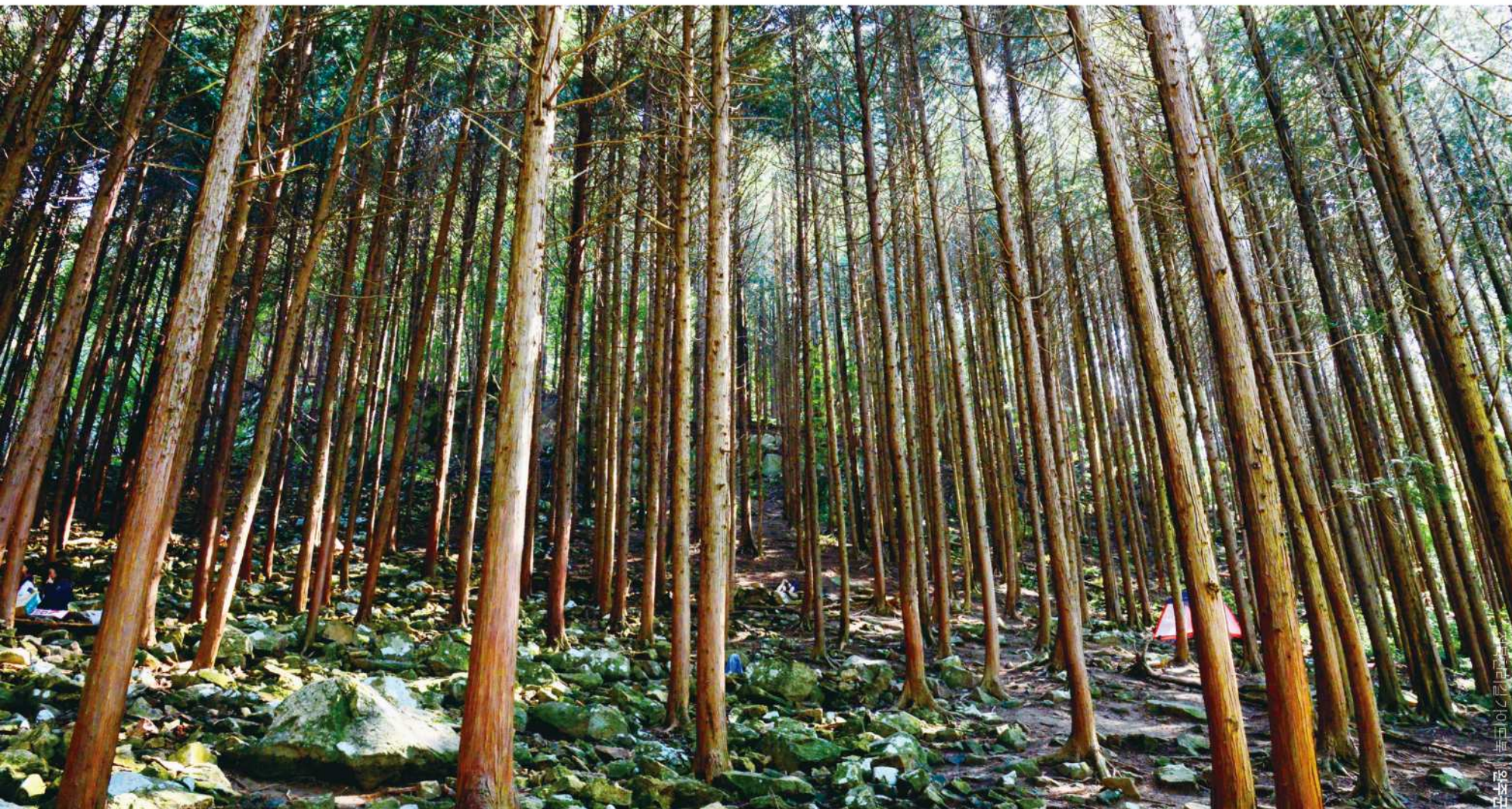
유황편백탕

통문

상관편백숲 공영주차장

제1등산로갈림길

산림욕장







상관면에 위치한 공기마을 완주 편백숲길은 꽤 알려진 유명한 트레킹 명소이다. 경사가 만만치 않고 습기가 많은 땅 덕분에 서둘러 걸을 수는 없지만, 온몸으로 피톤치드를 깊숙이 마시고 가라는 자연의 큰 뜻이라 여기며 여정을 시작해보자.

상관편백숲 공영주차장에서 여정을 시작한다. 공기마을을 지나쳐 직진하는 길과 바로 왼쪽 싹다리를 건너는 오솔길 2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두 곳다 편백숲쉼터에서 조우하게 된다.

상관편백숲은 공기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만든 숲이다. 26만여 평의 산에 10만 그루의 편백나무를 심었고, 편백 뿐만 아니라 지천으로 피어나 있는 야생화와 곤충들은 생태가 얼마나 깨끗하게 보존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좁고 흙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길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의지가 담겨있다.

쉼터에서 숲길로 올라와 유향편백탕 안내판을 따라간다. 편백탕은 유향이 섞여 있고 시원하여 발을 담그는 맛이 제법 좋다. 잠시의 휴식 후 걸음을 재촉하여 두 개의 통문을 만난다. 하나는 산림욕장으로 가는 문이고 하나는 편백숲 쪽으로 바로 내려가는 문이다. 산림욕장을 돌고 나와 편백숲을 구경한 뒤 다시 상관편백숲 공영주차장에서 여정을 마무리한다. 숲과 공기부터 물까지 모든 것이 보물과도 같은 길이다.



## 고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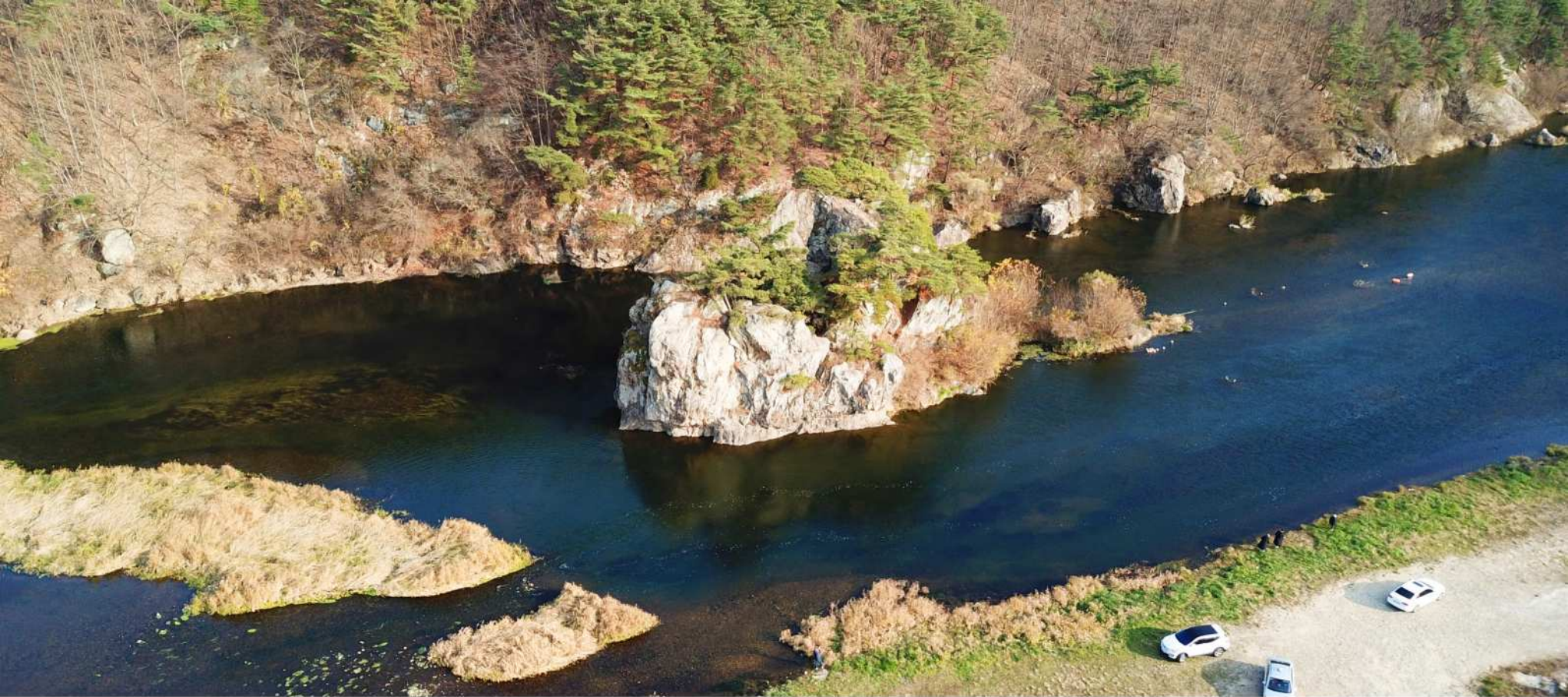
## 정보 안내

위험구간 없음  
관광안내소 상관편백숲 관광안내소  
문의처 완주군청 환경과(063-290-2662)  
주차장 유무 시종점 주차장 有

## 추천 한마디

온전히 산림욕을 위한 길이라 할 수 있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식당도 있으므로 걷기 후 기분 좋게 식사를 할 수 있다.





# 진안군

- 8 용담호 감동벼룻길
- 30 운일암반일암 숲길
- 31 마이산길

전라북도에서 완주군 다음으로 넓은 면적을 자랑하지만 대부분이 산간지역이라 그만큼 천혜의 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인 진안군은 국내 유일의 고원지대인 '진안고원'으로 유명한 곳이다.

신라 경덕왕 16년인 서기 757년, 난진야현(월랑현이라 부르기도 했음)에서 진안현으로 개칭하였던 기록이 있어 당시부터 현 지명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고려시대엔 다시 월랑현으로 불렸다가 조선시대에 진안군으로 굳어져 지금껏 이어 내려져 왔다.

금강과 섬진강, 만경강 등 호남을 대표하는 세 젓줄을 만날 수 있는 진안군은 말 그대로 산과 물의 고장이다.

한 눈에도 그 영험함이 느껴지는 명산인 마

이산을 비롯하여 운장산, 구봉산 등 등산으로 유명한 산들이 산재해 있으며 용담호 주변으로 펼쳐지는 절경은 탄성이 절로 나올 정도로 기막히다.

무엇보다 소백산맥과 노령산맥 사이에 위치한 진안고원을 빼놓을 수 없다.

동쪽으로는 대덕산, 덕유산, 백운산 등 해발 1,200~1,300m 이상의 고지로 이어지는 소백산맥 줄기를 만나고 남쪽으로는 운장산, 부귀산, 만덕산 등 해발 700~1,100m의 고지대인 노령산맥과 맞닿는다.

이 사이에 위치한 고원은 해발고도 350~500m를 자랑하며 태고의 지질학적 흐름을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지질학의 보고이기도 하다.

전북천리길 진안군 구간은 기존의 진안군의 명품 트레일인 '진안고원길'의 구간 중 빼어난 비경을 가진 곳과 걷기 쉬운 곳을 엄선하여 소개하고 있다.

용담댐과 용담호의 풍경을 따라 금강과 섬바위를 만나는 용담댐감동벼룻길과 눈을 의심할 정도로 멋진 기암괴석을 따라 계곡을 걷는 운일암반일암숲길, 마이산을 따라 그 영험함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이산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한민국의 숨겨진 비경을 모아놓은 곳 진안군, 걷기 여행 마니아라면 이곳을 꼭 걸어보자.



# 용담호 감동벼룻길

진안군 제1길

하늘 비친 호수와  
섬바위의 만남



컨셉  
호수길



길이  
12km



시간  
4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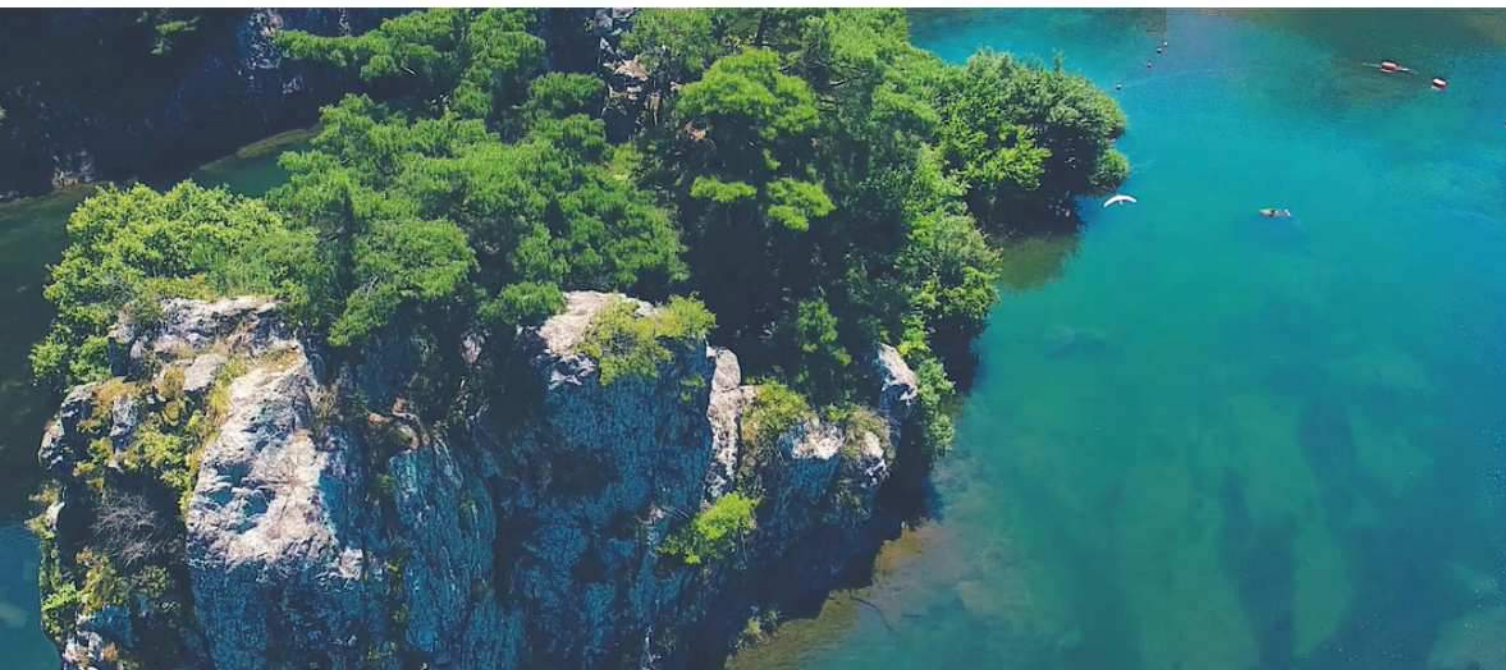


난이도  
보통

**시종점** 용담댐 물문화관 (진안군 안천면 안용로 747)



진안군의 노력 덕분에 전라북도 곳곳이 용담호를 통한 생활용수를 공급받게 되었다. 용담댐과 용담호수를 바라볼 때 감사에 감사를 더해야 하는 이유다. 용담호 감동벼룻길의 시점인 용담댐 물문화관은 이러한 용담호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어진 전시관이자 교육관이다.



용담댐 정상을 볼 수 있는 공도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출입이 가능하다. 공도교를 건너며 바라보는 넓은 호수는 물 위에 비치는 탁트인 하늘 풍경과 더해져 매우 아름답다. 이 다리의 끝에서 시작되는 숲은 용담꽃이 가득한 용담가족테마공원을 지나 신용담교로 연결된다.

그렇게 잠깐을 걷다 보면 섬바위의 맑은 물이 잔잔히 흐르며 여정을 반긴다. 애국가 영상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섬바위는 한 쪽의 수목화 같은 절경을 뽐낸다. 금강 가운데 우뚝 서 크기도 압도적이지만 형태 자체도 고상하다. 바위 옆 소나무들 역시 각각 범상치 않은 모양새를 지녔다. 이렇듯 1만여 평의 백사장과 어우러진 금강의 풍경을 걸음을 멈출 정도로 매력적이다.





하류를 향해 계속 걸어 드디어 버룻길에 닿는다. 버루 또는 버리는 강 근처의 버랑을 뜻하는 진안의 말이다. 좌측으로 금강 상류를 구경할 수 있는 낭만과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잦아 스릴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독특한 조합을 선사한다. 또한 양치류 식물들이 우거져 있어 태고의 원시림 속을 보는 듯하다. 그렇게 문턱바우와 치마바우 등의 기암괴석을 지나치면 감동마을이 손에 잡힐 듯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감동마을은 본래 감나무동네로 불렸다. 감동마을 앞 백사장은 나룻배가 다니던 곳으로, 과연 절벽 아래로 강을 건너 다녔던 흔적인 길이 보인다. 아마 옛사람들은 나룻배로 금강을 건너 다녔을 것이다. 근처로 내려가면 되돌아가라는 화살표 하나가 서 있다. 다시 그 절경 속으로 되돌아가는 여정이 즐겁다.

돌아갈 때는 신용담교에서 도로를 따라 바로 종점인 용담댐 물문화관으로 가는 것이 정식코스이며, 또 다른 느낌으로 길의 아쉬움을 달래주기에 충분하다.



### 📍 정보 안내

**위험구간** 버룻길 일부 노면보수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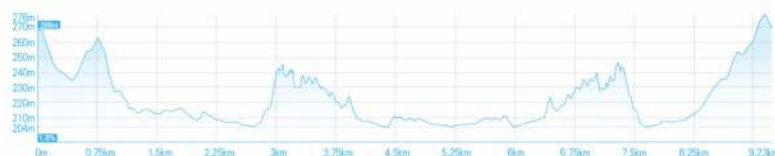
**문의처** 진안군청 관광과(063-430-2551),  
진안고원길(063-433-5191)

**주차장 유무** 시종점 주차장 有

### 🌤️ 추천 한마디

공도교로 통하는 문은 10시~17시까지 개방한다. 버랑길은 봄과 늦가을이 즐기기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고도표







## 운일암반일암 숲길 진안군 제2길

모든 곳이 절경인 기암괴석의 무릉도원



**컨셉**  
강변길



**길이**  
10km



**시간**  
3시간 30분



**난이도**  
보통

**시종점** **시점** 노적봉쉼터 (진안군 주천면 동상주천로 1716)

**종점** 천면사무소 (진안군 주천면 동상주천로 2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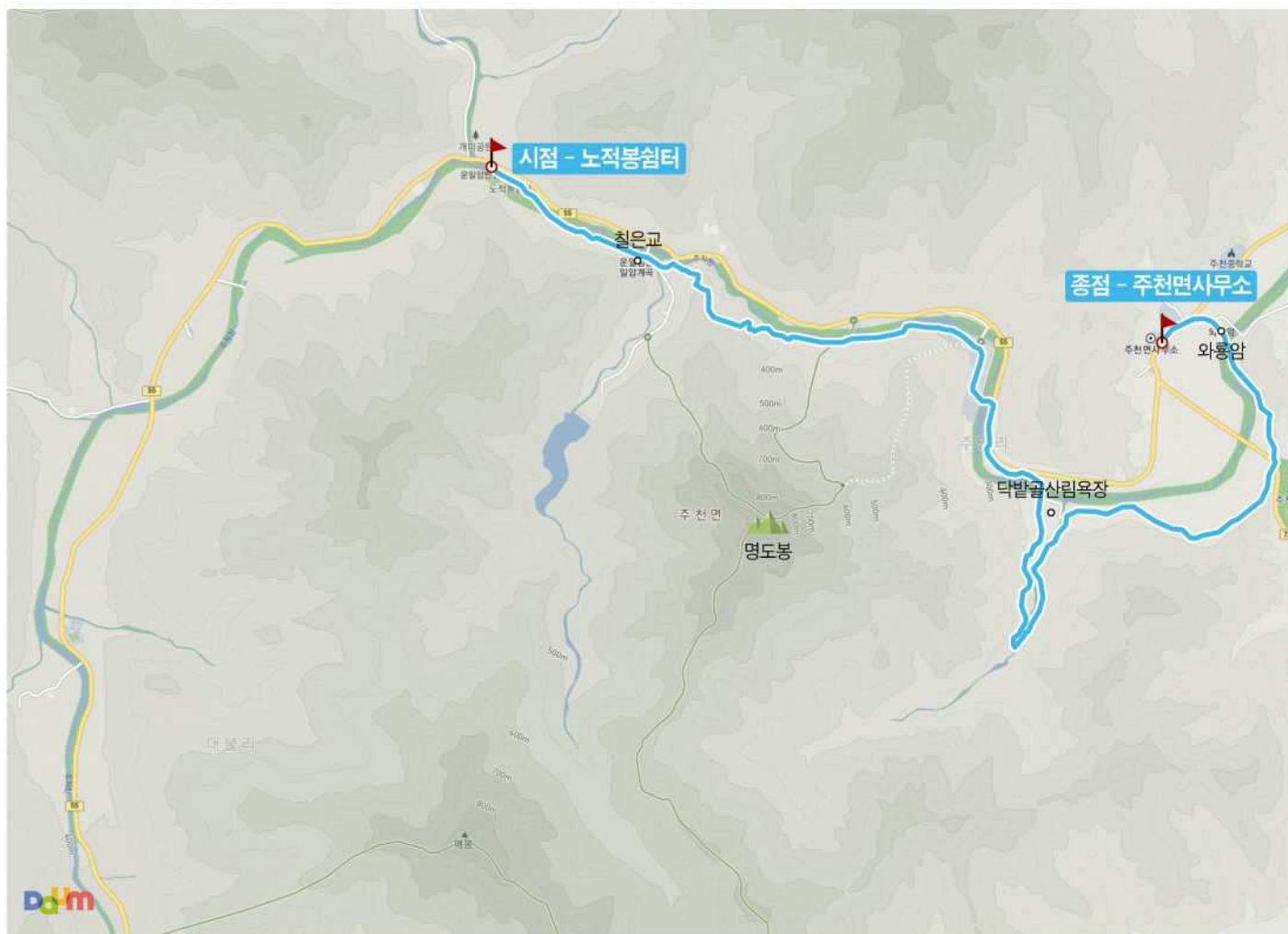


진안고원길 9구간이기도 한 운일암반일암 숲길은 노적봉쉼터 앞에서 시작이다. 주자천의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거대하고 기묘한 바위들을 만나는 순간은 갈 길을 잊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그러나 이 길은 칠은교 앞에서 짧게 끝난다. 이 후 다시 찾길을 건너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꽤 가파른 능선을 따라 오르막길을 밟으면 바위 위에 지어진 운일정이 기품 있게 여행자를 맞아준다. 오늘의 여정 중 가장 높은 곳, 눈 아래 신비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어 숨차게 올라온 노고를 보상하는 듯하다.



땀이 식기를 기다렸다 다시 급하고 험한 내리막길을 맞는다. 길이 얼마나 좁고 심했으면 "해를 만나질 밖에 볼 수 없다"는 반일암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을까. 조심하여 이동해야 할 것이다. 이어 천변 길로 내려오면 곧 사람이 올라서기만 해도 출렁이는 무지개다리를 만난다. 다리에서 돌아보는 절벽과 폭포의 깊은 물이 또 한 번 감탄사를 불러일으킨다.

넓은 주차장이 있는 오토캠핑장과 명도교와 소나무 숲, 주양교를 지나 '닥발골산림욕장'으로 들어선다. 계곡 물이 깨끗하고 원시림이 살아 있는 공간이다. 계속 발걸음을 재촉하여 먹고개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정검다리를 건너 와룡암을 바라본다. 이렇게 다양한 자연의 신비한 자태는 코스의 후반까지 계속된다. 이제 종점 주천면사무소까지가 지척이다.



## 정보 안내

**위험구간** 운일정에서 반일암무재개다리 사이  
돌계단, 닥발골 점수로와 와룡암  
징검다리 범람

**관광안내소** 임시 관광안내소(7~8월 운영)  
(063-430-8749)

**문의처** 진안군청 관광과(063-430-2551),  
진안고원길(063-433-5191)

**주차장 유무** 시종점 주차장 有

## 추천 한마디

코스 입구의 캠핑장을 활용, 걷기와 물놀이 등을  
겸한 1박 여행도 추천하고 싶다. 한 번만 걸기  
에는 아쉬울 정도로 아름다운 길이다.

## 고도표





# 마이산길

진안군 제3길

마이산의 위상을  
가까이서 확인하는



컨셉  
산들길



길이  
8Km



시간  
3시간 30분



난이도  
보통

**시종점** 시점 진안만남센터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054-6)

종점 은천마을회관 (진안군 진안읍 은천2길 6)



진안만남센터에서 천변을 따라 걸으면 호젓한 길의 시작과 함께 멀리 마이산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자태가 <미술랭 가이드> 별 세 개를 줄만하다. 잘 다듬어진 관광정보센터 거리를 지나 편안하지만 가깝게 마이산을 즐길 수 있는 사양제로 향한다. 독 위에서 바라보는 마이산 두 봉우리는 압도적이다.







이 후 만나게 되는 연인의길은 천왕문까지 전기자동차와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바꾼 것이다. 시간은 더 걸리지만 완만하게 산을 오를 수 있다. 천왕문은 마이산 두 봉우리 사이의 고개 터를 말한다. 이 곳에서 은빛 샘물을 맞은 뒤 은수사를 향해 나아간다. 천연기념물인 청설배나무와 줄사철나무 군락을 감상할 수 있다.

은수사를 내려와 마주하게 된 탐사는 신비하고 거대한 돌탑이 위용을 자랑하며 태고의 시간을 견디고 있다. 언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화가 있을 뿐이다. 탐사를 벗어나면 자칫 길을 잃기 쉬우니 진안고원길의 이정표를 따라 좌측으로 급히 꺾어 도장골로 접어든다. 한참을 걸어 탐사에 도착하면, 마이산뿐만 아니라 멀리 덕유산이 보여 최고의 경관을 자랑한다. 이후 내려막길을 밟으면 종점인 은천마을이다. 마을의 잦은 화재를 막기 위해 복원한 마을 숲과 돌거북을 돌아본 뒤 은천마을회관에서 행복한 여정을 마친다.

### ? 정보 안내

**위험구간** 탐사에서 책상바위 사이 지점 노면 보수 요구됨  
**문의처** 진안군청 관광과(063-430-2551),  
 진안고원길(063-433-5191)  
**주차장 유무** 출발지 주차장 有

### 추천 한마디

암마이봉과 봉두봉 등 다양한 등산코스가 있어 걷기 뿐만 아니라 산악활동을 즐기기에 좋다.

### 고도표







# 무주군

- 9 예향천리 금강변마실길 2코스
- 32 예향천리 금강변마실길 1코스
- 33 구천동 어사길

명산 덕유산은 비롯한 백두대간의 산맥을 두른 무주군은 진안군, 장수군과 더불어 전라북도의 '오지'로 꼽히는, 반대로 그만큼 청정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고장이다.

무풍현과 주계현으로 나누어졌던 이 지역은 조선 태종14년인 1414년에 두 현을 통합, 무주현으로 부르면서 지금의 명칭이 정해졌으며 고종32년인 1895년 무주군으로 확정되었다.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북도 영동군,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남도 거창군 등 4개 도와 경계를 이루는 곳에 위치해 있어 전라북도를 포함, 5개 도를 만나는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다.

깊은 산과 깨끗한 환경으로 설질이 유난히 좋기로 유명하여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자리

한 무주군은 1997년에는 전주시와 공동으로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무주리조트를 방문하고 있다.

생태학적 가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축재인 반딧불축제와 전 세계의 스포츠인 태권도의 상징인 태권도원, 천 리를 돌아 흐르는 금강과 구천동계곡, 덕유산 등으로 사시사철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누구나 한번 찾아오면 그 풍경에 반해 쉽사리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전북천리길 무주군 구간은 호남의 젓줄인 금강을 따라 석벽 아래를 걸으며 그 절경과 소박한 마을의 운치에 취하는 금강변마실길 2코스와 1코스, 물줄기가 무려 구천 번을 굽이돌

아 흐른다는 구천동 계곡의 33절경을 따라 걷는 구천동어사길로 이루어져 있다.

푸른 하늘과 산, 강이 맞닿아 있는 석벽을 따라 걷는 묘미, 절경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걷는 묘미를 만나고 싶다면 반딧불 노니는 무주군을 찾아가 보자.



# 예향천리 금강변마실길 2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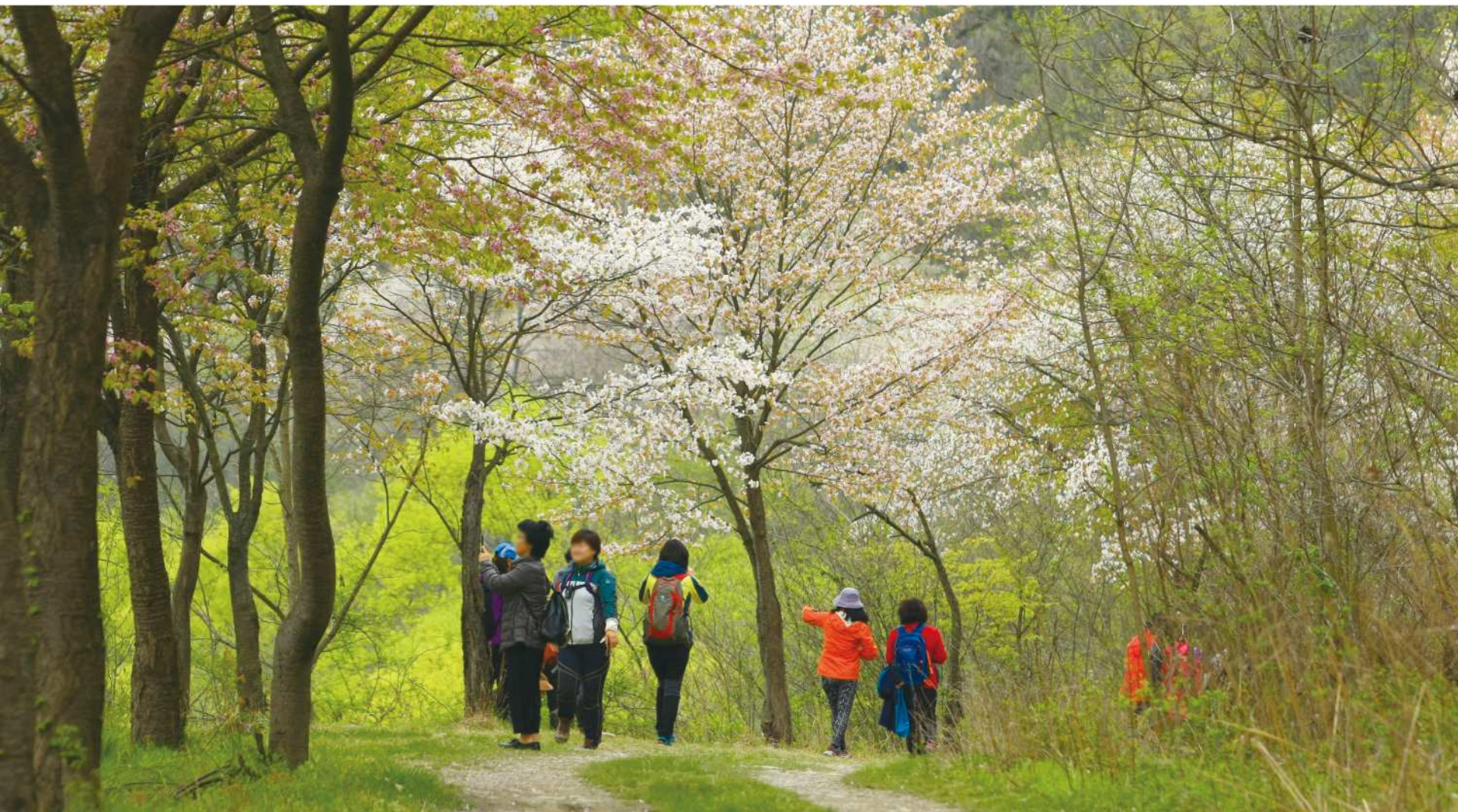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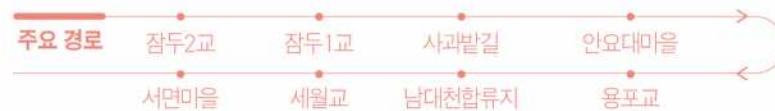
무주군 제1길

한적하고 평화로운 사과꽃 마을길

컨셉 강변길    길이 10km    시간 3시간    난이도 쉬움

시종점 시점 잠두2교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9-2 : 구주소)

종점 서면마을 (무주군 무주읍 서면강변로 76)





섬처럼 고립되었던 잠두마을 사람들을 위해 도로를 내면서 지어졌다는 잠두2교. 두 갈래길 중 오른쪽 도로길을 따라서 들어서면 물길의 하류를 향한 여정이 시작된다.

간다 보면 마치 누에의 머리와 같이 생겨서 이름 붙은 평화로운 잠두마을을 바라볼 수 있다. 고요히 흐르는 물과 바위로 벽을 두른 산의 조화는 말을 잊지 못할 만큼의 경관을 자랑한다. 잠두1교로 걸음을 재촉한다.

2km 남짓의 이 강변 산책로가 끝날 무렵, 도로를 건너 사과밭길로 향한다. 때를 잘 맞추어 흐드러진 꽃과 함께 넓게 스민 사과꽃향기에 취해보자.

이어서 구불구불 돌아가는 금강이 마치 허리띠와 같이 생겨서 이름 붙은 안요대마을로 통하는 입구에 멋진 정자가 두 개 있다. 시원한 바람이 들이치는 소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고, 표지판을 따라 얼마 걷지 않아 벼랑을 타고 가는 길이 시작된다. 탄성이 절로 나오는 길이다. 소나무 잎과 참나무 잎이 쌓여 폭신하고 편안하다. 아래로는 푸른 물, 왼쪽에는 험한 바위, 절벽은 꼼꼼히 쌓은 돌 축대가 든든히 받쳐주고 있다.

그렇게 만나는 용포교는 오랜 시간 그 자리에서 금산과 무주, 충청남도과 전라북도를 잇고 있었다.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온 시원스럽게 이어진 산과 강이 여전하여 바라보는 것만으로 도상쾌하다.

## ⑦ 정보 안내

**위험구간** 용포교에서 세월교 사이 축대가 일부 무너지고 있음

**관광안내소** 무주군관광안내소  
(063-324-2114),  
무주군 만남의광장안내소  
(063-320-2571)

**문의처** 무주군청 환경위생과(063-320-2331)

**주차장 유무** 시종점 주차장 無

## 🌳 추천 한마디

꽃 피는 봄에 더욱 아름다운 길이다. 1코스와의 이어서 하루동안 걷는 트레킹 코스로 삼아도 좋다.



더불어 길은 곳곳마다 낙석을 쌓아 올린 돌담들이 여정의 힘듦을 위로하고 설렘을 북돋아준다. 남대천과 금강이 만나는 남대천합류지의 풍경 속에, 앉아있던 새들은 거센 물소리에는 꿈쩍 않다가 낮은 사람의 발자국소리에 급세 날아오른다.

도를 나누는 경계 표지판을 지나 세월교를 건너면 경사가 낮아지는 산기슭에 물이 얕아 모래사장이 넓어지는 곳에 나루터가 있다. 이 나루터가 보인다면 서면마을에 거의 다 왔다는 이야기다. 찰방찰방한 물 위 잠수교를 건너 마을 입구로 올라서면 오늘의 여정이 끝난다.

## 📈 고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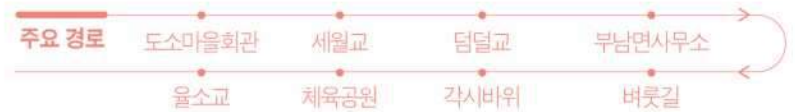


# 예향천리 금강변마실길 1코스

무주군 제2길

꽃색과 물빛이  
강물 따라 어우러지는

시종점 시점 도소마을회관 (무주군 부남면 유섬길 155)  
종점 울소교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1179-10 : 구주소)



	컨셉 강변길		길이 7Km
	시간 3시간		난이도 쉬움

금강변마실길 1코스는 금강의 최상류 지역에 위치한 도소마을을 기점으로 울소마을에 이르는 길이다. 도소는 섬곳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풀이했을 때 과거 최상류의 거센 물살에 섬처럼 고립되어 붙여졌다고 한다. 지금은 굽이굽이 돌아 흐르는 금강, 한적하고 아름다운 도소마을은 이 길의 시작으로 꽤 잘 어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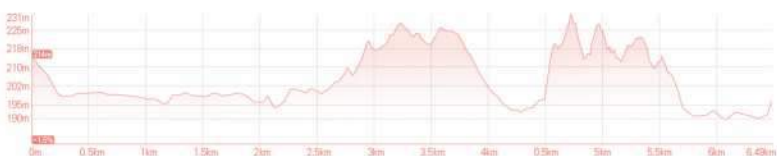


몇 군데의 둠벙을 지나 강 반대쪽 둔치인 세월교에 올라선다. 여울물의 기운찬 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어 좋다. 맞은편 강 건너에는 푸른 솔 몇 그루를 그림처럼 머리에 인 대문바위가 눈에 띈다. 다시 1km 정도 길을 걸어 겨우 자동차 한 대가 지날 수 있는 덩달교를 만난다. 이후 부남면사무소에 도착하여 안내판을 따라 대소마을 뒤 언덕을 오르면 거대한 두 그루 동구나무를 만날 수 있다. 부남면 전체와 푸른 금강물을 시원히 내려다보며 걷는 길은 호쾌하다.

곧 사과밭 옆을 지나는데, 사과가 익는 계절에는 그 자체로 또한 장관이 펼쳐진다.

지금부터는 환상적인 버룻길의 시작이다. 깎아지른 벼랑과 기암괴석, 산그늘 꽃색과 물빛이 절따라 다른 조합으로 어우러져 감탄에 감탄을 거듭한다. 낭만적인 이 길은 각시바위와 그 아래의 터널이 보이며 아쉽게 끝난다. 그렇게 체육공원을 지나 울소교에 도착한다.

## 고도표



## 정보 안내

**위험구간** 세월교, 많은 강우 및 옹담댐 방류시 출입 차단

**관광안내소** 무주군관광안내소 (063-324-2114),  
무주군 만남의광장안내소 (063-320-2571)

**문의처** 무주군청 환경위생과(063-320-2331)

**주차장 유무** 도착지 주차장 有

## 추천 한마디

봄꽃이 아름다운 시기에 걸으면 좋다. 여름에도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으니 휴가지로도 좋다.



# 구천동 어사길

무주군 제3길



속세를 잊고픈 33절경



컨셉  
산들길



길이  
13km



시간  
4시간



난이도  
보통

시종점 덕유산국립공원삼공주차장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1로 167)

주요 경로

덕유산국립공원삼공주차장

안월담

비파담

구월담

덕유산국립공원삼공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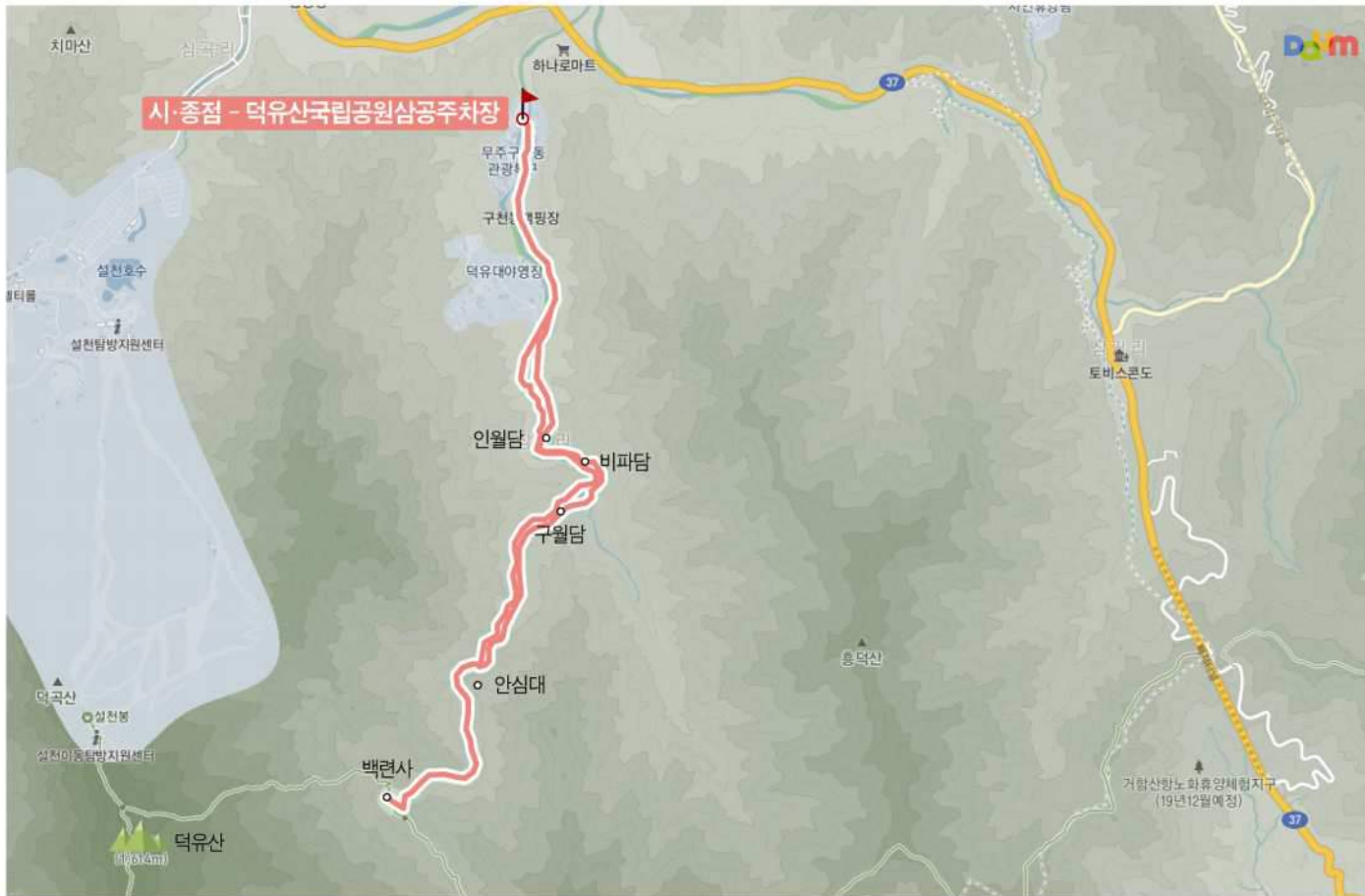
백련사

안심대

구천동은 덕유산 북쪽에서 발원한 물이 학소대, 추월담, 수심대, 수정대, 구천폭포 등 33곳의 절경을 만들어내며 그 구비는 무려 9,000번을 돌아 내려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정보 안내

위험구간 없음

관광안내소 무주군관광안내소

(063-324-2114),

무주군 만남의광장안내소

(063-320-2571)

문의처 무주군청 환경위생과(063-320-2331)

주차장 유무 시종점 주차장 有

## 추천 한마디

걷는 곳마다 절경이고 연신 좋다는 감탄사가 터져나온다.

덕유산국립공원삼공주차장을 출발하여 1.5km 구간, 구천동 어사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널찍한 바위가 인상적인 16경 인월담부터 차례대로 33경 경치의 일부를 만나 볼 수 있다. 선녀가 비파를 뜯으면서 놀았다는 비파담과 월음령과 백련사에서 내려온 물이 합류하는 곳에 위치한 구월담 등 각각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풍경 속을 한동안 걷다 보면 걷는 곳마다 연신 좋다는 감탄사가 터져 나온다. 잠시 속세를 잊어버릴 법한 절경이다.

이어서 만나는 안심대에서 백련사까지는 다소 가파른 오르막길이다. 9,000번의 구비를 다 세지 못하고 33경의 경치를 모두 눈에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여정의 반을 지르는 백련사를 둘러본 후 다시 되돌아간다. 올 때와는 다르게 다리를 건너 반대편으로 넘어가기도 하면서 돌아오는 길이 새로운 길을 걷는 듯 다시 다른 풍경에 압도된다.

## 고도표







# 장수군

- 10 방화동 생태길
- 34 뜬봉샘 생태길
- 35 장수(장안산) 마실길

물이 길게 흐르는 지역이라 장수(長水), 산고수장(山高水長)의 지역으로 무주, 진안과 함께 전라북도의 허파 역할을 하는 청정한 지역이다. 금강 천리의 시작이자 생태문화의 중심지이다. 높은 고도에 위치한 지역답게 일교차가 커 맛 좋은 사과와 오미자가 유명하며 그 외의 농산물도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고려시대부터 장수현으로 명명한 이래 1896년 장수군이 되어 지금껏 내려오고 있으며 남덕유산과 장안산 국립공원 등 유수의 산림환경자원을 자랑한다. 특히 금강의 발원지인 뜬봉샘이 있어 지역명에 대한 유래를 더욱 확실하게 해준다. 작은 샘에서 흐른 물이 천리를 흘러 호남의 젖줄이 되어 서해를 만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 강과 강의 발원지인 장수군이 전라북도에서 가지는 위치

와 의미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전북천리길 장수군 구간은 기존에 장수군이 가지고 있던 명품 트레킹 코스인 백두대간마실길의 구간을 선정, 장수군이 가진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있다.

산과 계곡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태힐링공간이라 할 수 있는 장안산 국립공원과 덕산계곡을 걷는 방화동생태길은 용소와 한국 최초로 가족 휴양지로 지정된 방화동가족휴양촌을 만날 수 있다.

뜬봉샘생태길은 금강의 발원지인 뜬봉샘을 향해 오르내리는 길이다. 뜬봉샘생태공원과 물체험관을 시작하여 오르막을 따라 만나는 뜬봉샘. 태조 이성계는 이곳에서 기도를 하다가 봉황이 날아오르는 것을 보고 대계를 확정했다고

하니 보통 길이 아닌 샘이다.

장수(장안산) 마실길은 '오지'로서 장수군이 가진 청정한 환경과 산세의 그윽함을 보여주는 길이다. 홀로 걷기엔 아까울 정도로 아름다운 숲길은 가을 단풍이 들 때에는 평생 잊지 못할 풍경을 선사한다.

걷기를 통해 생태가 그대로 살아있는 풍경을 만나고 싶다면, 그리고 그 자체로 마음의 번잡함을 잠재우고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싶다면 장수군의 전북천리길 코스를 걸어보자.

결국 인간은 자연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손이 타지 않은 자연은 그 자체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되는 길이다.



핵심노선

# 방화동 생태길

장수군 제1길



용과 신선들의 터전



컨셉  
산들길



길이  
10Km



시간  
4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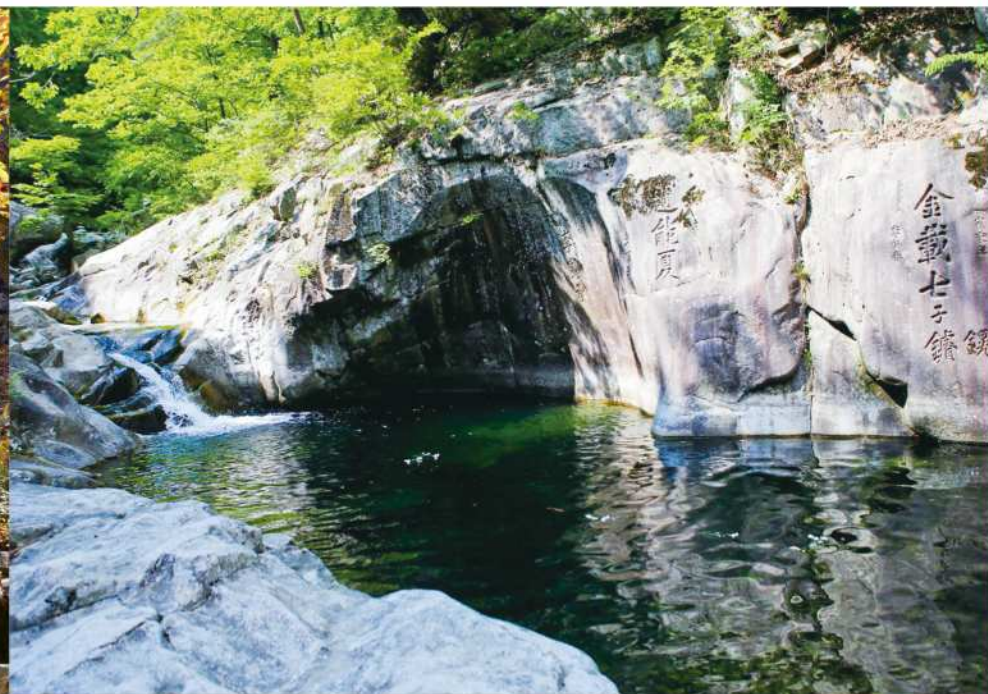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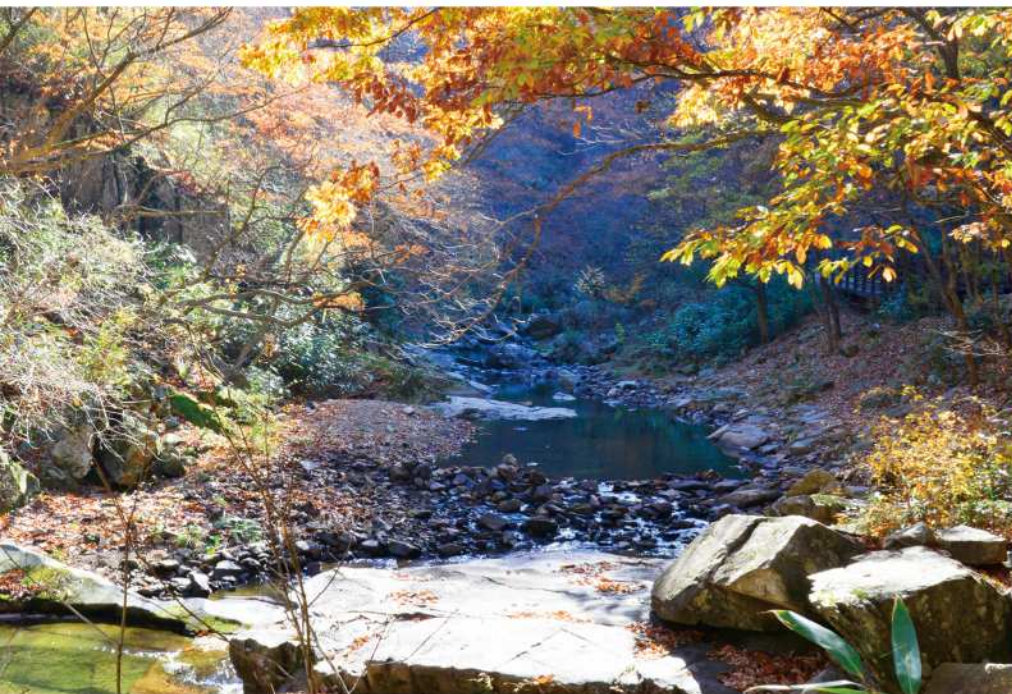
난이도  
보통

시종점 장안산군립공원 주차장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784 : 구주소)

주요 경로

장안산군립공원 주차장 덕산계곡 위, 아랫용소 방화폭포

장안산군립공원 주차장 방화동가족휴가촌 방화동자연휴양림



방화동 생태길은 덕산 계곡의 하류를 걷고 되돌아오는 약 9km의 길이다. 먼저 장안산군립공원 주차장에서 여정을 시작한다. 내리막길을 따라 맑은 계곡, 양쪽을 둘러싼 기암괴석의 절경을 즐긴다. 돌담과 약 600m의 너덜이 깔린 비포장 길을 지나며 계곡은 점점 깊어진다. 어느 순간 너덜이 깔린 비포장 길은 걷기 좋은 나무 테크로 바뀌고 여정은 덕산계곡 속으로 향한다.

천혜의 환경을 가진 장안산은 수많은 보호종과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들의 집이다. 발자국마다 조심스러울수록 그 자연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진다. 청량한 기분으로 덕산 계곡을 걷다 보면 곧 위,아랫용소를 만나게 된다.

윗용소의 너럭바위에는 바둑판이 새겨져 있어 바둑을 두는 신선들의 모습이 상상된다. 아랫용소에서는 깎아지른 절벽과 용소의 깊이에 감탄도 잠시, 이 바위 저 바위에 새긴 이름들을 읽는다. 어떻게 글씨를 새길 수 있었는지 궁금한 마음에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느라 머리가 바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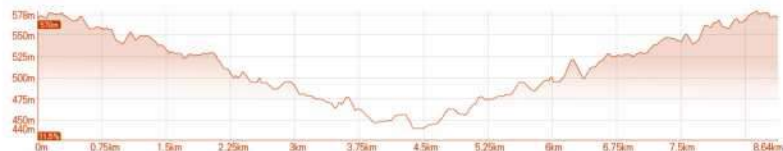
용소들을 지나 건다 보면 계곡을 사이에 두고 길이 두 갈래로 나뉜다. 오른쪽 길은 조금 더 험  
들고 때로 아찔하기도 한 곳이고 왼쪽 길은 비교적 편안하게 구성되어 있는 곳이다. 중간중간  
정점다리를 통해 양쪽을 경험하는 것도 재미있다. 물론 대나무 숲과 소나무 숲이 교차하며 이  
어지는 것, 편백나무 숲이 있어 앉아 쉴 수 있는 것 모두 이 길의 훌륭한 부분이다.

이어서 계곡의 청량한 소리와 모습을 따라가면 방화폭포를 만나게 된다. 110m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는 짜릿하다. 용림제에서 물을 끌어와 조성한 인공폭포이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어 가면 그 장관을 즐길 수 있다.

방화동자연휴양림을 지나 잘 구성되어 있는 방화동 가족휴가촌으로 들어선다. 우리나라 최  
초로 지어진 가족 단위의 휴양지이다. 오토캠핑장과 목재체험관 등이 있어 둘러보기도 좋  
다. 되짚어 돌아가는 길은 반대로 가는 것이 어떨까. 삼림욕을 즐길 수 있게 길이 잘 닦여있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 고도표



## 정보 안내

**위험구간** 없음

**관광안내소** 방화동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063-350-2475),  
든봉샘생태공원(063-353-7002,  
063-350-2550)

**문의처** 장수군청 산림과(063-350-2473),  
장수군청 환경위생과  
(063-350-2548, 063-350-2549)

**주차장 유무** 시종점 주차장 有

**입장료 유무** 유(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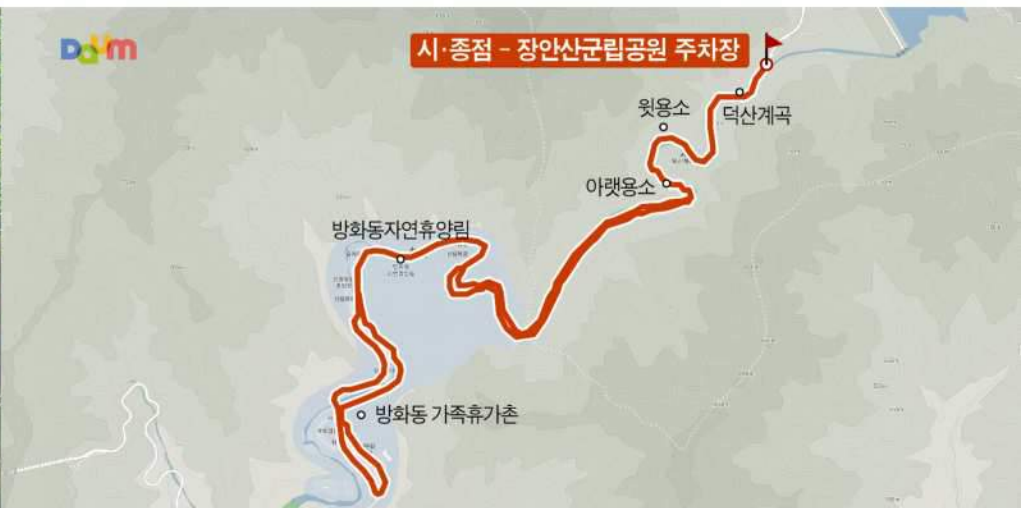
## 추천 한마디

시계절 방문하면 아름다운 절경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듯하다. 구간 내의 다양한 산림욕길, 산  
책로 등을 활용해도 좋다.

방화동 자연휴양림에서 출발시 입장료 있음.

Dolm

시·종점 - 장안산군립공원 주차장





# 튼봉샘 생태길

장수군 제2길

금강의 발원지에서 찾는  
생명의 기운



컨셉  
산들길



길이  
4Km



시간  
2시간



난이도  
쉬움

시종점 튼봉샘 생태공원 (장수군 장수읍 물뿌랭이길 1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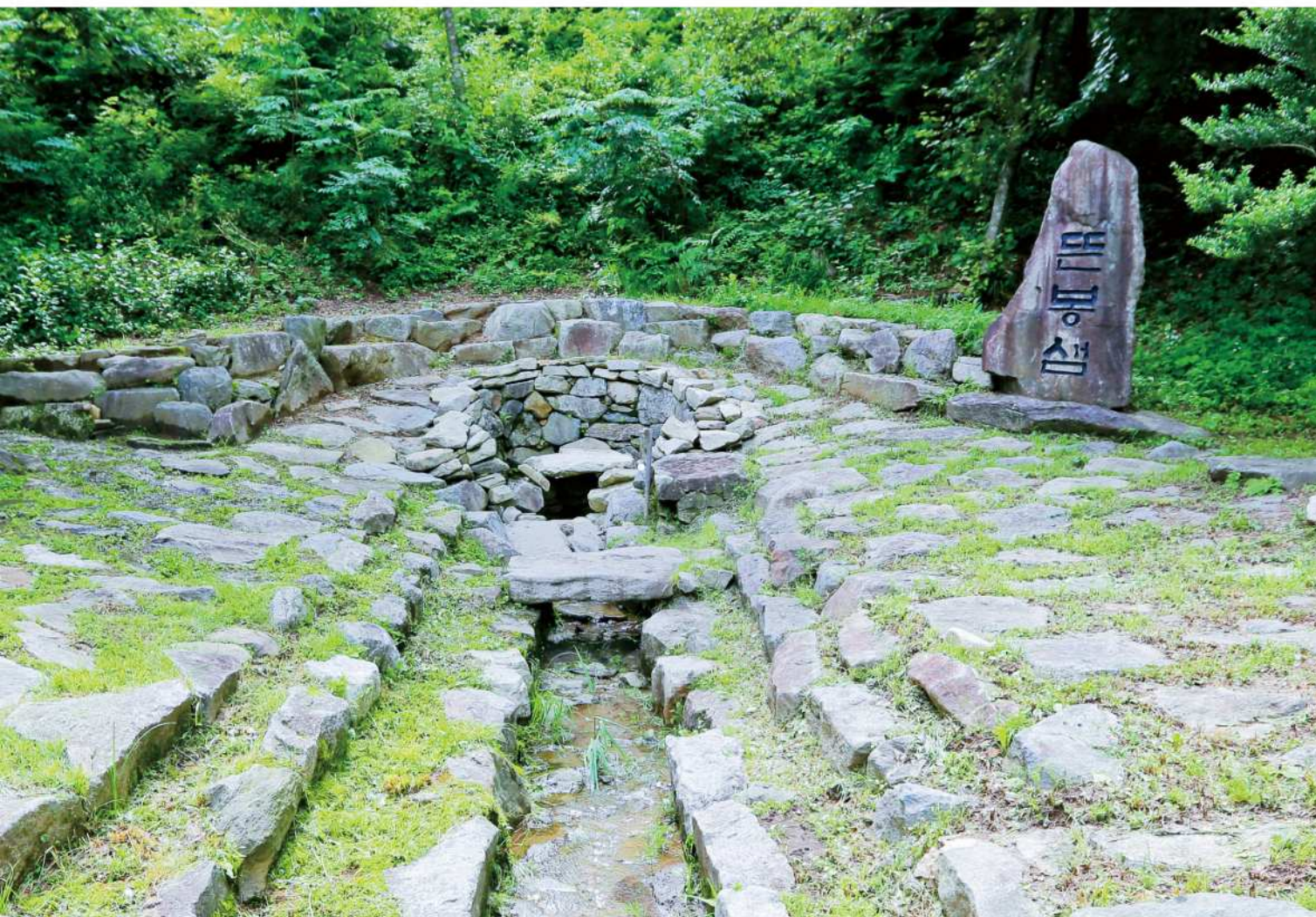
주요 경로

튼봉샘 생태공원

튼봉샘

수분마을

튼봉샘 생태공원



튼봉샘은 금강의 발원지이다. 호남과 충청의 젖줄인 튼봉샘의 이름에는 재미난 전설이 있다. 이성계가 이곳 신무산에서 백일동안 기도를 드리던 마지막 날, 꿈 속에서 오색찬란한 무지개와 함께 봉황이 하늘로 날아오르며 새 나라를 열라는 계시를 했다고 한다. 그때 봉황이 뜬 곳을 찾아가보니 웅달샘이 있어 튼봉샘이라 부르게 됐다는 이야기다.

그 신비한 기운을 직접 경험하러 튼봉샘 생태공원으로부터 발걸음을 시작한다. 최근 생태관광지로 지정되어 지역의 생태학적 보고와 가치에 대해 살펴보는 데 편리하도록 조성 중에 있다. 다채로운 영상과 사진 자료를 통한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는 굉장히 알차다.







둔봉샘 생태공원을 나와 둔봉샘까지가는 산길은 만만찮은 오르막길이다. 공원 뒤 왼쪽 나무 테크를 건너 산을 타고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다. 가는 곳곳 자연의 다양한 소리를 마주하게 된다. 계속 되는 오르막길 속마지막 800m 정도를 걷고 나면 마침내 금강의 발원지 둔봉샘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다. 이 작은 웅덩샘이 천리를 돌아 금강이 되어 서해로 흐른다니 믿기지 않을 따름이다. 다시 발걸음을 옮겨 내려와 돌아가는 길은 오를 때 미처 유심히 보지 못했던 은빛의 실개천이 보인다. 평지에 다다를 때쯤에는 수분마을의 천주교 공소를 찾아 초기 한옥성당의 모습과 순교자의 마음을 되새겨본다. 이후 둔봉샘 생태공원에서 여정을 마친다.

#### ? 정보 안내

**위험구간** 나래울마당에서 임도 사이 풀 관리가 되지 않음

**관광안내소** 둔봉샘생태공원 (063-353-7002, 063-350-2550)

**문의처** 장수군청 환경위생과 (063-350-2548, 063-350-2549)

**주차장 유무** 시종점 주차장 有

#### 추천 한마디

금강사랑 물체험관은 꼭 둘러보자. 다양한 정보와 함께 둔봉샘과 금강이 가진 가치가 풍성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또한 5인 이상 단체예약시 자연환경해설사 동행이 가능하다.

#### 고도표





# 장수(장안산) 마실길

장수군 제3길

썰다리 건너 오지에서  
일상을 잊다



컨셉  
산들길



길이  
11Km



시간  
4시간 30분



난이도  
보통

시종점 시점 연주마을 입구 (장수군 장수읍 덕산로 763-3)

종점 의암 주논개 생가 (장수군 장계면 의암로 558)

주요 경로 연주마을 입구 무드리교 지살가치 계남 장안리 임도 의암 주논개 생가



## 고도표



## 정보 안내

**위험구간** 징검다리가 놓인 네 번의 하천 도강지.  
우천시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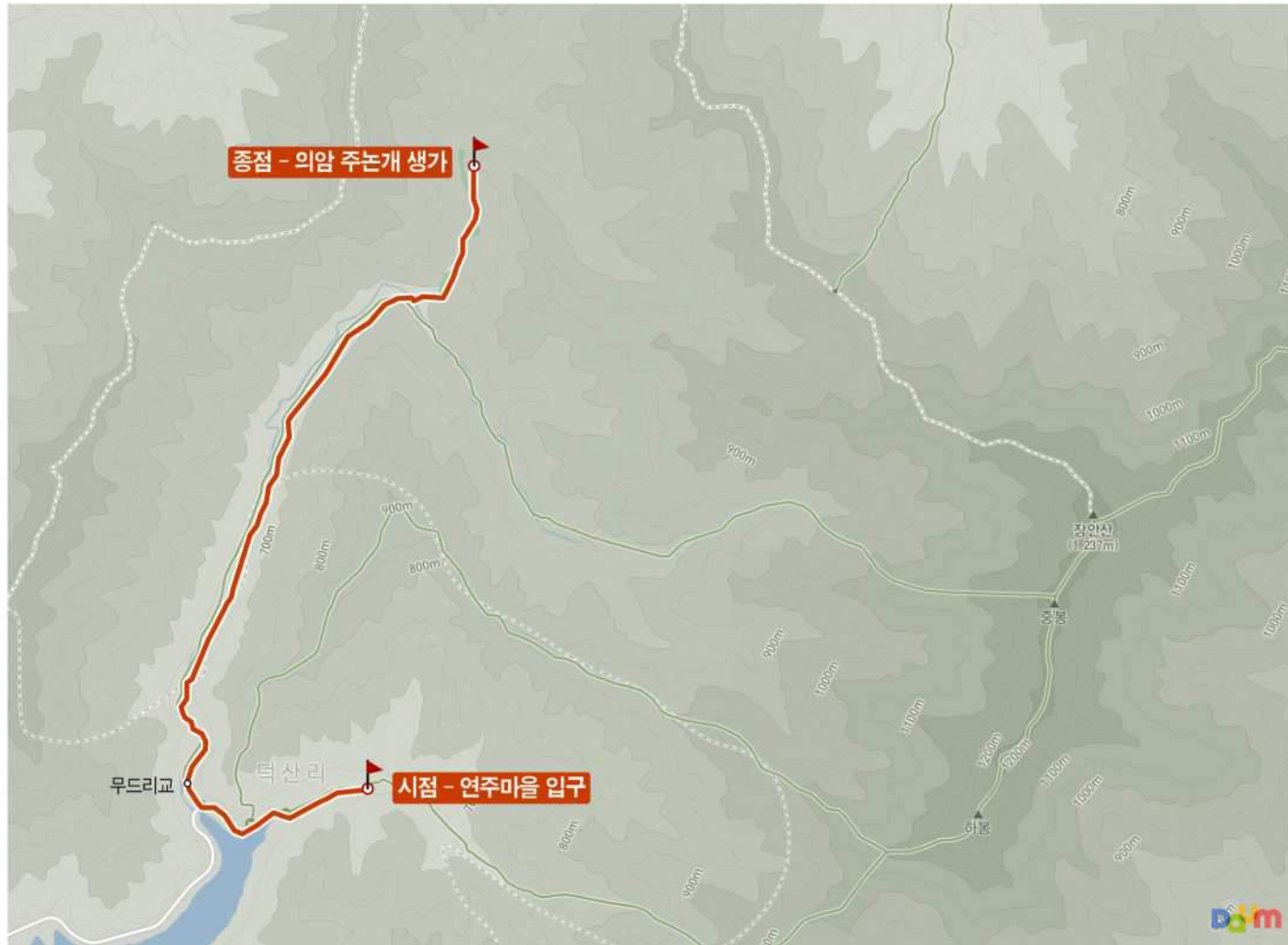
**관광안내소** 장계시외공용버스터미널  
(063-352-1514)  
논개생가지관리사무소  
(063-350-2636)

**문의처** 장수군청 환경위생과  
(063-350-2548, 063-350-2549)

**주차장 유무** 시종점 주차장 無

## 추천 한마디

지실가지에는 인심 넉넉한 산촌집이 몇 채 있다. 풍경 속에서 쉬어가기에도 알맞다.



이 길은 바쁘고 지친 일상을 잊을 수 있는 오지를 향한 여행이다. 장안산 750m 고지에 있어 오지 중에 오지로 손 꼽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연주 버스정류장 앞쪽에 있는 연주마을 입구 삼거리에서 출발하며 표지판을 따라 입구로 들어선다.

이후 무드리교를 건너 아래쪽 덕산계곡과는 다른 분위기의 햇살을 한껏 받은 계곡이 여행자를 반긴다. 시원한 물 소리를 들으며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돌에 손으로 아무렇게 쓴 정감 있는 지실가지 안내판이 보이기 시작하고, 흙을 덮은 쇠다리를 건너고 나서야 지실가지 입구에 도착하게 된다.

“물을 다섯 번 건너야 지실가지”라는 말이 있듯이 2010년에 들어선 후에야 전기가 공급되었다고 한다. 도심을 떠나온 이에게 이곳은 무릉도원 같은 곳일 것이다.

지실가지에서 여정을 반 접고 뒤돌아선다. 나오는 길은 장안산의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을 수 놓고 있다. 특히 산천을 알록달록 물들이는 단풍이 내려앉은 가을에는 여정을 잠시 멈출 정도로 장관을 자랑한다. 의암 주논개 생가에서 충절을 기리며 여정을 마무리한다.





# 임실군

- 11 옥정호 마실길
- 36 옥정호 물안개길
- 37 섬진강길

전라북도의 중심에 위치한 임실군, 백제시대엔 잉hil군(仍勝郡)으로 불렸으며 서기 759년, 신라 경덕왕16년에 임실군으로 지금의 지명을 가지게 되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곳곳마다 산이고 그에 따라 과실이 많은, 예로부터 산림자원이 풍족한 지역이었다. 그래서일까 임실군을 걷다 보면 누구나 '참으로 푸르구나...'하는 감탄사를 터뜨리게 된다.

태조 왕건이 17세때 상이암에서 기도하며 관음보살의 계시를 받고 크게 기뻐하며 그 계곡의 소에 '환희담'이라는 말을 붙였다는 계곡을 비롯하여 곳곳마다 역사적인 이야기가 넘치는 지역이자 수려한 풍경을 자랑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임실군은 인공호수인 옥정호를 토대로 다른 지역과는 차별성을 둔 새로운 관광자원을 가지게 되었다. 거대한 담수호인 옥정호와 임실군의 산세가 어우러지는 풍경은 절경 중의 절경이며 이른 아침 피어오르는 물안개 속 드러나는 산자락은 한 폭의 수묵화와도 같다. 전북천리길 임실군 구간은 이렇듯 환상적인 임실군의 옥정호를 토대로 호수 주변의 풍경과 함께 호남을 대표하는 강 중 하나인 섬진강변을 걸으며 운치와 낭만을 더할 수 있는 코스로 짜여져 있다.

걷는 이는 옥정호마실길을 통해 국사봉, 봉어섬을 비롯한 옥정호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옥정호 물안개길은 좀 더 깊이 옥정호를 들여다보는 코스로 호수와 산이 빛어낸 작품

들 속을 걸으며 신선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섬진강길은 섬진강 상류를 따라 펼쳐지는 마을을 둘러보며 그 속에서 숨겨진 자신의 시(詩)적 감성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길로 인문학코스로도 알려져 있다.

길을 통해 감수성을 풍부히 끌어올리고 영감을 얻기를 바란다면 임실군에서 준비한 전북천리길 코스를 걸어보자.

산과 호수가 빛어낸 붓 터치와 상쾌한 바람과 마을이 인도하는 시상을 통해 누구라도 화가가 될 수 있고 시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옥정호 마실길

임실군 제1길

꿈결인 듯 호수와 소나무향이 감도는



컨셉  
호수길



길이  
7Km



시간  
2시간 30분



난이도  
쉬움

**시종점** 시점 옥정호 주차장 (임실군 운암면 입석리 산 32-9 : 구주소)

종점 어리동 정류장 (임실군 운암면 입석리 847-1 : 구주소)

주요 경로

옥정호 주차장

옥정호 전망데크

요산공원

망향의탑

어리동 정류장

입석마을

양요정

옥정호 마실길은 옥정호의 전망과 소나무 숲이 어우러지는 매력적인 구간이다. 옥정호 주차장을 나와 도로를 따라 내리막길을 걷는다. 이 때 곧 전망데크에 닿게 되는데, 바로 옆 옥정호 물안개길 안내판을 따라 계속 따라 내려간다.

이윽고 봉어섬이다. 봉어섬은 이른 아침 또는 비 내리는 날 온다면 물새들이 수면을 박차는 모습과 함께 은은한 물안개 빛을 감상할 수 있어 좋다.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걷는 이 구간은 줄참나무숲을 따라 로맨틱하기 그지없다.







건다 보면 요산공원 앞, 옥정호의 중심을 향해 길게 뻗은 독특한 언덕을 만난다. 이곳에서 잠시 멈추어 옥정호가 불어넣어준 바람을 가득 마셔본다. 여정은 계속해서 망향의 탑으로 향한다. 수몰된 마을의 세대주 이름을 적어놓은 망향의 탑 앞에서 이런 풍경을 만나게 된 것에 감사를 되새긴다.

뒤이어 맞이하는 양요정은 왜란 당시 선조와 함께 피난했던 최응숙이 내려와 살며 지었다는 정자다. “인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지는 물을 좋아하네”지만 최응숙은 둘 다 좋아하므로 양요정이라 이름 지었다 한다. 벽면 그림 속 선조의 어가 호위 행렬을 볼 수 있다.

반도를 휘돌아 좁은 목의 도로를 건너 입석마을로 들어서면 길은 둘로 나뉜다. 한쪽은 천천히 마을 뒤쪽 길을 따라 산으로 오르고, 나머지 한쪽은 옥정호수를 따라 나무 테크를 걸은 후 산으로 오른다. 난이도는 후자가 더 어렵지만 옥정호 주변을 따라 조성된 갈대숲과 기암괴석을 보며 호젓하게 걸을 수 있다.

## 고도표



아름다운 나무 사이를 따라 약 300m 고도의 산을 오른다. 옥정호 마실길에서 가장 숲이 차는 구간이지만 교통은 잠시, 소나무 숲의 향기가 가득한 명품 등산로를 통해 정상을 밟으면 국사봉 일대의 산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이 톡톡히 그 보답을 해 준다.

그대로 능선을 따라 어리동마을로 내려온다. 어리동 정류장에서 물 안갯속 솔잎의 꿈인 듯 아른거렸던 여정을 마친다.

## 정보 안내

- 위험구간** 국사봉주차장에서 화장실에 이르는 데크가 썩어 주저앉고 있음
- 문의처** 임실군청 환경보호과(063-640-2951)
- 주차장 유무** 출발지 주차장 有

## 추천 한마디

옥정호 물안개길과 연계해 걸어도 좋다. 이른 아침의 물안개 속 풍경은 꼭 한 번 체험해 보길 권한다.





# 옥정호 물안개길

임실군 제2길

이른 아침 윤슬이  
스르르 빛나는

컨셉 호수길   길이 12Km   시간 4시간 30분   난이도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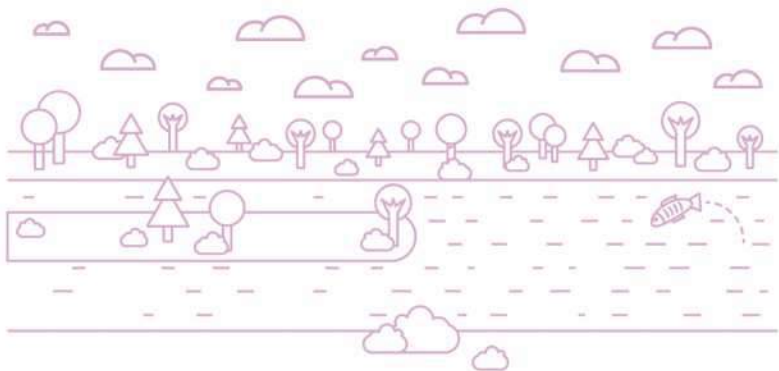
시종점 시점 둔기 정류장 (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374-1 : 구주소)  
종점 용운 정류장 (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산52-2 : 구주소)



옥정호 물안개길은 마암리의 둔기 정류장을 출발해서 자연산장을 지나 용운리 방향으로 섬진강을 거슬러 오르며 호수 북쪽 12km를 뒀다. 거리도 만만찮지만 산의 경사가 급하며 일단 들어서면 간식과 식사를 파는 곳을 찾기 힘들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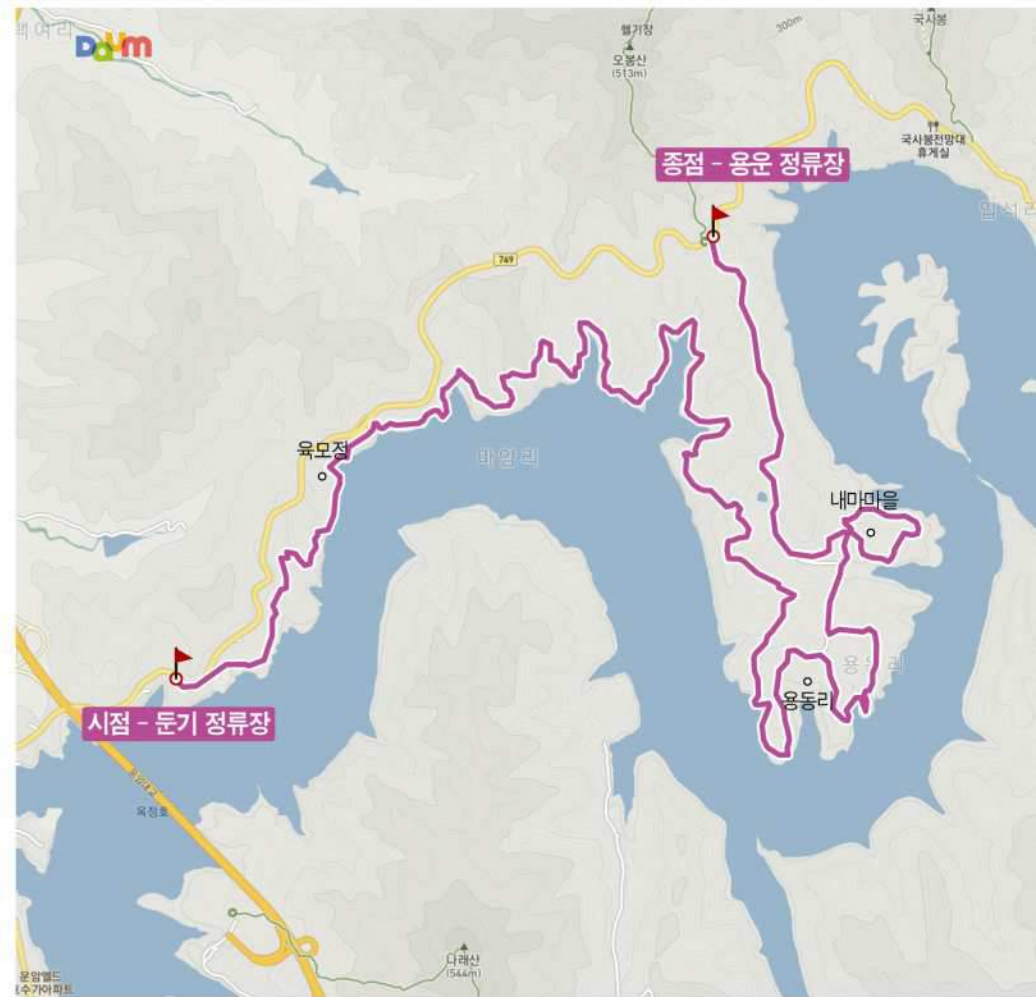






여정은 한없이 옥정호에 가까워진다. 되도록 새벽부터 여정을 시작하는 게 좋다. 아침 수면에서 피어오르는 자욱한 물안개 사이로 호수를 볼 때 가장 아름답고 신비롭다. 걷는 동안 물안개는 서서히 걷히고 수면에 윤슬이 반짝일 것이다. 걸음걸음 옥모정에 닿으면 옥정호를 더 넓게 볼 수 있다. 호수를 호젓이 바라보고 있다면, 거대한 크기에 압도되며 고즈넉한 풍경에 매료된다.

이어서 운암정에 들러 한 숨 고른 뒤, 못지골을 향해 걷는다. 이때 산을 따라 걷는 구간은 한적한 농촌과 녹차밭을 품고 있다. 시원한 바람과 어울리는 이 풍경은 자신을 돌아보기 좋은 무대를 만들어 줄 것이다. 용동마을 지나 내마마을이다. 내마마을에서는 봉어섬의 끝에서 점점이 수면 위로 솟은 기암괴석들을 만나볼 수 있어 마치 산수화 속에 들어온 듯한 풍경을 걷는다. 곧 용운 정류장에 도착한다. 몸은 돌아왔지만 옥정호의 잔잔한 수면에 홀린 정신은 쉬이 돌아올 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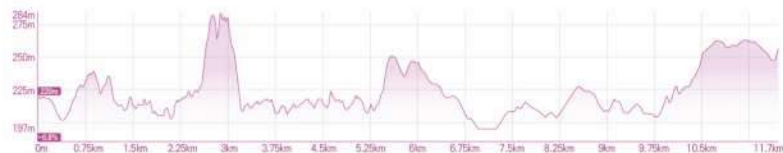
## 🔍 정보 안내

**위험구간** 몇 곳에 쓰러진 나무 방치됨  
에초를 비롯해 노면관리가 되지 않아  
길이 방치되는 곳이 생겨남  
**문의처** 임실군청 환경보호과 (063-640-2951)  
**주차장 유무** 시종점 주차장 有

## 👤 추천 한마디

옥정호마실길과 연계해 걸어도 좋다.

## 📈 고도표





# 섬진강길

임실군 제3길

발 닿는 풍경마다 시가 흐르는



컨셉  
강변길



길이  
11Km



시간  
4시간



난이도  
보통

**시종점** **시점** 물우경로당 (임실군 덕지면 물우1길 40-6)

**종점** 구담마을회관 (임실군 덕지면 천담2길 287-4)

**주요 경로**

물우경로당

월파정

진외마을

천담마을

구담마을회관



강변 근처에 있어 물 걱정이 끊이지 않아 물우리라고 불리는 마을.  
그래서 늘 제를 지냈다는 당산나무를 둘러보며 물우 경로당에서 여정을 시작한다.

바로 앞 월파정이다. 월파정은 물우리에 거주하던 밀양 박씨 사람들이 선조의 덕을 기리고  
자 1927년에 지은 정자이다. 잠수교를 지나 건너편 독으로 올라서면 섬진강 자전거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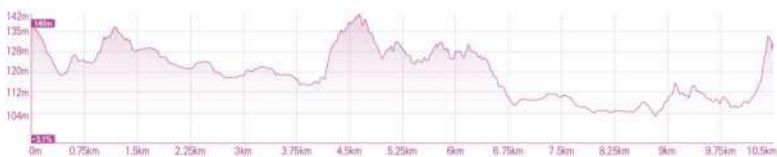




3km 정도 걸었을까, 섬진강 시인으로 불리는 김용택이 나고 자란 진미마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시 한 구절을 읊으며 기념 공원을 둘러본 뒤마을을 벗어난다. 2.5km를 더 걸어서 강의 바닥까지 닿은 바위 절벽을 만난다. 수면 위로 불쑥 불쑥 올라와있는 검은 바위와 양쪽에 높게 솟은 산 줄기는 이때껏 보지 못한 감탄을 자아낸다.

이제 천담마을에 도착하여 구담마을까지 약 3km는 섬진강길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간이다. 연둣빛에서 짙은 파란빛까지 다채로운 물빛과 지천의 매화는 한 폭의 동양화로 다가온다. 때를 잘 맞추면 홍매화와 청매화가 어울려 피어 있는 모습 또한 볼 수 있다. 영화 '아름다운 시절'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구담마을의 구담마을회관에서 섬진강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에 취했던 내 시절을 마무리해본다.

## 고도표



## 정보 안내

위험구간 없음

문의처 임실군청 문화관광치즈과  
(063-640-2341),  
임실군청 환경보호과  
(063-640-2951)

주차장 유무 시종점 주차장 無

## 추천 한마디

임실군에서 진행하는 '섬진강 시인의 길 따라 걷는 인문학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올해는 '김용택 시인과 함께하는 인문학여행'이 주제로 선정되었다.





# 순창군

- 12 장군목길
- 36 강천산길
- 39 선비의 길

백제시대에는 도실군(道實郡), 통일신라시대에는 순화군(淳化郡)으로 불렸던 순창군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순창현이 된 이후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순창군으로 내려오고 있는 지역이다.

전북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려한 산세 속에 위치해 강천산 국립공원을 비롯, 내장산 자락 등 트레킹의 명소가 자리하고 있다. 또한 섬진강 상류에 속한 지역으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지질학적 암석이 어우러져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순창이 널리 알려진 것은 한국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 때문일 것이다. '순창 고추장'은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국민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인지도와 손

맛으로 인해 '순창 한정식'은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한 상으로 정평이 나 있다.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오염원이 없는 환경은 전국에서도 이름난 장수(長壽)지역으로 순창군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전북천리길 순창군의 구간은 걸으면 걸을수록 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길들로 이루어져 있다.

장군목길에서는 용굴산을 따라 섬진강변을 걷는다. 수려한 강변의 기암괴석은 순창군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함이다. 요강바위와 일대의 풍경에서 펼쳐지는 장관은 눈을 의심케 한다.

강천산길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강천산을

따라 다양한 폭포와 계곡을 만나는 길이다. 맨발로 산길을 걸으며 힐링할 수 있는 구간도 있다.

선비의 길은 선비의 멋이 살아있는 고장으로 알려진 순창군이 배출한 하서 김인후(조선시대 인종의 스승)선생의 훈몽재를 따라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생가를 지나며 대를 이어 내려온 선비의 기개를 엿볼 수 있다.

섬진강을 따라 즐기는 산과 들, 그리고 선비의 기개. 순창군의 길은 독특한 매력에 있다. 강변에 단풍잎 흐를 때 순창군의 길을 걸어보자. 그 길 위에선 누구라도 선비가 될 수 있다.





핵심노선

## 장군목길

순창군 제1길

장구 허리처럼 휘몰아치는 물과 독특한 바위



캠핑  
강변길



길이  
9Km



시간  
3시간 30분



난이도  
쉬움

시점인 구미교에서 발걸음을 시작한다. 장군목길은 북쪽으로 용굴산, 남쪽으로 벌동산 등 섬진강을 둘러싸고 있는 산과 강 속 여기저기 드러난 기암괴석들로 사계절 내내 충분히 경치를 즐기며 걸을 수 있다.

시종점 구미교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30-12 : 구주소)



수면이 흰히 비치는 강변을 따라 마실숙박단지를 향해 나아간다. 평소 캠핑을 즐긴다면 섬진강 상류를 따라 트레킹을 즐긴 후 마실숙박단지에서 1박을 해도 좋을 것이다. 이어지는 길은 임산부가 걷기 좋은 길이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자전거 겸용으로 잘 포장된 길은 걸음이 한결 수월하다. 더불어 천혜 자연이 주는 물과 산의 풍경은 더 나은 태교를 선물하지 않을까.





길은 석문을 지나고 흔들다리를 건너면 요강바위가 눈 앞에 펼쳐진다. 요강바위에서 일출 보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영험한 모습으로 근처 마을에서 수호신으로도 섬기고 있다. 이어서 위용을 뽐내는 큰 바위들이 오랜 시간 물에 씻기고 깎여 여러 모습으로 드러난다.

주변의 기암괴석들은 영겁에 가까운 시간 동안 물에 깎여 어디에서도 쉽게 보기 힘든 모습을 자랑한다. 바닥에 있는 암반은 섬진강 물을 장구 허리처럼 잘록하게 비틀면서 흐르게 한다. 수면 위로 슬쩍 드러난 암반을 휘감아 흐르는 물이 장관이다. 여름에는 암반에 앉아 물에 발을 담그기에 좋고, 겨울에는 눈 내려앉은 암반 사이 유리 같은 깨끗한 물을 보기에 좋다.

지금까지 걸은 길은 이제 반대편 독을 따라 하류로 간다. 걷다 보면 만나는 용굴산 치유의숲은 각종 나무와 꽃을 심어놓아 눈이 즐겁게 산책하기 좋다.

용굴산 치유의숲 주차장이 끝나는 곳에서 섬진강 수면으로 내려가 튼튼한 징검다리를 건너 마실숙박단지 앞 독으로 올라 아까 걸었던 길 위에 다시 설 수 있다. 되돌아오는 길은 항상 쉽다. 그러나 지나는 길의 풍경을 눈과 마음에 가득 담았으니, 시집이자 종점 구미교로 돌아오며 어쩐지 몸과 마음이 가뻔해진 것을 느낀다.

#### 고도표



#### 정보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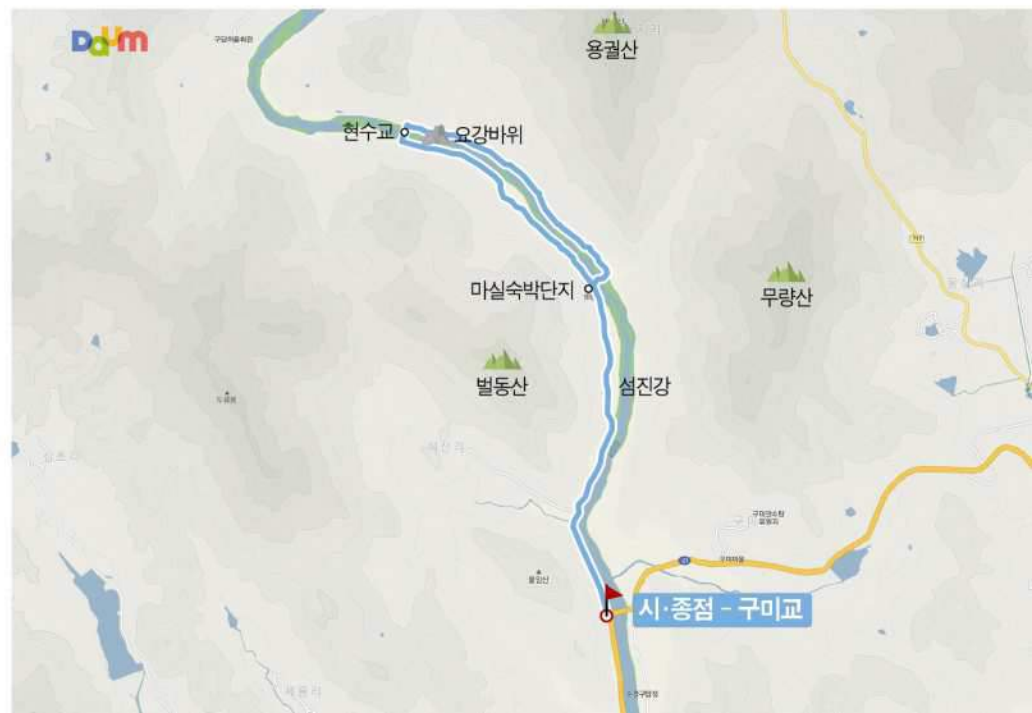
위험구간 없음

문의처 순창군청 환경수도과  
(063-650-1722)

주차장 유무 시종점 주차장 有

#### 추천 한마디

용굴산 및 코스 주변 산들마다 산책로와 등산로 등이 있다. 연계하여 트레킹을 즐겨도 좋다.





# 강천산길

순창군 제2길

압도적인 자연의 모습 앞에 말을 잇다

시종점 강천산군립공원 매표소 (순창군 팔덕면 강천산길 97)

주요 경로

강천산군립공원 매표소

병풍폭포

강천사

현수교

강천산군립공원 매표소

구장군폭포

컨셉  
산들길

길이  
7Km

시간  
2시간 30분

난이도  
쉬움

강천산군립공원은 전국 최초의 군립공원으로 순창이 자랑하는 천혜 자연이다. 강천산길의 여정은 강천산군립공원 매표소에서 시작된다. 들어오자마자 흐르는 골짜기는 산의 함몰로 생긴 지역으로, 입구로 들어서면 경관부터 설렌다. 얼마 걷지 않아 마주치는 병풍폭포부터 마지막 구장군폭포에 이르기까지 압도적인 자연 앞에 생각도, 말도 잊게 된다. 특히 병풍폭포는 병풍바위를 비단처럼 흐른다는 이야기를 실감케 한다.







이어서 강천사까지 가는 길은 폭신한 흙길로 조성되어있다. 안정된 길 옆은 계속하여 다양한 계곡들이 나를 맞이하고, 물에 첨벙 뛰어들고 싶은 기분을 가라앉히며 잘 다듬어진 세죽장에서 마음을 달래본다. 이 후 숲과 한 몸이 된 듯한 기쁨 있는 강천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강천사는 887년 도선국사가 창건한 절로 천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는다.

아찔한 높이와 최고의 전경을 자랑하는 현수교 구름다리를 지나 드디어 구장군폭포를 만나게 된다. 커다란 암벽에 세 줄기의 물줄기가 쏟아지는 풍경이 매우 장관이다. 여정은 다시 강천산군립공원 매표소로 돌아온다. 형용할 수 없는 자연의 찬상이 모든 고뇌를 잊게끔 이르게 된다.

#### 고도표



#### 정보 안내

**위험구간** 없음  
**관광안내소** 강천산군립공원 매표소  
 (063-650-1672)  
**문의처** 순창군청 환경수도과  
 (063-650-1722)  
**주차장 유무** 시종점 주차장 有  
**입장료 유무** 유(有)

#### 추천 한마디

장군봉, 선녀봉, 운대봉 등 주변으로 등산을 할 만한 산들이 많으니 도전해보는것도 좋다. 가을이면 단풍이 환상적이다.





# 선비의 길

순창군 제3길



현재에서 따라가 보는 선비의 시간



컨셉  
산들길



길이  
6Km



시간  
2시간 30분



난이도  
쉬움

시종점 시점 훈몽재 (순창군 쌍치면 둔전2길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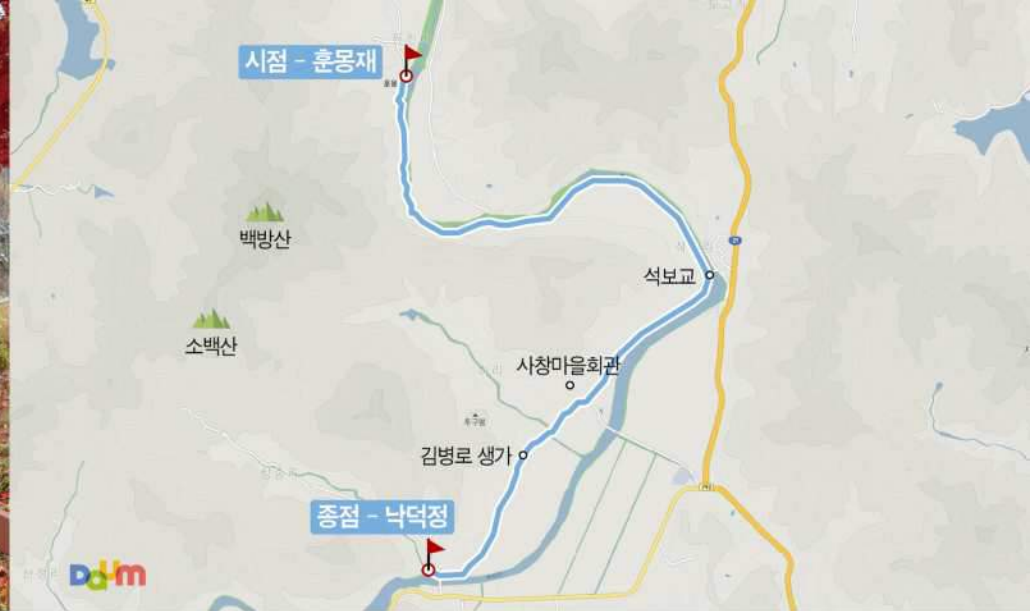
종점 낙덕정 (순창군 북흥면 상송리 47-2 : 구주소)

주요 경로 훈몽재 농로갈림길 석보교 사창마을 김병로 생가 낙덕정

선비의 길은 세대를 초월한 선비의 기품을 느끼며 섬진강 따라 유유자적 선비의 마음과 걸음으로 걸을 수 있는 길이다. 초여름에는 이팝나무 군락이 있어 흰꽃바다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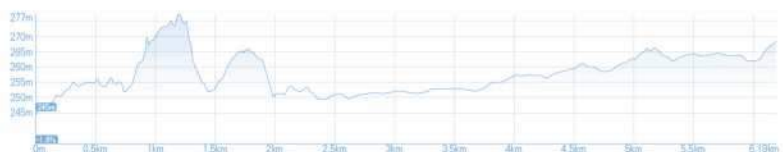


여정 초반에 만나는 훈몽재는 조선시대 인종의 선생인 김인후가 지은 강학당이다. 전쟁 중에 불타버린 것을 최근에 들어 복원했다. 훈몽재는 정철을 비롯하여 조희문, 양자정, 변성온 등 당대의 학자들을 배출한 해동 유학의 산실이었다. 또한, 30명이 앉을 수 있는 바위인 대학암에는 송강 정철의 진필이 새겨져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자.

삼거리에서 사창마을로 이어지는 길을 꼭 따른다. 옛 관곡을 관리하던 마을임을 짐작케 한다. 이윽고 김병로 생가를 만난다. 김인후의 15대손인 김병로는 대한민국의 초대 대법원장이었다. 담장을 수놓고 있는 벽화에는 “법관은 굶어죽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야한다”라는 김병로의 어록이 적혀 있다.

이어서 언덕을 올라 낙덕정에 닿는다. 후손들이 김인후가 강론과 담소를 즐기던 이곳에 그를 기리고자 만든 정자이다. 이곳 여정을 마무리하니 말 그대로 완벽한 선비의 길을 현재의 시간을 넘어 걸었다고 하겠다.

## 고도표



## 정보 안내

**위험구간** 훈몽재 후 데크길에 일부지점 흩슬림.

**관광안내소** 훈몽재(063-652-0076)

**문의처** 순창군청 환경수도과  
(063-650-1722)

**주차장 유무** 출발지 주차장 有

## 추천 한마디

가을의 풍경이 아름다운 길이다. 인근의 추월산을 경계로 전남 담양과 이어지니 여행 동선을 짜기에 좋다.







# 고창군

- 13 운곡습지생태길 1코스
- 40 운곡습지생태길 2코스
- 41 고창읍성길

고창군의 역사는 전라북도의 다른 시/군과 비교해도 상당히 특이하다.

백제시대에는 '모량부리현'으로 불렸다가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16년에 고창현이 되었다. 당시에는 현재의 전남 영광군인 무령군의 영현이 되었고 이후 고려시대에는 고부군의 영현이 되었다. 어디에 속해있었어도 그 군의 중심지였던 셈이다.

조선시대에는 나주진관에 소속되었다가 고종 통치시기에 이르러 군으로 승격, 전라남도에 속했다가 1907년 다시 전라북도에 속하면서 1914년 무장, 흥덕을 통합하였고 1955년 이후 지금의 1읍 13면의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 서해와 닿아있어 너른 갯벌을 즐길 수 있으면서도 내장산 국립공원, 선운산 도립공원을 비롯, 내륙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통해 또 다른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고장이 고창군이다.

고창읍성을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였던 공음면, 청보리밭으로 유명한 학원농장 등 다양한 볼거리, 체험 거리가 있으며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 군락(고창고인돌공원)과 운곡습지도 만날 수 있다. 군 전체가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될 만큼 아름답고 때 묻지 않은 환경을 자랑하는 곳이기도 하다.

전북천리길 고창군 구간은 저수지 조성으로 사람들이 떠나간 마을에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레 습지가 조성되면서 자연의 재생력을 확인할 수 있는 운곡습지를 비롯 문화재로 지정된 고창읍성의 성곽길을 걷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생태계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습지, 그것도 사람이 거주하던 곳이 자연의 회복력을 통해 다시 생태계 속으로 들어가는 현장을 볼 수 있다. 그 복원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인간을 느껴보

자. 세 번 돌면 무병장수한다는 고창읍성길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성곽길이다. 그러나 한 번만 돌아도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매우 보람찬 길이다.

다양한 자원을 가진 고창군, 그 매력을 열어젖히는 관문인 전북천리길 고창군 코스로 지금 떠나보자.



핵심노선

# 운곡습지생태길 1코스

고창군 제1길

태초의 자연 속 깨닫는  
나의 가치



컨셉  
산들길



길이  
5Km



시간  
1시간 30분



난이도  
쉬움

시종점 시점 운곡습지탐방안내소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668 : 구주소)

종점 운곡습지홍보관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180-1 : 구주소)

주요 경로

운곡습지탐방안내소

생태연못

생태동빙

조류관찰대

운곡습지홍보관

소망의 종

위대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운곡습지는 용계, 운곡 등 10개 마을이 이주하면서 방치된 오베이골의 다랑이는 자리에 온갖 동·식물이 되살아나며 만들어졌다. 이 후 자연의 회복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증거가 되었고 랍사르습지로 인정 받게 되었다.

처음 고창고인돌박물관을 지나 고인돌유적지의 입구 운곡습지탐방안내소를 만난다. 안내소에는 늘 안내인들이 있어 습지에 관한 친절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안내소 옆 오르막길을 따라 고개를 넘어 운곡습지를 향해 걷는다. 오르막길의 중간에서 뒤를 돌아보면 고창이 자랑하는 고인돌을 군락으로 볼 수 있다.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고인돌 군락은 전체의 절반 정도인데, 이미 그 크기와 방대함에 감탄하게 된다. 곧 내리막길을 따라 테크가 이어진다. 다랑이논과 집이 있었던 곳이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풍경은 태초의 자연으로 들어선다. 간혹 나타나는 벽과 기둥 역시 이미 자연에 동화되어 있어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얼마 걷지 않아 생태연못과 생태둑병을 관찰할 수 있다. 봄이라면 이제 흔하게 볼 수 없는 개구리알과 도롱뇽알, 여름이라면 노랑어리연과 마주친다. 운곡습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생명들은 참 경이롭다.

테크를 따라 본격적으로 운곡저수지를 만나고, 가장 넓게 보이는 모퉁이에 조류관찰대가 있다. 때를 잘 맞추면 운곡저수지와 운곡습지에 기대어 삶을 살아가는 철새들을 함께 볼 수 있다.

이윽고 소망의 종을 지나 원래 운곡리의 논밭이었던 운곡습지홍보관이 있는 운곡습지생태공원에 도착한다. 종점인 홍보관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이 가지는 자연의 생태학적 가치를 다시 한번 깨우친다.

#### 고도표



#### 정보 안내

위험구간 없음

관광안내소 운곡습지 탐방안내소  
(063-564-7076)

문의처 고창군청 생태환경과  
(063-560-2687, 063-560-2690)

주차장 유무 출발지 주차장 有

#### 추천 한마디

다시 되돌아가는 여정이 지루하다면 바로 운곡습지길 2코스 구간을 이어서 걷는 것도 좋다.





# 운곡습지생태길 2코스

고창군 제2길

습지의 생태 보물을 찾아나서는



컨셉  
산들길



길이  
10Km



시간  
3시간 30분



난이도  
보통



시종점 운곡습지 친환경주차장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212 : 구주소)

주요 경로 운곡습지 친환경주차장 안덕제 운곡서원 운곡습지홍보관

운곡습지 친환경주차장 수변경관쉼터 용계마을 생태동병 조류관찰대



운곡습지생태길 2코스는 운곡습지 친환경주차장에서 출발, 운곡저수지를 따라 운곡습지의 둘레를 한 바퀴 돈다. 운곡저수지와 운곡습지에는 멸종위기종 수달, 산, 말뚝가리와 천연기념물 붉은배새매, 황조롱이와 다수의 보호종을 비롯 총 84종의 동·식물이 살고 있다.

따라서 여정을 함께하는 길 테크도 폭이 좁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편의가 아니라 운곡습지를 가리는 그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습지의 편의를 우선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습지의 한편을 빌려 걷는 탓에 걸음이 조심스럽다. 완벽한 생태의 회복력을 해치지 않기 위해 자연과 하나가 되어 걷는다.





가시연꽃 군락지인 안덕제를 지나 운곡서원을 지나쳐 다양한 시설로 잘 갖추어진 생태공원의 운곡습지홍보관을 만나게 된다. 가까이에 동양 최대의 고인돌도 있으니 같이 둘러보면 좋을 듯하다. 이윽고 조류관찰대와 생태둘레길을 지나 용계마을에 다다른다. 마을로 가는 구간은 운곡습지의 생태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고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지정되어 기회가 닿는다면 1박을 하며 운곡습지를 더 깊이 알아보는 것도 좋다. 수변경관쉼터에서 긴 여정의 숨을 몰아쉬고, 곧 종점인 운곡습지 친환경주차장에서 마무리한다.

## 고도표



## 정보 안내

**위험구간** 생태둘레길과 저수지조망지 사이 노면 보수와 계단설치 요구됨  
저수지독방과 용계마을 사이 급경사 노면보수 요구됨  
수변경관쉼터에서 탐방안내소 사이 도로변 데크길 예초작업

**관방안내소** 운곡습지 탐방안내소  
(063-564-7076)

**문의처** 고창군청 생태환경과  
(063-560-2687, 063-560-2690)

**주차장 유무** 시종점 주차장 有

## 추천 한마디

다양한 연계가 가능하다. 용계마을 가기 전, 생태연못으로 향해 그대로 운곡습지길 1코스의 역순으로 걸어 고인돌공원을 둘러보아도 좋다.



# 고창읍성길

고창군 제3길



고창읍성 둘레를 지나 과거로 떠나는



컨셉  
산들길



길이  
13Km



시간  
4시간



난이도  
보통

시종점 **시점** 고창읍성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1)

**종점** 고창모양골프연습장 (고창군 고창읍 노동로 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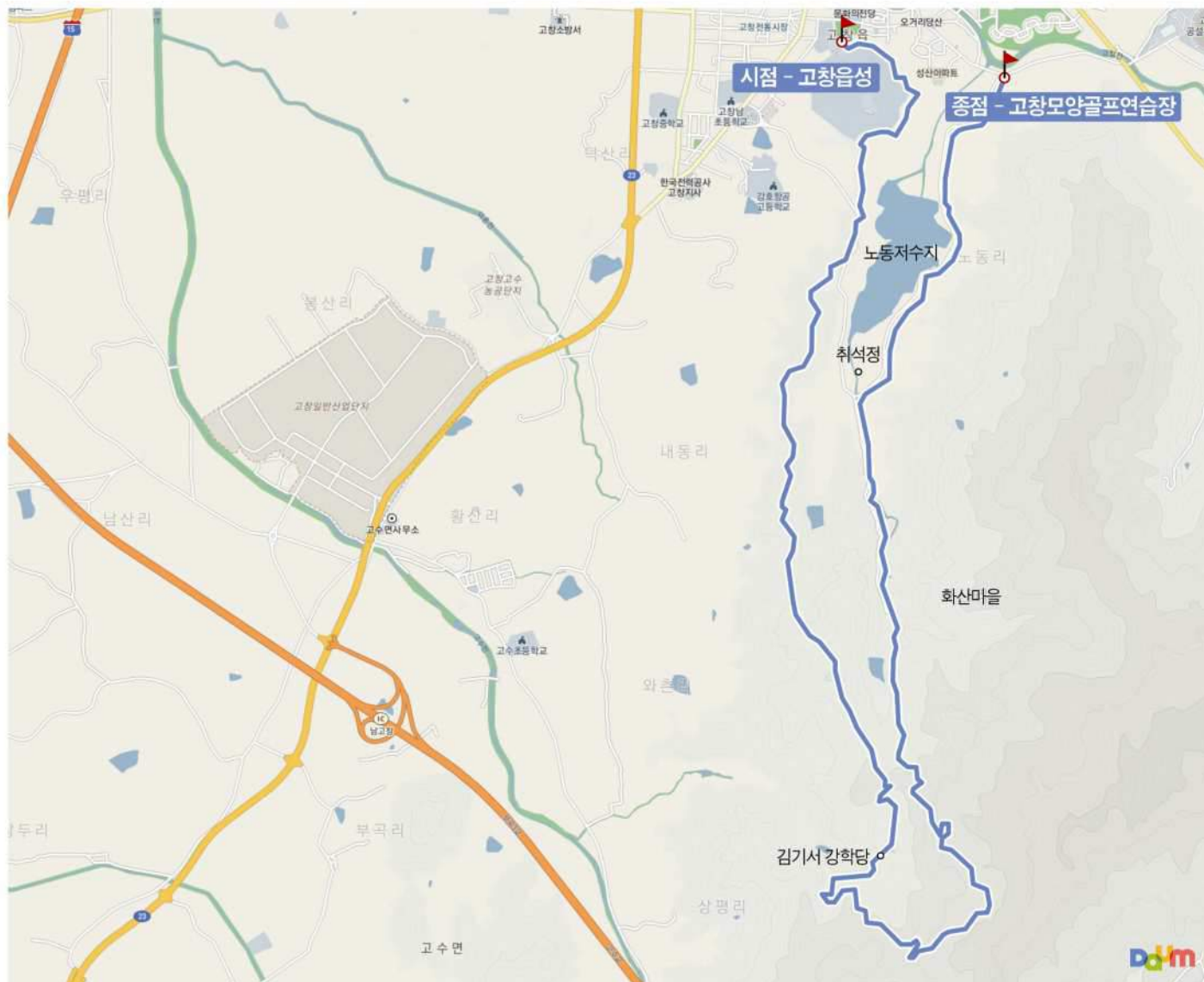




모양성이라고도 부르는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이 이번 길의 시작점이다. 고창뿐만 아니라 호남의 문화를 폭넓게 경험하고 싶다면 읍성 근처 문화·예술시설들을 함께 둘러보는 것도 좋다. 원래 상태에 가깝게 잘 보존된 고창읍성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고창읍성길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도 선정됐다. 정문 왼쪽 잔디밭을 올라서면 성벽을 따라 걷는 순환산책로로 이어진다.

읍성 둘레를 벗어나 왼쪽으로 나가면 경사가 낮고 잘 정비되어 있는 전불길을 만난다. 솔잎으로 가득찬 울창한 숲이 매력있다. 골짜기 물가쪽으로 이어지며 곧 단정한 한옥의 솟을대문이 나타난다. 김기서 강학당이다. 기묘사화에 얽힌 선비 김기서가 세속을 등지고 내려와 후학을 길렀던 곳이다.

길은 크게 돌아 화산마을을 지나 노동저수지로 걷는다. 고창의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그대로 전해진다. 저수지 입구의 취석정은 한국 정자 건축의 독특한 매력을 품고 있다. 계속 걸어서 마주치는 고창모양골프연습장에서 오늘의 여정을 마친다. 고창읍성길 1바퀴를 돌면 다리가 낮고 2바퀴를 돌면 무병장수하고 3바퀴를 돌면 극락승천이라고 한다. 그러니 일단 2바퀴는 걸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 고도표



## 정보 안내

**위험구간** 호동마을~고창천 2.4km 도로구간  
**관광안내소** 고창읍성 (063-560-8067)  
**문의처** 고창군청 생태환경과  
 (063-560-2687, 063-560-2690)  
**주차장 유무** 출발지 주차장 有

## 추천 한마디

가을에 열리는 고창 모양성제 축제에 맞추어 가면 더욱 좋다. 답성놀이와 함께 펼쳐지는 초대형 강강술래도 즐겁다.





# 부안군

- 16 적벽강 노을길(부안 마실길 3코스)
- 42 해남이 술섬길(부안 마실길 4코스)
- 43 모항 갯벌 체험길(부안 마실길 5코스)
- 44 쌍계재 아홉구비길(부안 마실길 6코스)

통일신라시대에는 부령현으로 불리며 고부군에 속했다가 조선 태종14년인 1414년, 부령현과 보안현을 합하여 부안현이 된 이후 고종시기에 부안군이 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부안군.

서해안을 일주한 이에게 서해안의 절경을 모두 모아놓은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아마 십중팔구, 구는 부안군을 꼽을 것이다. 그만큼 부안군은 바다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곳이다. 다른 서해안의 풍경과 다르게 부안군은 갯벌뿐만 아니라 침식, 풍화작용으로 빚어진 다양한 풍경을 가지고 있다. 적벽강과 채석강으로 대표되는 이 해안선의 절경은 서해안 특유의 낙조와 어우러져 환상적인 일몰풍경을 선사한다. 해안선 대부분이 변산반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이다.

게다가 부안군은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

원으로 인증이 되어서 매해 관광객이 늘고 있다. 또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부안지질명소 6개 중 적벽강, 채석강, 술섬, 모항 지질명소 4개는 부안마실길 내에 위치하며 전북 천리길에 소개되는 곳이다. 해안 절경뿐 아니라 자연의 신비로움을 눈앞에서 만날 수 있다. 부안군을 이야기하면서 맛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영양의 보고인 서해안 앞바다에서 잡아 올린 신선한 어패류가 입맛을 돋운다. 백합, 바지락 등 조개를 넣고 쑀 죽과 싱싱한 활어회, 그리고 감칠맛의 절정을 보여주는 곰소항의 다양한 젓갈류는 미식가들을 유혹한다. 전북천리길 부안군 구간은 부안군의 해안선을 따라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빚어내는 절경, 그리고 그 속의 부안군민들의 삶을 만날 수 있는 명품 코스이다. 기존에 알려진 '부안마실길'에서 엄선한 구간으로 하나하나 걸으며 서

해안의 매력을 듬뿍 느낄 수 있다.

적벽강과 채석강을 만날 수 있는 적벽강노을길은 낙조가 아름다운 길로 유명하다. 해남이술섬길도 낙조라 하면 빼놓을 수 없다. 작은 섬인 술섬의 소나무에 태양이 걸리면 세상이 멈춘 듯 풍경 속으로 빨려들어간다. 모항갯벌체험길은 소나무가 늘어진 모항의 아름다운 해안가를 걸으며 감상할 수 있다. 시누대가 만든 터널을 지나고 반듯한 제방길을 따라서 걸으면 왕포마을(도시어부 촬영지)의 어촌 풍경을 느낄 수 있다. 바로 인상적인 쌍계재 아홉구비길이다.

서해안이 가진 맛과 멋, 그리고 그 속의 삶을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길을 꼽으려면 누가 뭐라 해도 전북천리길의 부안군 코스들이다. 한 번도 안 걸은 이는 있어도 한 번만 걸은 이는 없다는 그 명품길로 지금 떠나보자.



# 적벽강 노을길

(부안 마실길 3코스)

부안군 제1길

해변과 함께하는 지질공원의 아름다움



컨셉  
해안길



길이  
10Km



시간  
4시간



난이도  
보통

**시종점** 시점 성천항 (부안군 변산면 성천길 7-59)

종점 해남이공원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길 92)

주요 경로

성천항

해안경비초소

반월마을

적벽강

해남이공원

격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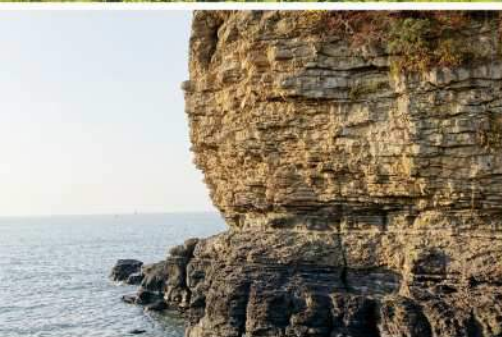
격포해수욕장

고사포 남쪽의 성천항에서 변산반도의 서쪽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는 약 10km의 아름다운 길이다. 서해의 어느 항구보다 한적하고 평화로운 성천항의 끝에서 산기슭의 흙길을 걷는 것으로 여정은 시작된다.

이윽고 나타나는 길에서 이제는 쓰지 않는 해안경비초소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절벽을 따라 돌아있는 철망에는 이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들의 소원들이 나무패마다 걸려있다. 순찰로는 도로 근처의 휴게소를 만날 때까지 약 3km 정도 해안을 따라 구불구불 길게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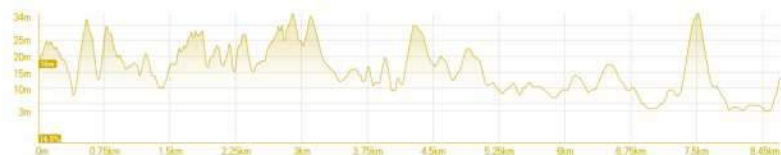
바다를 곁에 가까이 두면서 그저 백사장만 걷지 않는 것은 적벽강 노을길의 특징이자 큰 장점이다. 소나무 숲길, 대나무 숲길, 나무로 만든 흔들리는 다리가 있는 길, 특 트인 바다를 망망히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이 있는 길까지 한 순간도 지루하지 않다. 게다가 걷는 동안 계속 시선이 가는 하섬은 음력 1일과 15일 사리 무렵 약 3일 정도 간조 때 바다가 열리면서 걸어 들어갈 수 있다.





계속 걷다 보면 부안 마실길 관광안내소가 있는 반월마을이다. 이 곳에서 잠시 숨을 돌린 뒤 바닷가인 작은 당사구를 지난다. 약 6km 지점에서 드디어 적벽강 노을길의 주인공을 만난다. 바로 국가지정 명승 13호, 전라북도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적벽강과 채석강이다. 바닷속으로 가장 멀리 돌출한 높은 절벽은 해안 절경의 짜릿한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다. 근처서 해를 다스린다는 계양할미를 모시는 수성당도 함께 있어 유채꽃이 피는 시절 방문하면 좋다.

#### 고도표



아름다운 경관을 뒤로하고 거포해수욕장이 보이기 시작한다. 1박이 아니라 종일 꼬박 걷는 여정을 계획했다면 거포해수욕장에 다다를 때쯤 서해로 내려앉은 태양을 볼 수 있다. 한국 최고라고 해도 좋을 장엄한 낙조 앞에서 누구도 쉽게 말을 잊지 못한다. 거포해수욕장의 백사장이 끝나는 곳에서 언덕의 오르막길을 타고 닭이봉 언덕을 지나면 거포항까지는 지척이다. 거포항 끝의 해남이공원에서 여정을 마친다.

#### 정보 안내

**위험구간** 없음  
**관광안내소** 반월안내소(010-3650-1310)  
**문의처** 부안군청 환경과(063-580-4442)  
**주차장 유무** 도착지 주차장 有

#### 추천 한마디

적벽강 노을길(부안 마실길 3코스)과 연계하여 걸어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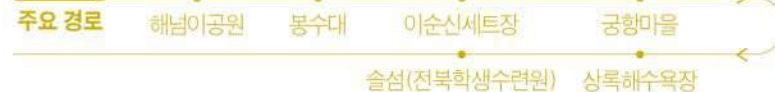
# 해님이 솔섬길 (부안 마실길 4코스)

부안군  
제2길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태양의 춤

**시종점** 시점 해님이공원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길 92)

**종점** 솔섬(전북학생수련원) (부안군 변산면 변산로 3318)



	<b>컨셉</b> 해안길		<b>길이</b> 6Km
	<b>시간</b> 2시간 30분		<b>난이도</b> 쉬움

해님이 솔섬길은 적벽강 노을길과 이어지는 구간이다. 솔섬까지 아름다운 풍경에 한껏 녹아들 수 있다. 해님이공원 오르막길을 오르면 동백나무, 사철나무, 호랑가시나무, 후박나무 등 따뜻한 바닷가 지역 특유의 식생이 여정의 시작을 반긴다.

걸음은 가파른 능선의 봉수대로 향한다. 탁 트인 경관으로 보아 해상의 적을 관찰하기에 최적의 위치였을 것이다. 이어서 도착하는 이순신 세트장은 드라마 속 전라 좌수영을 무대로 만든 곳이다. 동헌과 내아 등의 건물과 함께 망루도 잘 보존되어 보는 재미를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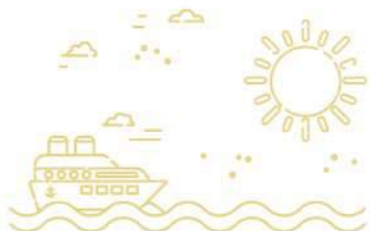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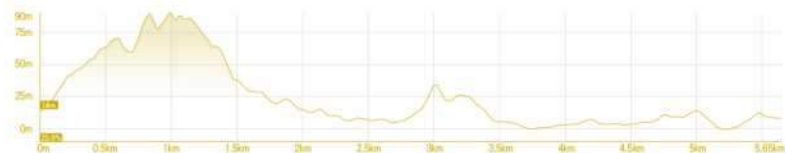


이어서 닿는 궁항마을은 낚시와 아기자기한 마을로 유명하다. 바쁘게 오고가는 어선들, 바다에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는 사람들과 킁킁마다 귀여운 조소 작품이 묻어나는 담벼락까지 이 곳을 구경하는 즐거움도 쏙쏙하다. 곧 상록해수욕장을 지나 술섬이 보인다. 여정이 마무리되어 간다는 뜻으로 아쉬운 마음이 앞선다. 부안을 넘어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술섬의 낙조를 보면서 마음을 달랜다.

종점인 전북학생수련원 뒤쪽의 수락폭포를 향한다. 100m가 넘는 높이에서 물이 떨어지며 웅장한 소리를 낸다는 폭포를 감상하며 바위 절벽의 위용을 감상해본다.



#### 고도표



#### 정보 안내

위험구간 없음  
 관광안내소 반월안내소(010-3650-1310)  
 문의처 부안군청 환경과(063-580-4442)  
 주차장 유무 시종점 주차장 有

#### 추천 한마디

적벽강 노을길(부안 마실길 3코스)과 연계하여 걸어도 좋다.  
 썰물 때는 술섬 바닷길이 열리니 참조하면 좋다.



# 모항 갯벌 체험길 (부안 마실길 5코스)

부안군  
제3길



살아 숨 쉬는 갯벌과 생명들의 기운



컨셉  
해안길



길이  
5Km



시간  
2시간



난이도  
쉬움

**시종점** 시점 솔섬(전북학생수련원) (부안군 변산면 변산로 3318)

종점 모항갯벌체험장 (부안군 변산면 모항길 107)



해넘이 솔섬길과 이어지는 구간이다. 변산반도를 두르고 있는 서해 남쪽 5km를 걷는 길은 솔섬(전북학생수련원)에서 떠날 채비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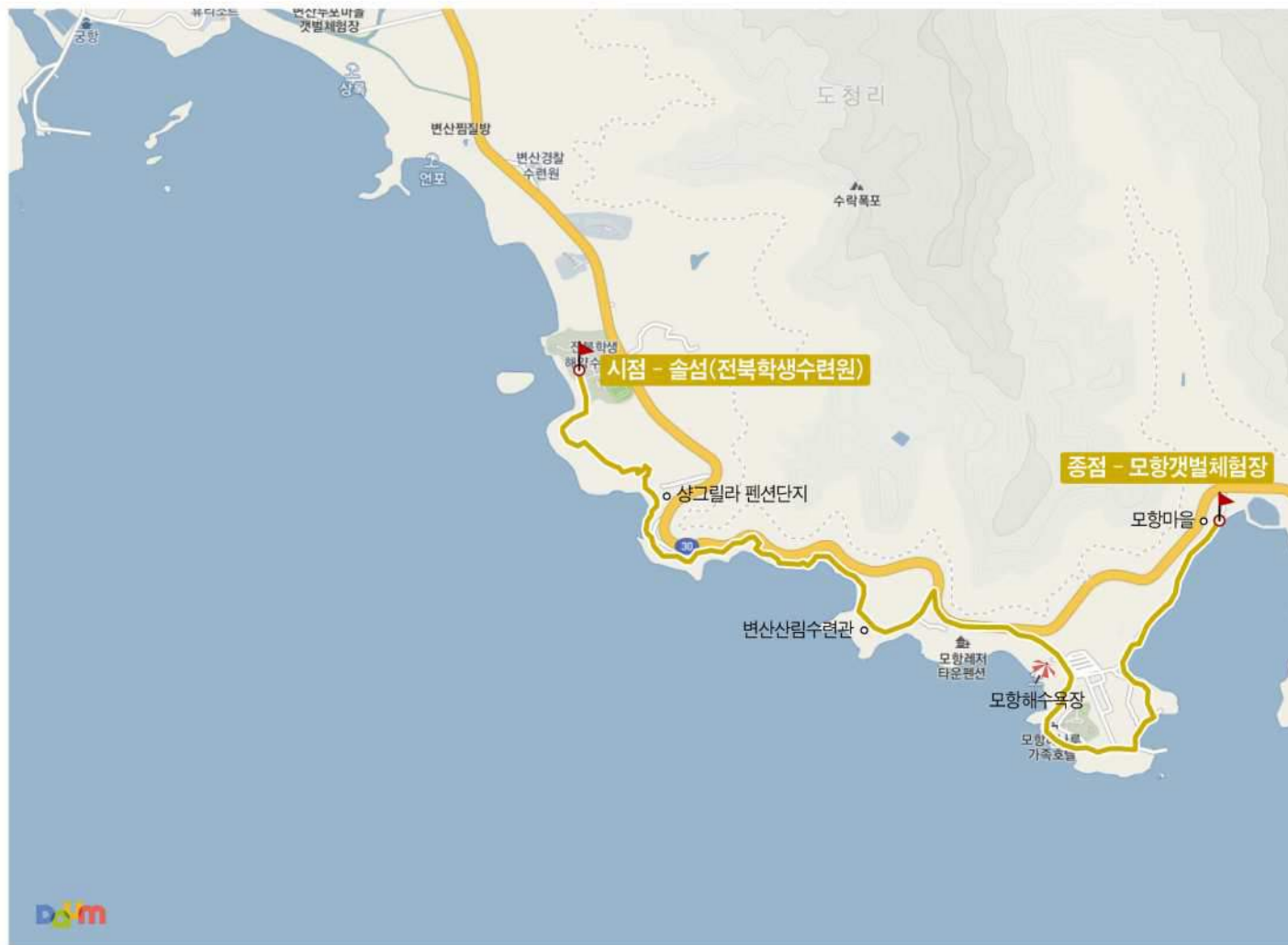




이 길의 주인공인 솔섬과 모항은 지구과학적으로 가치가 높고 경관이 뛰어나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중생대 백악기 화산폭발로 밀려 내려가 있는 용암절벽과 그 위에 풍화와 조류가 만든 침식토가 덧씌워진 층적암의 절묘한 조화가 형용할 수 없게 신비롭다. 검은 자주색 모래들도 매우 특이하다. 흔히 볼 수 없는 지질의 경관만 즐기며 걸어도 전라북도의 서쪽 끝 지역까지 올 이유는 충분하다.

길을 걸으면 만나는 솔밭 해안길과 바위 위를 걷는 길도 모두 로맨틱하며, 싱그러운 바닷바람은 더할 나위 없는 덤이다. 또한 모항은 갈대 혹은 억새와 비슷하게 생긴 식물이 군락을 이루어 자란다는 뜻이다. 길을 걸으며 마주하는 띠 풀은 갯벌과 육지의 경계가 되는 구역에 자생해 색다른 경관을 이룬다.

이어 걸음이 닿는 모항해수욕장은 썰물 때 멀리까지 드러나 지평선이 닿는 갯벌은 답답했던 마음을 확 풀어주는 듯하다. 모항마을을 벗어나 모항갯벌체험장에서 여정을 마친다. 바다가 저만치 자리를 물리면 조개를 캐는 등 다채로운 갯벌 체험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다.



## ② 정보 안내

위험구간 없음

관광안내소 반월안내소(010-3650-1310)

문의처 부안군청 환경과(063-580-4442)

주차장 유무 시종점 주차장 有

## 👤 추천 한마디

변산산림수련관은 꼭 둘러보자. 다양한 숲속 산책로와 전망데크 등 기분 좋게 걸을 수 있는 곳이다. 사전예약으로 숙박도 가능하다.

## 📈 고도표







## 쌍계재 아홉구비길 부안군 제4길 (부안 마실길 6코스)

구비마다 펼쳐보는  
아름다운 자연



**컨셉**  
해안길



**길이**  
7Km



**시간**  
2시간 30분



**난이도**  
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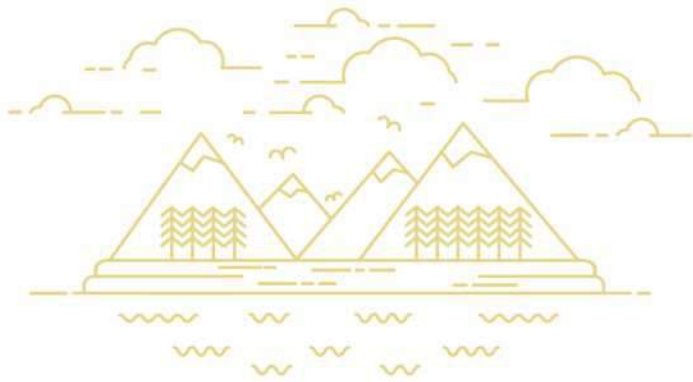
**시종점** **시점** 모항갯벌체험장 (부안군 변산면 모항길 107)

**종점** 왕포마을 (부안군 진서면 왕포길 30-3)



모항갯벌체험장을 떠나 흙길, 잔디밭길, 소나무숲길과 바위길이 교차하고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반복되는 재미있는 길을 시작한다.





체험장을 떠나 변산자연휴양림의 바로 뒤를 지키고 있는 높은 고개 쌍계재가 보이고 우리는 고개 아래 재를 넘지 않고 바닷가 길을 걷게 된다. 잠시 후 다소 가파른 길을 올라 아찔한 절벽 위에 작은 곳으로 이루어진 전망의 장소가 보인다. 고요한 적막과 느리게 가는 듯 한 어선들, 잠시 모든 고뇌를 멈추고 바라본다.

이어서 걸음은 조릿대숲을 지난다. 크게 자란 조릿대를 시누대라고도 한다. 뻥뻥한 시누대가 키를 이기지 못하고 휘어져 터널을 만들었는데 안에 들어서면 옛날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다.

계속 걷다 보면 널따란 마동방조제에서 갯벌을 조망할 수 있다. 갯벌에는 사람도 칠새도, 갑각류와 패류도 저마다의 삶을 있는 힘껏 살아가고 있다. 긴 흙둑을 통과하면 까치와 낙조로 유명한 작당마을과 칠산어장의 요충지 왕포마을에 닿는다. 파란 하늘 아래 주홍 일색의 지붕들이 더욱 도드라진다. 지중해의 바닷가를 연상케 하는 햇살 가득한 왕포마을 정자에서 여정을 마친다.

## ① 정보 안내

위험구간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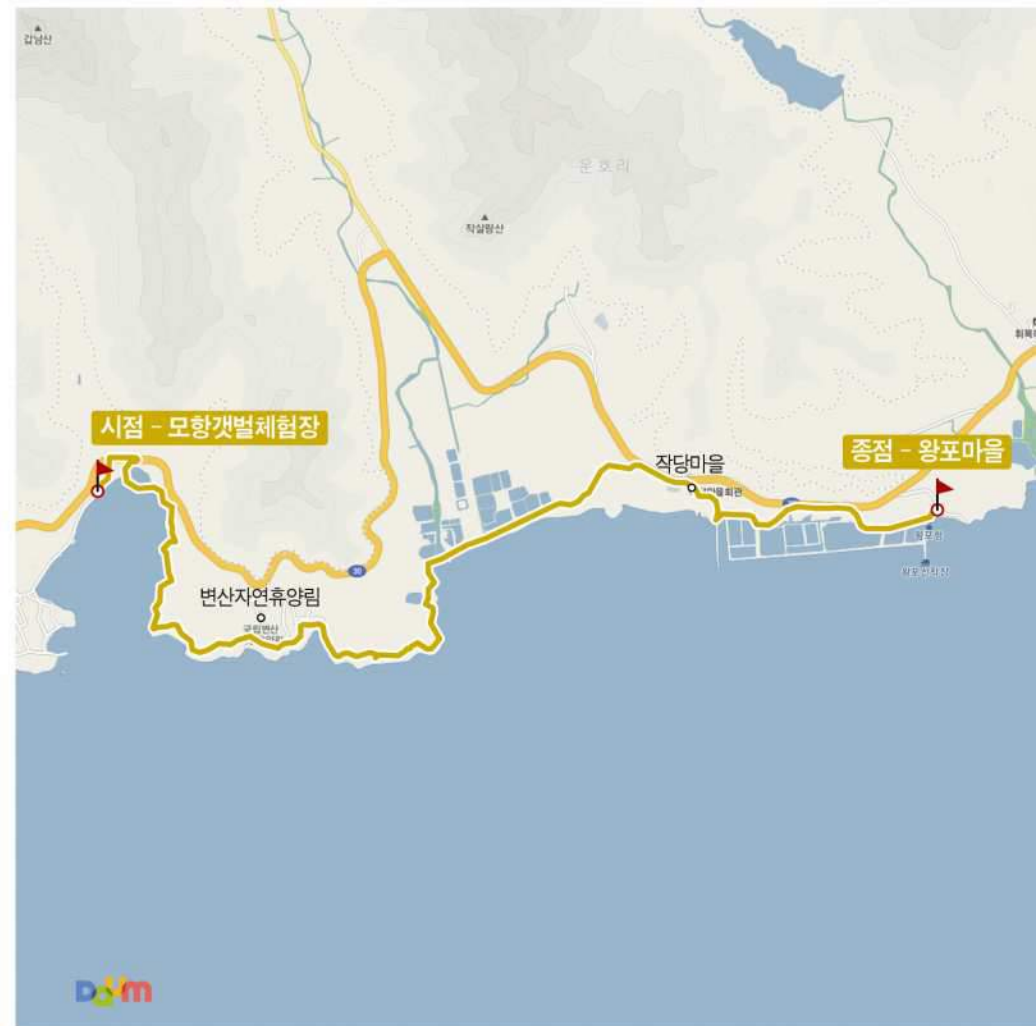
관광안내소 반월안내소(010-3650-1310)

문의처 부안군청 환경과(063-580-4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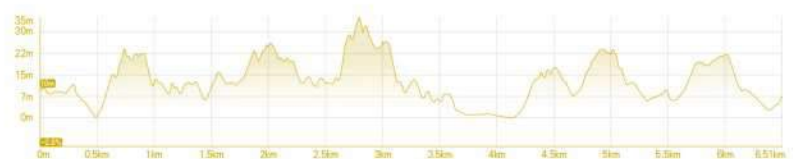
주차장 유무 시종점 주차장 有

## 👤 추천 한마디

낙시 출조로 유명한 곳이다. 인근에 곰소항이 있어 밥도둑 젓갈 한상 그득한 백반을 맛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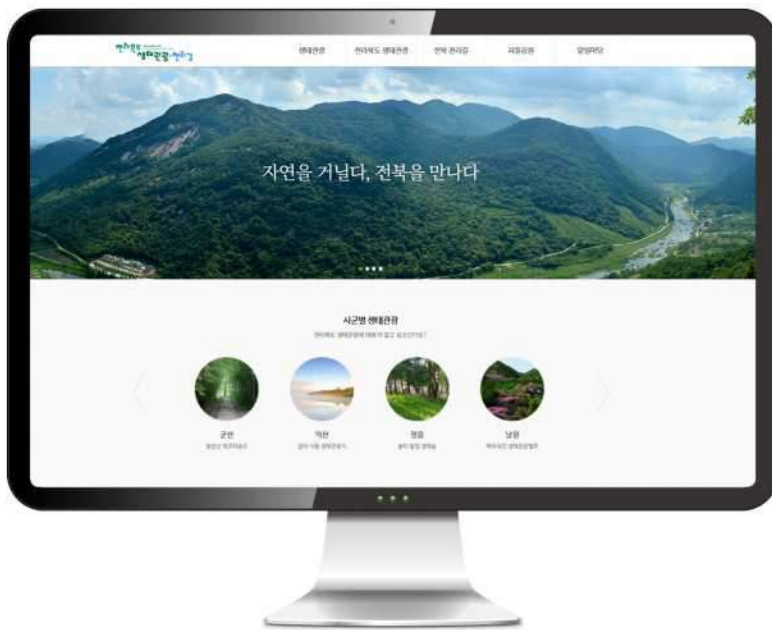
## 📈 고도표





# 전라북도 생태관광·천리길 홈페이지 소개

전라북도 생태관광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수려한 자연경관 및 역사 문화의 이야기가 있는 길을 엄선한  
「전북 천리길」 노선도 함께 살펴보세요.



[www.jb-ecotour.org](http://www.jb-ecotour.org)



<u>발행일</u>	2019년 9월 1일
<u>발행처</u>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a href="http://www.jb-ecotour.org">www.jb-ecotour.org</a>   063 224 1966
<u>지도</u>	Daum 지도

이 책자에 실린 사진과 글의 무단전재를 금합니다.